

洪州界

大田國立中央圖書館
韓國大學文化院

高等面

洪州文化

山月

巴谷面

寶蓋山

尺面

碧濟山
加次面

洪州鄉土文化研究會

院
面

洪州界

대전중구문화원 042-256-3684
홍주문화 제9집



0003179

연 작 시 Ⅱ

..... 內院寺 뒷등마루에 서서

오서산 중허리 동향 한자락
천 삼백 여년전
백제 의자왕 15년에
法明大師가 첫 숨 몰아쉬던 곳
내원사가 바로 이 절이다.

육이오 난리통에 소실되고
이젠 초라한 모습 되었지만
뜻모아 옛모습 다시찾음 어떠하리

주류성이
임존성이
홍주성이
한눈에 건네다 보이는 자리

광성리 옛성터
부흥군 가솔들 주거하던 군막에서
아낙네들 오르내리며
불사 올리던 곳

그 때
그 사연들이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구나.

雨水날 아직
찬바람 쏘이며
주류성을 굽어본다.



大田直轄市中區文化洞1-168

社團法人 大田文化院
1994. 4 제 9 호

大田

권두언/ 후손에게 유산을.../ 이연완	2
내포지체의 특징과 지령의 상징/ 배동순	3
백제의 부흥운동과 복신장군/ 김갑현	20
인물탐방/ 팔명학교를 찾아서(동명학교편)/ 주옥로	23
노은동맥/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생가마을/ 전옥진	31
사찰/ 내원사·세심사·미륵석불/ 박문신	51
백야 김좌진장군의 서당생활/ 이견엽	55
〈지상으로 보는〉 홍주향토박물관/ 허 규	58
〔특집〕결성농요/ 황성창	62
향토사 정보/ 복익채	73
편집후기/ 편집위원	74

●표지설명: 結城地圖解説

본 지도는 結城邑의 掌面(장면)이 高等面(고등면)을 비롯하여 巳谷(사곡), 加次(가차), 九項(구항), 斗尺(두척), 花山(화산), 廣川(광천), 上西(상서), 下西(하서) 등 9개면이 1696년 縣志(현지) 이후 10여종의 읍지(邑誌)와 지도에 기록이 없는 古地名(고지명)과 縣內面이 없는 것으로 合西面전에 面行政의 시초 縣內面을 별도로 설치전에 제작한 지도를 판단한다. 그리고 驛과 院 또는 倉, 紅泊處:선박처와山川과 洪州去路(홍주거로)만이 간단한 기록은 古代史 研究에 비교되는 資料이다.

• 規格: 40cm×40cm

• 形式: 筆本

• 年代: 不明(1600년 이전 제작 추정)

• 所藏: 本郡 安懷堂

• 筆者: 黃愷昌

발행일자: 1994. 4.

발행인: 황 규 철

발행처: 홍 성 문 화 원

홍성군 홍성을 오관리 412-13

TEL. 32-3613(홍성문화원 내)

편집인: 박문신·주옥로·허 규

인쇄: 냉암사/ 대표 김 기 중

표지제자위요: 정 환 섭

후손에게 遺産을…….

이 연 완



눈부시고 아름답게 꾸며진 수많은 교각들이 “세느강” 위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40만소장의 루브르박물관을 앞세워 佛國(프랑스)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고 보니 먼저 천,수백년 긴 세월동안 우리의 문화를 지켜온 慶州의 石窟庵을 찾는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하나의 돌로 이루어 놓은 石佛로서의 크기와 그리고 부드러운 선(線), 섬세한 솜씨는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타고난 技巧에 절로 나오는 경탄을 참기 어렵다. 부처님을 받드는 蓮花臺의 규모, 주위를 둘러싼 菩薩의 彫刻, 천정을 떠받치는 建築의 기교 어느하나 우리의 자랑 아님이 없다. 돌을 깎아 石窟을 짓고 精誠을 다하여 大佛을 모실때 分明코 新羅는 國泰民安을 願하였을 터인데 웬일로 그는 亡하고 世上은 몇차례나 바뀌었는데도 그러한 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내려다보는 그 얼굴은 무엇을 말함일까?

그리스도는 眞理의 福音을, 칸트는 깊은 理想을, 베에토벤은 아름다운 음악을, 간디는 위대한 精神을 각각 남기고 갔다. 그러면 우리의 祖上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 시련속에 이 민족의 實力은 자라가고 또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祖上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많은 文化遺産을 남기고 갔다. 삼천리 금수강산 구석구석마다 알게 모르게 산재한 그 모두가 그분들의 얼이 담긴 값진 우리의 文化財이다.

百濟의 復興軍 최후의 堡壘였던 그 周留城이 잡초에 묻혀 아직도 나·당연합군을 노리고 있는듯 洪州의 抗戰場 內浦地域도 예외는 아니다. 보이고 안보이게 예제없이 술한 文化財가 뜻있는 자를 애타며 기다리고 있다.

“洪州文化”라는 연구지 발간도 어언 10집 차례가 되고, 赤手空拳으로 덤벼든 우리 鄉土文化研究會會員들의 其間의 勞苦도 여간하였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남겨진 것이 없다. 우리는 자기 存在의 자취를 남기고 가야한다. 나의 生命의 보람된 흔적을 남기고 가야한다. 내 人生의 정신적 記念塔을 세우고 가야한다. 生의 값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한다. 값지게 물려받은 文化財를 보존하고 발굴하는데 손톱자국만큼이라도 남기고 가야한다.

타고난 先人들의 아름다운 솜씨와 기교가 묻혀있는 祖國의 땅위에 무엇인가 生命의 보람을 남기고 가야한다. 회원이고 아니고간에 洪州人이라면 韓民族이라면 누구나 기꺼히 덤벼들어 내고장 내조국의 아름다운 文化遺産을 깨끗이 가꾸어 놓고가자. 토성에 덮인 한폭의 풀이라도 깎아주자. 허물어진 石城에 한개의 돌이라도 메꾸어주자. 이것저것 어지러진 古蹟地라도 찾아가 깨끗이 쓸어주자.

무엇인가 가치를 民族앞에 남겨놓고 가야한다. 작은 것이라도 좋다. 저마다 自己 生命의 보람을 남겨 고마운 祖上에게 성실하게 보답해 놓고 떳떳하게 떠나야 한다.

■ 저자 약력

- 이연완(李淵完) • 1923년 충남 홍성 홍북 출생
- 기행문 발간: 유럽편, 동남아편, 일본편
- 여행: 스위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영국, 불란서, 미국(본토, 하와이),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마카오
- 대한 三樂會 會員
- 국민학교 교원(41개년) 정년퇴직
- 취미: 여행, 수필, 미술
- 洪州鄉土文化研究會 會員

內浦地體의 特徵과 地靈의 象徵

배 동 순

■ 목 차 ■

I. 내포의 지체 개요

1) 동양 천문학상의 위치

- (1-1) 기성분야(箕星分野)에 속해 있다. ... (天星과의 관계)
- (1-2) 기조력 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지대이다. ... (달과의 관계)
- (1-3) 태양의 8족중 세번째의 지구는 이와같은 인력권의 위치에 있다.
... 태양과의 관계 = 지구(내포는 이속에)

2) 내포지역의 지체구조

- (2-1) 선상형태의 단층지대이다
- (2-2) 차령산맥의 서익(西翼)에 있다.

3) 내포지역의 산세 형태

- (3-1) 백월 · 가야산맥은 수역으로 감싸여 있다.
- (3-2) 수맥이 구두(龜頭)를 감싸 안은 격이다.

II. 달의 기조력과 내포와의 연관성

4) 기조력<달의 인력>이 제일 강한 지역

- (4-1) 내포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지대이다.
- (4-2) 해성퇴적평야와 침식삭박평야의 병존지대이다.
- (4-3) 내포는 간사지가 넓은 지대이다.
- (4-4) 내포는 마식력(磨蝕力)이 강한 지대이다.

5) 단층과 기조력의 상승지대

- (5-1) 지진단층의 중심 백월산은 내포의 중심지이다.
- (5-2) 백월 · 가야산맥의 끝 백화산 부근에서 기조력이 제일 강하다.

I. 내포의 지체 개요

1) 동양 천문학상의 위치

(1-1) 동쪽의 기성(箕星)분야(分野)에 속해 있다.

지구도 천체의 하나이다. 천체의 주소를 찾으려면 태양계에 와야한다. 태양계의 가족으로 뚜렷한 표시로서는 달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특징이다.

달은 항성에 대한 전주기가 27.32일이라는데서 적도대를 28구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마다 별을 7개씩 배당하였다. 이 구역이 28수(宿)이다. 그러나 각 수의 폭은 모두 다르다. 수에는 거성(距星)이라고 하여 가장 큰 별이 배치되고, 별마다 몇 도 몇 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좌표의 위치에 따라서 그 소속의 별의 위치가 있기 마련이다. 지구상의 한국의 위치를 천체상에서 알려고 하면 28수의 위치를 가지고 28수중의 기(箕)성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 기성(箕星)이 있는 자리가 우리 한국의 위치인 셈이다.

이 기성(箕星)은 황도의 원주를 4등분(동·서·남·북)한 동쪽에 위치한다. 더 세분하면 동쪽에서부터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기(箕)해서 일곱번째에 가 있다.

내포의 위치는 궁수자리의 저(氐)방분야이다. 이것을 황도 12궁에서 찾으려면 서양 천문학상의 궁수자리에 가서 찾아야 한다.

아래의 (표2) 별자리 일람표를 보면, 8번째의 궁수(Sgr)로서

(그림1) 한국 별 이름



기성(箕星)의 궁수자리

적경(赤經)1900(hm), 적위(赤緯) -25°에 있어 9월20일 20시에 자오선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포 지방은 기성(箕星)분야내의 진궁(震宮)에서도 저(氐)방에 속해 있다.

—(동양천문학상의 위치)

(표1) 28수의 거성(距星)

수	이름	거성(距星)
동쪽 별자리	1 각(角)	(α) 처녀자리
	2 항(亢)	(κ) 처녀자리
	3 저(氐)	(α) 천칭자리
	4 방(房)	(π) 전갈자리
	5 심(心)	(θ) 전갈자리
	6 미(尾)	(N) 전갈자리
	7 기(箕)	(g) 궁수자리

(표2) 별자리 일람표

순번	별자리 이름	약호	개략위치		20시에 자오선 통과 (월일)	육안 성수	지평에 보이는 시간(월)
			적경(hm)	적위(°)			
1	까마귀	Crv	12 20	-18	5 23	26	5
2	거문고	Lyr	18 45	+36	8 29	60	8
3	게	Cnc	8 30	+20	3 26	91	3
4	고래	Cet	1 45	-12	12 13	162	12
5	고물	Pup	7 40	-32	3 13	313	3
6	궁기뿔프	Ant	10 10	-35	4 17	85	4
7	궁작새	Pav	19 10	-65	9 5	129	안보임
8	궁수	Sgr	19 00	-25	9 2	90	9
9	그물	Ret	3 50	-63	1 14	34	안보임

■ 山經圖

조선시대 우리에게는 강줄기와 내, 즉 물줄기를 기준으로한 산줄기 개념이 있었다. 하나의 大幹과 하나의 正幹, 그리고 13개의 正脈이 큰강의 유역을 이루고, 그로부터 가지친 岐脈들이 나와 골을 이루어 삶의 지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땅 모두의 地形 地勢 파악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이름하여 白頭大幹, 長白正幹, 洛南正脈, 淸北正脈, 淸南正脈, 海西正脈, 臨津北禮成南正脈, 漢北正脈, 洛東正脈, 漢

南錦北正脈, 漢南正脈, 錦北正脈, 錦南湖南正脈, 錦南正脈, 湖南正脈이다.

撰表者 未詳인 山經表의 刊行時期는 1800년 전후로 보아지지만 이와같은 概念의 地勢 表現은 우리나라 全圖로서 가장 오래된 1557년경의 朝鮮方域地圖에서와 그밖의 古地圖에서도 잘 드러나 보이고 있다. 대부분 江 이름에서 비롯된 正脈들의 이름이 지닌 뜻은 大幹, 正幹과 함께 모두가 큰강의 물뿌리(分水岐)로서 생명의 始인 물(重水)의 產地라는 認識이다. 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모든 나라에 있으나, 그를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의 山觀은 각기 다르다고 본다.

낱고(始와 開), 살고(生과 精), 쓴다(死와 輪)는 모두를 산에 묶어 두고 살아온 우리들이었다. 이땅의 산은 저만치 홀로있는 산이 아니다.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 결국 우리는 산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歸結이다.

현재 우리는 日本人 地質學者 小藤文次郎가 1903년에 발표한 「朝鮮의 山嶽論」 즉, 땅 속의 사정인 地質構造線에 근거한 山脈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들의 先代가 물줄기 중심의 山脈概念으로 이땅을 가름하고 인식했던 山經은 옛부터 細分化되어 發達되고 定着되어진 모든 生活文化圈의 圈域的인 分界를 자연스레 이루고 있다. 이 時代의 自然, 人間, 社會, 歷史, 政治, 經濟, 産業 등 모든 分野가 우리 古來의 땅 概念에 基層되어야 하겠다.

※ 앞면 山經圖의 산이름은 山經表의 옛이름이 아니라 현재의 땅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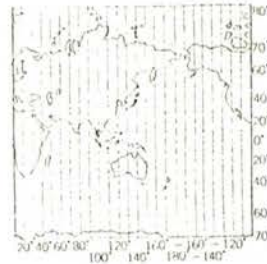
(1-2) 기조력 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지대이다.

(도면상으로만 제시: 수학적인 도식설명 생략)

A) 지구의 표면상의 한국 위치

(1) 지구를 음양의 양면으로 구별하여 정면을 아시아로 한 도면이다.(表面)

(2)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세로, 가로로 구분하여 방안으로 하니 세로 16간, 가로 25간이다.
(표3)



(3) 400(16×25) 간 속의 1간이 한국 땅이 된다.(400/1)

(4) 한국은 이 도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면적은 한 눈을 차지한다.

B) 한국의 산맥도상의 내포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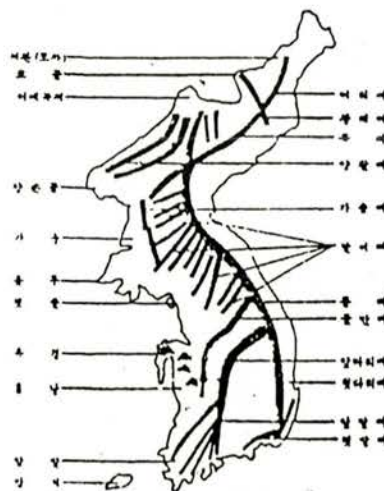
(1) 한국은 하나의 대간과 하나의 정간(正幹) 그리고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이루어졌다.

(2) 이름하여 ①백두대간, ②장백정간, ③낙남(洛南)정맥, ④청북(淸北)정맥, ⑤청남(淸南)정맥, ⑥해서(海西)정맥, ⑦임진(臨津)정맥<약해서>, ⑧한북(漢北)정맥, ⑨낙동(洛東)정맥, ⑩한남금북(漢南錦北)정맥, ⑪한남(漢南)정맥, ⑫금북(錦北)정맥, ⑬금남호남정맥, ⑭금남정맥, ⑮호남정맥이라고 1557년때 조선 방역 지도에 실려 있다.

(3)이 가운데 금북정맥이 충청도에 속한다.

충청남도는 차령산맥 영역이며, 내포지방은 한국의 심장맥으로써 오서분기(烏棲分岐)맥이 되는데 세분하면 백월가야맥이 된다.

(4)이 백월가야산맥이 신장(腎臟)기능맥으로



(그림2)

한반도(韓半島)의 국지상(國地相)

서 태안반도를 이루면서 동시에 천수만을 형성하였다.

C) 달 인력으로 리아스식해안이 된 내포

(1)달의 삭망월 29.530589일

(1900년의 값)

※항성월, 분점월, 교점월, 근점월

(2)지구의 가장 가까운 천체로서의 달

(비교도 생략)

(3)달은 유일한 천연위성이며, 특히 내포지역의 청소부

(4)거리는 38만 4400km,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400분의 1

※지구 반지름의 60배

(5)달 반지름 길이의 약 4분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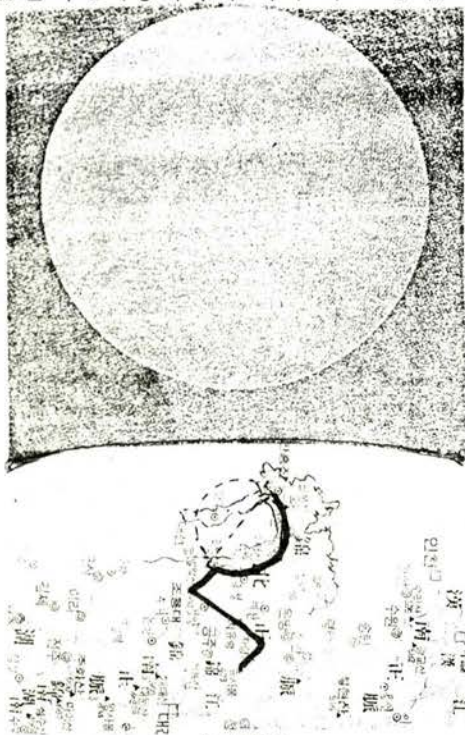
(1738km)-지구에서는 태양이나 달의 크기가 같게 보임

(6)달의 질량은 지구의 약 81분의 1

※지구와의 형제

(7)광속거리 약 1.3초(형제와의 거리)

(8)달의 면적은 지구의 14분의 1, 부피 49분의 1 (형제와의 체격 비교 생략)



(그림3)

(9)달의 인력으로 아산만과 인천만의 조수간만의 차는 약 9m이다.

(10)달 인력의 조석현상(潮汐現象)으로 한국 서해안이 리아스식 지대가 되었다.

(1-3) 태양의 8족중 세번째의 지구는 이와같은 인력권의 위치에 있다.

..... (태양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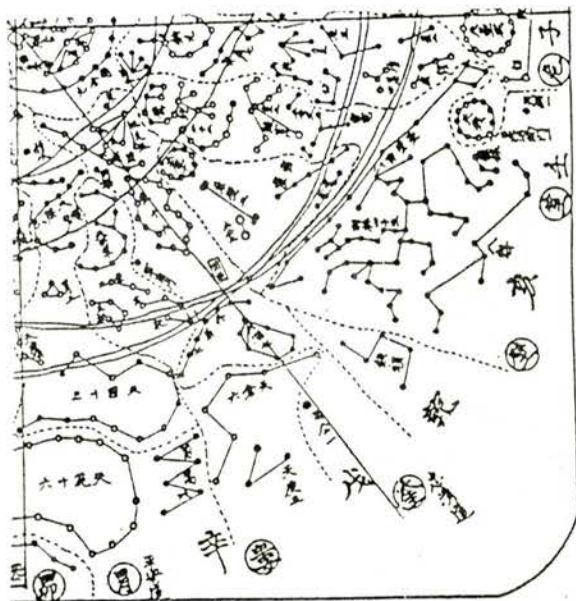
동양의 천문도는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28수(宿)와 북극성의 관계에 의하여 칠(7)·일(1) 묘연으로 짜놓았다.

옛 성현들은 우주 즉 하늘의 마음을 천상(天象)으로 알고 그것을 괘(卦)로 전환하여 그 이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역(易)이다.

이 이론을 쉽게 알아보도록 풀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편의상 도(圖) 2장과 표(表) 1장으로 축약하기로 한다.

(1·3·1) 종합 천문도

충남의 위치는 규루(奎婁)의 위치에 있다.



(그림4) 종합 천문도

(1·3·2) 천근월굴의 시종순환표

	一混元	一紀元	一星元	一日元	一統	一運	一會	一章	一年
	1	2	3	4	5	6	7	8	9
一	5,316,403,680日	49,966,200日	9,993,240日	3,331,080日	1,665,540日	555,180日	27,759日	6,939日 $\frac{705}{940}$ 分	354日 $\frac{705}{940}$ 分
二	2,368,800月	1,692,000月	338,400月	112,800月	56,400月	18,800月	940月	235月	12月
三	191,520年	136,800年	27,360年	9,120年	4,560年	1,520年	76年	19年	1年
四	10,080章	7,200章	1,440章	480章	240章	80章	4章	1章	—
五	88,606,728回	832,770回	166,554回	55,518回	27,759回	9,253回	—	—	—
六	29,535,576回	277,590回	回	18,506回	9,253回	—	—	—	—
七	14,767,788回	138,795回	55,518回	9,253回	—	—	—	—	—
八	532回	380回	27,759回	—	—	—	—	—	—
九	餘 189,871,560回	餘 1,784,507回4日	76回 餘	餘 118,967回4日	餘 59,438回16日	餘 19,827回24日	餘 991回 11日	餘 247回2日 $\frac{705}{940}$	餘 12回18日 $\frac{348}{940}$
十	28宿을 비롯한 모든 공배	28宿을 제외한 공배 氣數	356,901回4日 28宿을 7황 도가 1바퀴 회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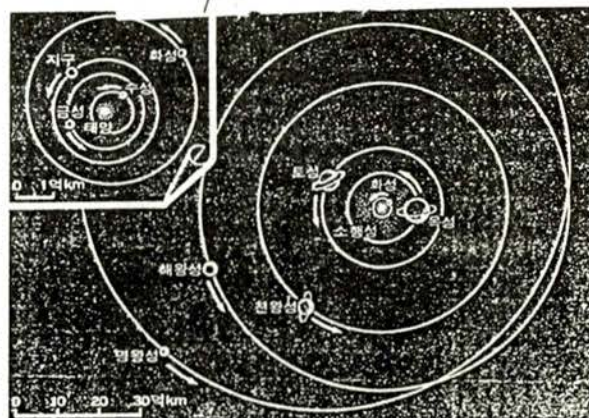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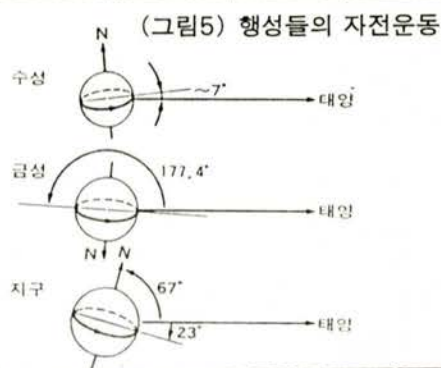
천근월굴의 시종순환표의 3 일성원유(一星元有)에서 보면 1440장(章)이 나오는데 본인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알기 쉽고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장(章)은 메톤주기라해서 태양과 달이 어떠한 위치상에 어떠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1·3·3) 태양계의 크기

태양계의 반지름중 가장 멀리 있는 명왕성의 공전궤도의 평균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와 태양간의 평균거리(IAV)의 약 40배 즉 약 60억km이다.

(행성들의 자전 주기)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자전주기 (지구의 시간)	58.6 일	243 일	23시 59분	24시 37분	09시 50분
행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자전주기 (지구의 시간)	10시 14분	10시 49분	16시	6.4일	



(그림 6) 태양계의 구조

2) 내포지역의 지체구조(地體)構造)

(2-1) 선상형태의 단층지대이다.

(그림7)는 홍성부근을 포함한 충청남도 서북단의 미국 인공위성(LANDSAT)이 촬영한 선상구조도(線狀構造圖)이다.

선상구조(線狀構造)란 지표상에서 두드러진 선상형태(線狀形態)로서 단층(斷層), 산령(山嶺), 계곡(溪谷)등을 표시한다.

(그림7) 충남 서북부의 선상구조도



충청남도의 서북부는 소위 남포단층구역(藍浦斷層區域)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대·소의 단층들이 많으며, 또한 유명한 원산-서울간의 추가령지구대(秋哥嶺地溝帶)가 아산만(牙山灣)을 넘어 본 구역에 연장되어 수조의 단층들로 분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본 구역내의 주요단층(主要斷層)들을 들면, 보령군 보령(保寧郡 保寧)에서 출발해서 서북진하여 홍성을 지나 아산만·도고(牙山灣 道高)와 당진군 합덕(唐津郡 合德)사이에서 아산만(牙山灣)에 도달하는 큰 단층과 결성구읍(結城舊邑)에서 출발해서 북북동진(北北東進)하여 서산군 해미(瑞山郡 海美)를 거쳐 당진읍(唐津邑)에 이르는 단층 그리고 남쪽의 서천(舒川) 부근에서 출발하여 북북동진

(北北東進)하여 예산군 대흥(禮山郡 大興)을 지나 도고(道高)에 이르는 긴 단층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산군 태안(瑞山郡 泰安)의 남동쪽에 1조와 그 북서쪽에 짧은 3조의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평행단층(平行斷層)이 발달되었다. 그리고 예산군 덕산(禮山郡 德山)에서 서로 교차되는 수조(數條)의 장·단(長短)의 선상구조(線狀構造)중 홍성군 갈산면(洪城郡 葛山面)의 남쪽과 덕산(德山)을 연결하는 북동-남서 방향의 선상구조가 길다.

등질(等質)지역과 결절(結節)지역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지도 구분으로는 대체로 조선조시대의 홍주목권(洪州牧圈)의 5군 14현 지대이다.

(2-2) 차령산맥의 서익(西翼)에 있다.

충청남도(忠淸南道)는 전체적으로 저평(低平)한 지대로 알려져 있으나 도의 중앙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가로 지르는 차령산맥(車嶺山脈)에 의해 양분된다.

이 지형적인 여건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양 지역에 생활양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여러 활동에 있어 연결을 차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일차적으로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차령산맥 북서쪽에 위치한 천안시, 천원군, 아산군, 예산군, 홍성군, 당진군, 서산군 등 북서군 지역은 천안을 중심 도시로 하여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首都圈)과 인접해 있어서 2차적인 도시 서비스를 도의 중심지인 대전보다 서울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인다.

차령산맥 동남쪽의 대전시, 대덕군, 금산군, 연기군, 공주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군 등 금강유역의 제지역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다.

지역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지형이 기초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유통구조(流通構造), 정치, 경제적 요소, 문화·역사적 요소, 생활권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양지역은 몇 개의 소지역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은 가야산지(伽倻山地)에 의해 서산·당진지역이 하나로, 예당평야(禮唐平野)에 위치한 홍성·예산지역이 한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시장권(市場圈), 생활권(生活圈), 문화 역사적인 요인 등 인문환경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천안, 천원, 아산 일대의 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청주의 관할하에 속했던 곳으로 천안의 직접적 도시영향권 지역이다.

서해안 남부의 보령과 서천지방은 차령산맥 말단에 위치하며, 조선시대의 한산, 서천, 비인, 남포 등 저포산지(苧布產地)로 유명했던 한 권역(圈域)이 통합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서천군은 전북 양산의 발달에 따라 그의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동남부는 대전 대도시 세력권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금강수계(錦江水系)의 금산분지(錦山盆地), 대전분지(大田盆地)에 입지한 대전시와 대덕·금산이 자연·인문적인 하나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다. 정기시장권 등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를 중심으로 한 청양·연기군은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다.

금강하류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진 논산평야 지대의 중심인 부여와 논산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충남 전체 지역을 북서부 해안지역(서산군, 당진군), 서부 해안지역(홍성군, 예산군), 북동지역(천안시, 천원군, 아산군), 중부 내륙지역(공주군, 청양군, 연기군), 동서지역(서천군, 보령군), 남부지역(논산군, 부여군), 남동지역(대전시, 대덕군, 금산군) 등의 7개 지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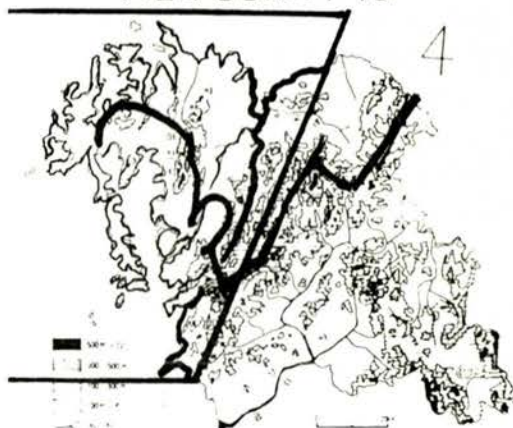
본지(本紙)에서 내포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백제부흥군운동의 중심지 홍성과 청양(차령산맥이서),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군의 7개군 권역이다.

3) 내포지역의 산세 형태

(3-1) 백월·가야산맥은 수역으로 감싸여 있다.

충청도의 윤곽은 강원도 오대산 부근에서 태백산맥으로 부터 갈라져서 남남서 방향(南南西 方向)으로 달리면서 충청남도과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다가 중앙을 달리는 차령산맥(車嶺山脈) 그 북서쪽의 가야산지(伽倻山地), 남동쪽의 계룡산지 그리고 남동쪽의 금산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산고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8) 충청남도의 지형



차령산맥은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에서부터 경기, 충북의 도계를 따라 남남서로 달려 충청남도의 중앙부를 지나 서해안의 보령군 웅천면과 주산면, 서천군, 비인면과 중천면에 이르러 서해와 접한다.

평균고도는 600m 정도로서 본 도에서는 가장 연속성이 강한 산지이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산맥들은 물론 강원도와 경기·충북의 차령산맥(車嶺山脈) 상부지

역에 비해서도 그 고도와 연속성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산맥의 동북부에는 치악산(雉岳山: 1,128.9m), 오대산(五臺山: 1,182m), 백운산(白雲山: 1,087m) 등 1,000m 이상의 고봉(高峰)들이 솟아 있으나,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지역에 이르러서는 고도가 감소하여 오갑산(梧甲山: 609.4m), 국망산(國望山: 770.3m), 수래의 산(679.4m), 서운산(瑞雲山: 579m) 등 600m~700m 고도의 산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 산맥은 충청남도에 들어와서도 흑성산(黑城山: 519.3m), 광덕산(廣德山: 699m), 무성산(武盛山: 613.6m), 칠갑산(七甲山: 561m), 오서산(烏棲山: 791m), 성주산(聖住山: 680m), 옥마산(玉馬山: 601m), 월명산(月明山: 544m) 등 해발 500m~700m 고도의 산이 주종을 이룬다.

본 도의 차령산맥 산지 중 칠갑산의 지형은 비교적 자세히 연구되었다. 칠갑산이 개척되기 이전의 지형을 복원하면 전체적 형상은 돌형(凸形).

가야산지(伽倻山地)는 충청남도의 북서부에서 남북으로 달리면서 태안반도를 내륙지방과 갈라 놓고 있다.

가야산(伽倻山: 677.6m)을 주봉으로 서원산(書院山: 427.7m), 덕숭산(德崇山: 449m), 삼준산(三峻山: 489.9m), 일월산(日月山·白月山: 394.8m) 등으로 이어지는 본 산지들 중 덕숭산의 화강암 잔류암체에는 현기후와 다른 고기후하에서의 지중풍화(地中風化)에 의하여 형성된 화석 풍화혈(化石 風化穴)이 나타난다.

해발 145~155m 고도에서 특히 밀집되어 나타나는 이 풍화혈(風化穴)은 지중풍화에 의해서 풍화기저면(風化基底面)의 저하와 더불어 형성된 후 풍화물이 탈거(奪去)됨에 따라 노출되었다.

차령에서 달려온 산맥이 보령, 청양,

홍성의 삼각교계(三角交界)에서 홀립(屹立)한 산이 오서산(烏棲山)이다. 이 산의 동쪽 줄기가 유명한 주류산성을 이루고 북주하여 학성산성, 태봉산성, 소구니산성, 천태산성을 이루고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鳳首山)에서 종경리로 가서 추사고택을 이루었다.

오수산(일명 해의산 또는 오성산)이 백월산으로 달리기위해 광천 운룡리에서 잠두(누어머리)로 입수(入首)하여 남산으로 해서 중심맥은 백월산, 용봉산, 덕숭산, 가야산으로 해서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을 형성하였다. 백월산으로 오기전 남하한 한줄기는 구항의 보개산으로 해서 결성의 형산을 이루고 뛰어서 청룡산이 되고 내려가서 왕자산, 석당산을 형성하였다.

오서산에서 가야산으로 뛰는 도중 자리한 곳이 유명한 백월산(일월산)이다. 백월산의 지하화산맥이 용봉산의 화체산(火體山)을 형성하고 북주하다보니 덕산에서 온천을 분출하고, 가야산에 가서 자미원국을 형성하였다.

백월산(일월산)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고 내포지역의 많은 상징을 잉태하고 있다. 여기에서 달(月)과 연관지며 물리적으로는 천수만의 조석작용을 일으키면서 월량(月亮)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삽교천(插橋川)의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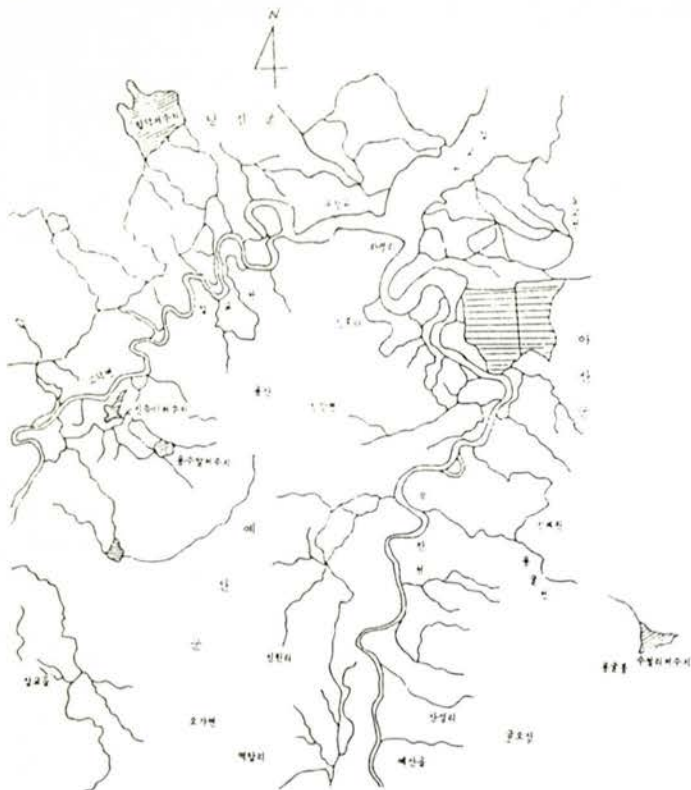
길이(km)	61.0
면적(km ²)	1,613.5
평균폭(km)	26.45
유역형 상계수	0.434
사행도(tortuosity)	0.591
유로형상계수	1.57
만곡부연장(km)	36.05
기점과 종점사이의 직선거리(km)	38.85

(3-2) 수맥의 구두(龜頭)를 감싸 안은 격이다.

북류하는 삽교천(아산만으로 유입)=외선
삽교천은 홍성군 홍성읍 금마면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무한천(無限川, 국교천(曲橋川) 등의 지류를 합하여 아산만으로 유입한다.

직할하천(直割河川) 3개, 지방하천 2개, 준용하천(準用河川) 9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9) 북류하는 삽교천도

삽교천의 하구에는 1979년 10월에 완공된 삽교천 방조제가 있다.

남류하는 웅암천, 남류하는 해미천, 남류하는 서산천 천수만으로 유입=내선

4) 기조력(起潮力) 달의 인력이 제일 강한 지역

(4-1) 내포는 리아스식해안이 발달한 지대이다.

:(달의 인력이 여러개의 만을 만들다)

충청남도의 해안선은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ria coast)이며, 도서(島

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침수해안(浸水海岸)의 특색을 나타낸다.

도의 서북단에 돌출해 있는 태안반도는 본 도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중요한 만으로는 아산만(牙山灣), 가로림만(加露林灣), 천수만(淺水灣), 비인만(庇仁灣) 등이 있고, 도서(島嶼)로는 안면도(安眠島: 87.96 km²), 원산도(元山島: 7.10 km²), 삽시도(挿矢島: 3.26 km²)를 비롯하여 난지도(蘭芝島), 가적도(價謫島), 장고도(長古島), 호도(狐島), 녹도(鹿島) 등이 있다.

도내의 총 島嶼數는 268개로서 우리나라에서 전남, 경남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유인도가 62개, 무인도(無人島)가 206개이고, 도서의 총면적은 유인도 158.12km², 무인도(無人島)가 11.52km²로서 총 169.64km²이다.

본 도의 여러 만과 도서는 후빙기(後氷期)의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진에 의해 침수되어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태안반도 일대의 여러 만은 천수만(淺水灣)

에서와 같이 해진 이전에 구조선방향(構造線方向)을 따라 차별침식(差別侵蝕)에 의해 형성된 골들이 침수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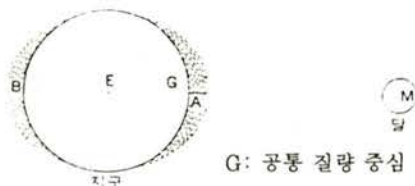
태안반도에는 남북방향의 소반도와 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충남해안의 조석간만(潮汐干滿)의 차는 황해안(黃海岸)에서도 큰 편으로 아산만에서는 평균 대조차(大潮差)가 8.5m에 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산지의 변동에 따라서 해안선은 주기적으로 이동한다.

(4-1-1) 기조력(起潮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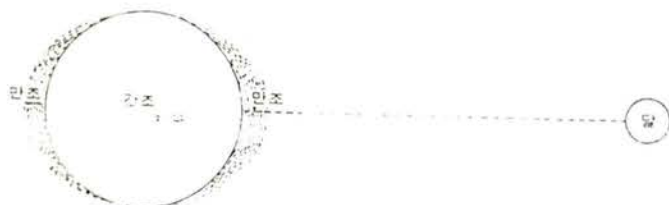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起潮力)이라 하며, 지구 외부에 있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생긴다.

(그림11) 기조력(起潮力)



기조력이 크기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와 천체 간의 거리의 3제곱에 반비례한다. 달은 태양에 비하여 질량은 작으나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달의 기조력은 태양보다 2배 크다. 따라서, 조석은 달 쪽과 그 반대쪽이 항상 만조가 된다.

(그림12) 달에 의하여 생긴 조석현상



해수에 미치는 기조력은 지구상의 모든 점에 똑같이 작용하는 원심력(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 운동할 때 생기는 힘)과 모든 점에 다르게 작용하는 달의 인력 사이의 차이이다.

달의 반대쪽이 만조가 되는 까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지구상에서 달을 향한 쪽을 A, 그 반대쪽을 B, 지구 반지름을 6370km라 하면 달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는 384400km이므로 EA:EM $\approx$ 1:60이다. 따라서 M에서 B, E, A까지의 거리의 비는 61:60:59가 된다.

$$BM:BE:BA = 61:60:59$$

또, 달의 질량을 m이라 하면 B, E, A 지점에 있는 질량 1g의 물체를 달에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 $F_B:F_E:F_A$ 의 비는 269:278:289이다. 즉

$$F_B:F_E:F_A = \frac{1 \times m}{61^2} : \frac{1 \times m}{60^2} : \frac{1 \times m}{59^2} \approx 269:278:289$$

가 된다.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그 중심은 지구의 중심이 아닌 지구와 달의 공동 질량 중심인 G이다.

EG의 거리는 지구 중심과 달 중심 사이의 거리가 384400km이고, 지구와 달의 질량비가 1:0.01228이므로

$$EG = 384400 \times \frac{0.01228}{1 + 0.01228}$$

$$\approx 4663\text{km이다.}$$

따라서,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4663km 떨어진 지구 내부에 있다. 이 공통 질량 중심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운동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게 된다.

M(달)이 G의 주위를 27.3일(항성월)을 주기로 회전하는 동안 E(지구)도 같은 주기로 G의 주위를 1회전하게 된다.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을 가지게 되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같은 회전 운동을 하므로 이로 인하여 생기는 원심력도 어느 곳에서나 같다. 이 원심력은 달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그 크기는 E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FE)이 구심력이 되어 지구가 G를 중심으로 하여 27.3일을 주기로 1회전 운동을 하며, 구심력과 원심력은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text{즉, A에서는 } 287-278=9$$

$$\text{B에서는 } 269-278=-9$$

$$(F_B:F_E:F_A=269:278:289)$$

$$(\text{원심력} = FE)$$

여기서 9는 기조력이고, +는 달을 향한 방향, -는 달의 반대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A와B에서는 똑같이 만조가 된다.

(4-2) 해성퇴적평야(海成堆積平野)와 침식삭박(浸蝕削剝)평야의 병존 지대이다.

:대조의 간만차이로 생긴 현상(全國最潮地域)

삽교천(插橋川)의 중하유부는 기복이 극히 작은 관계로 오늘날도 그렇지만 후빙기(後氷期)의 해면상승(海面上昇) 직후에는 대단히 넓고 깊숙한 만입(灣入)을 이루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삽교천 유역(插橋川 流域) 평야의 대부분은 인공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만조시(滿潮時)에 해수의 침입을 받는 간사지(干瀉地)였을 것이다.

간사지는 원래 해안에 발달하는 퇴적지형(堆積地形)으로 삽교천과 그 북동쪽에 있는 안성천은 이 간사지에 많은 양의 퇴적물질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조차(潮差)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간조시(干潮時)의 조류(潮流)에 의하여 하천 운반물질의 대부분이 바다로 밀려갔다가 만조시(滿潮時) 潮流에 의하여 그 일부가 다시 하구쪽으로 운반되어 와서 퇴적됨으로써 간사지가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사지의 지면이 높아진 곳을 간척하였다. 현재에도 새로운 간척지의 바깥쪽에 형성되는 간사지의 안쪽은 간척지면보다 높은 곳이 많다.

삽교천 연변의 평야와 같은 곳들은 해수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발달된 지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륙지방의 범람원(氾濫原)과는 근본적으로 그 발달과정이 다른 것이다. 하천 연변에 생성되어 있을 경우 하천충적물(河川沖積物)에 의해서 얇게 덮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서산, 덕산, 대천, 논산 등지에

넓게 발달하여 있으며, 이른바 페디먼트성 퇴적물로 얇게 덮혀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평탄면(平坦面)중 이른바 저위평탄면(低位平坦面)에 해당하는 지형이 넓게 나타나고 있는 내포의 경우는 전기(前記)한 산록완사면(山麓緩斜面) 평야와 함께 침식기원(侵蝕起源)의 평야가 많다. 더우기 사방 16km²내의 지방기복 150m 이하의 지역을 평야로 간주한다고 할 때에는 침식평야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침식평야(侵蝕平野)상의 충적지(沖積地)는 그 위를 흐르는 소하천의 연변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을 질게 풍긴다.

침식평야의 분포면적이 비교적 넓은 것은 이른바 이륜회성 지형론(二輪廻性地形論)에서의 지반융기량(地盤隆起量)이 적었던 중부지방 서해연변의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 빨리 해체(解體)되어 생긴 저위평탄(低位平坦:削剝)면 또는 저구릉성 침식(低丘陵性 侵蝕:削剝)지형이 널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Davis의 주변준평원(周邊準平原)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 지형은 천원,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홍성 일대와 서천일대에 널리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침식평야는 대부분 오랫동안 침식(侵蝕)과 삭박(削剝)을 받아 형성되어 왔으며 아직도 곳곳에 잔구상(殘丘狀)의 구릉이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삽교천 이서~ 태안반도에 이르는 이른바 내포평야의 기반암(基盤岩)은 대체적으로 당진읍~서산읍 이동에서 나타나는 중생대 주라기의 대보화강암(大寶花崗岩)과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 콤포플렉스에 속하는 서산층군(瑞山層群)의 편암(片岩, 규암)과 花崗岩質 편마암이 주종을 이룬다.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지는 대부분 오랜 침식으로 인하여 저평한 침식평야를 이루나, 곳에 따라서는 변성과정에 따른

풍화의 차이 등에 따라 저구능성(低丘陵性) 산지로 남아있는 곳도 있다.

본 지역의 화강암은 지역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침식(差別侵蝕) 결과 가야산지(伽倻山地) 일대와 태안읍의 백화산(白華山), 서산읍의 성왕산(聖王山) 등과 같이 산지로 남아 있는 곳과 당진군의 송산, 송악(松嶽), 신평(新平), 순성, 면천면과 당진읍 일대와 예산군의 고덕, 신암, 오가, 덕산, 웅봉면과 삽교읍 일대, 그리고 홍성군의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홍성읍 일대와 같이 저평한 삭박평탄면(削剝平坦面)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양분된다.

본 지역에 있어서도 충적지는 대부분 화강암지의 기반암위에 발달되어 있다. 당진군의 중앙을 북류하는 대방들천과 당진군의 삽교천(插橋川)과 남원천(南院川), 예산군의 무한천(無限川) 유역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이들 하천유역의 하성퇴적평야(河成堆積平野)와 그 상류부의 해성퇴적평야(海成堆積平野) 지역은 본 도의 차령 이북에서는 가장 넓고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룬다.

삽교천 하류부의 아산만 연안과 대방들천 하류부 일대, 그리고 천수만 안쪽의 해안 일대는 특히 간척에 의한 넓은 퇴적평야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등이 완공되면 본 지역의 간척평야(干拓平野)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3) 내포는 간사지(달에 의한 조수 퇴적물)가 넓은 지대이다.

충청남도의 해안을 따라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해안퇴적지형(海岸堆積地形)은 간사지(干瀉地)이다. 조차가 큰 해안에 널리 나타나는 간사지는 조류의 운반물질이 쌓여 이루어지는 해안퇴적지형의 하나이다.

본 도 서해안에 발달한 간사지의 대표적 특성은 간사지의 기저면이 아주 완전한 파식대(波蝕臺)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사지 중에서도 상부는 특히 파식대(波蝕臺) 위의 퇴적층(堆積層)의 두께가 얇아서 파식대(波蝕臺)가 그대로 노출된 곳도 발견된다.

군(시)	면(읍)	면적(ha)
당진군	/	11,159
홍성군	/	2,928
보령군	/	4,050
서산군	/	32,437

간사지의 퇴적물질은 장소마다 조성이 다르나 점토, 실트, 모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물질의 조성은 퇴적환경(堆積環境)과 퇴적물 공급원의 특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경기만으로 유입하는 안성천과 삽교천을 제외하고는 본 도의 간사지에 퇴적물을 공급하는 큰 하천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삽교천(插橋川)의 퇴적물(堆積物)은 하구의 조류작용(潮流作用)으로 바다로 잘 제거되며, 제거된 토사 중 빨과 같은 미립물질(微粒物質)은 조류에 의하여 멀리까지 운반되면서 해수면이 잔잔한 후 미진 해안에 퇴적된다. 아산만내의 당진군 해안의 간사지는 주로 이 유형(類型)의 퇴적물로 이루어졌다.

간사지의 퇴적물은 기반암위의 육성풍화물(陸性風化物)위에 퇴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변의 산지에서 운반된 주빙하성(周氷河性) 퇴적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간사지의 기반암(基盤岩) 표면이 육상영력(陸上營力)에 의해서 풍화된 다음, 이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점차 간사지 퇴적물로 덮힌 것으로 생각된다.

간사지를 실트와 점토(粘土)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면, 사빈(砂濱)의 전면이나 난류(亂流) 혹은 조류의 작용이 강한 곳에는 사질 간사지(실트와 점토의 함량이

30% 이하), 해저로부터 퇴적물 공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점토질(粘土質) 간사지(80% 이상), 그리고 양자의 중간인 혼성간사지(混成干瀉地)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천수만의 경우 간사지면적의 약 절반 내외는 혼성 간사지에 속한다.



(그림 13) 淺水灣 干瀉地 堆積物의 組成

(註) %는 퇴적물 중의 점토와 실트의 함량을 나타낸다. (출처: 朴東源, 1977)

간사지 뒤에 발달해 있는 갯골의 밀도는 간사지 퇴적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퇴적물의 입경(粒徑)이 큰 곳일수록 갯골의 밀도가 높고, 주로 실트나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점토질 간사지에서는 갯골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하천의 하도와 무관하게 발달한 천수만 간사지의 경우 차수에 따른 갯골수는 하천과 비슷하게 부기하급수적(負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하지만, 갯골의 길이는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 또한 갯골의 유로폭(流路幅)/분기율(分岐率)의 비율(比率)은 하천과

에스추어리(estuary)의 중간치를 나타내며, 분기율도 하천보다는 낮고 에스추어리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큰 하천이 없는 태안반도의 대소 만입지에 발달되어 있는 간사지도 천수만 간사지의 경우와 유사하다.

태안반도와 안면도의 사빈(砂濱)은 대부분 세립질(細粒質)의 규사(硃砂)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基盤岩)은 선캄브리아기의 편암 및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선캄브리아기의 규암맥이 곳곳에 끼어 있다.

이 지역의 규사는 후빙기(後氷期)의 해면상승 이후 기반암의 침식에서 비롯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면상승과 더불어 바다쪽에서 밀려 온 물질과 지난 간빙기(間氷期)의 고해수면시에 형성되었던 사빈과 해안사구의 물질에서도 많은 양이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있어서 지난 간빙기의 고해면은 대체로 현재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당시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규사층(硃砂層)이 현재의 사빈퇴적층(砂濱堆積層) 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천 해수욕장의 사빈은 주로 패사(貝砂)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은 전적으로 근해의 해저에서 공급된 것이다.

파랑(波浪)의 작용이 비교적 미약한 천수만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사빈퇴적물로 보이는 조립질의 퇴적물 중에는 바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육지에서 풍화된 물질이 메스무브먼트에 의해 운반되어 와서 해안선에 연하여 퇴적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들 간사지의 후면에는 사빈과 사구가 연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빈(砂濱)과 사구(砂丘)는 태안반도와 안면도, 대천해안 일대, 서천해안 일대 등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양에 접한 해안에 특히 널리 분포한다.

규모가 큰 하천이 유입하지 않는 이들 해안의 사빈(砂濱)은 곳과 곳사이의 작은 만입에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만리포(萬里浦)해수욕장의 사빈(砂濱)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4-4) 내포는 마식력(磨蝕力)이 강한 지대이다.

달의 인력 = 마식력(磨蝕力) = 조수의 파랑력

충청남도의 전해안(全海岸)을 따라서 파랑(波浪)의 침식(侵蝕)을 직접 받는 지역의 곳 전면의 중심에는 해식절애(海蝕絶崖)와 파식대(波蝕臺)가 나타난다.

지형생성 환경으로는 대조차(大潮差), 저파랑(低波浪) 에너지 환경에 속하는 본 지역의 파식대(波蝕臺)들은 이 범주의 파식대(波蝕臺)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현 실정에서 대단히 좋은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만의 한진리(漢津里), 안면도(安眠島), 대천의 신흥리(新黑里), 웅천의 관당리(冠堂里) 등지에서 행하여진 연구에 따르면, 본 지역 파식대의 생성·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주된 해성침식작용(海成侵蝕作用)은 파랑(波浪)에 의한 취거작용(取去作用) 및 마식작용(磨蝕作用)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반암의 풍화(風化), 조밀(稠密)한 절리(節理)의 발달, 취거침식(取去侵蝕)에 약한 암석의 분포, 풍부한 마식력(磨蝕力) 등은 일상시의 낮은 파랑에너지에 의해서도 취거작용과 마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본 지역에 있어서 절애(絶崖)의 후퇴(後退)와 파식대(波蝕臺)의 확장

(擴張)은 주로 태풍(颱風) 등의 기상이변시에 출현하는 거파(巨波)의 취거작용(取去作用)과 마식작용(磨蝕作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일단 확대된 침식대(侵蝕臺)의 이차적·수직적인 침식·저하과정에 있어서도 파랑의 취거작용과 마식작용(磨蝕作用)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식대(波蝕臺)의 형태는 큰 조차(潮差)로 인하여 파랑(波浪)의 침식력(侵蝕力)이 특정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고 고조위면에서 저조위면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산된다.

탁월한 취거(取去) 및 마식작용(磨蝕作用)의 효과 등에 기인하여 고조위면·저조위면에 이르기까지 조간대형(潮間帶型)의 파식대(波蝕臺)에 속한다.

만리포(萬里浦)와 안면도(安眠島) 일대의 해안에서는 현 해수면과 거의 비슷한 고도에서 지난 간빙기(間氷期)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빈층(砂濱層)과 파식대(波蝕臺)가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

충남 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파식대면(波蝕臺面)들의 고도와 절애(絶崖)~파식대(波蝕臺)의 접점고도(接點高度)들은 거의 일치한다.

이는 본 지역의 파식대들이 지난 간빙기(間氷期)의 파식대(波蝕臺)를 그대로 이어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현 해수면과 관련된 침식(侵蝕) 프로세스가 충분히 적용된 지형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어서 최후 빙기 이래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짧은 기간 동안의 침식에도 현재의 해수면에 잘 적응(適應)된 넓은 파식대(波蝕臺)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완경사(緩傾斜)의 구릉능선(丘陵稜線)이 바다쪽으로 계속되며, 배후산지의 고도가 낮으므로 같은 파랑(波浪)의 침식력으로도 동해안에 비하여 넓은 해성침식면(海成侵蝕面)이 발달할 수 있는 점, 기반암층(基盤岩層)의 풍화와 대소절리(大小節理)의 발달에 기인한 파식(波蝕)의 용이성 등이다.

현재와 비슷하였던 지난 어느 시기의 구정선하(舊汀線下)의 해성침식면(海成侵蝕面)을 그대로 이을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단층과 기조력의 상승지대

(5-1) 지진단층(地震斷層) 백월산은 내포의 중심지이다.

홍성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의 서북부는 경상남북도의 동해연해부(東海沿海部), 경상북도의 서북부 경기도의 서북부와 함께 한반도에서 4대 강진구역(強震區域)의 하나이다.

이조시대에 1978년 10월 7일의 홍성지진(洪城地震)과 같은 강진(強震)이 홍성과 덕산에서 일어났고, 그보다 강한 열진(裂震)이 해미(海美)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결성, 서산, 태안, 당진, 면천,

대흥, 보령 등지에서는 중진(中震)들이 일어났었다.

〈표1〉에서 보다시피 홍성에 진앙(震央)을 두었던 지진(地震)의 발생회수는 15회 그리고 20세기에는 2회였다. 또 역사적 문헌기록에는 홍성지역을 포함한 충청도 전역 또는 수도(數度)에 걸친 광역에 일어났던 지진횟수는 총 33회였다.

단층 A: 북쪽의 수리산(修理山), 용봉산(龍鳳山)과 서쪽의 일월산(日月山)을 연결한 산맥의 급사면(急斜面)과 그 동쪽 구릉지(丘陵地)와의 경계선은 단층선(斷層線)이라고 추단된다.

이 단층선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재에서 지질(地質) 조사결과 판명되었다. 이 추정단층선(推定斷層線)은 수리산(修理山), 용봉산(龍鳳山)의 산록을 북 10~20° 동방향으로 통과하여 중계리(中溪里)의 연이피, 소향리(昭香里) 시모골의 거북재, 월산리(月山里) 감계 뒷편 등으로 통과하여 옥암리(玉岩里) 하고개에 이른다. 그 연장거리는 도합 8km에 달한다.

서해안쪽의 입체구조를 역학에서 보면, 땅표면은 진(震)과 지상위의 기상조건은 풍(風)과가 된다. 그러므로 풍화가 인과가 기후를 상징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서 지하구조까지 더듬는다 할제(진짜 엉터리로 간주 하겠지만 상징학에서 이를 포용하게 되므로 개구하게 된다.)

백월산(일월산)이 있는 홍성지대의 지하에는 지하 화산맥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천수만 일대의 지하에 화산이 있으므로 지진의 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천수만의 수(水:坎)가 땅속의 뇌(雷)와 합하여 괘를 이루니 수뢰돈(水雷屯)과가 된다.

※참고 (표1)홍성지역과 전국의 지진회수

발생시기	홍성군지역지진회수	전국지진회수
15세기	4	227
16세기	13	714
17세기	20	348
18세기	9	20
19세기	0	14
20세기	2	200

자료: 洪城郡誌, 編纂委員會, 洪城郡誌, 1980

내포지역(홍성중심의 천수만 지하는뢰(雷)의 영역이 되므로 은예로부터 지진신호가 많았던 곳이다.

DNA의 정보테이프에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셋트가 구성되어 가둬서 9성분이나 9궁분야의 도식들도 DNA부호와 같은 명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천문학상 위치는 기(箕)성 분야이고, 충청남도는 진방(震方)분야이다. 다시 내포지역을 구분하면 진궁(震宮)의 서쪽지역이다. 그리고 내가 천수만과 아산만으로 해서 황해 서해로 빠지니 감방(坎方) 또는 태방(兌方)이 아닐 수 없다.

이 현상을 도해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하려면 그 기호는 64괘의 부호인 뇌수해(雷水解)의 기호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 정도를 뇌수해라고 해서 001010의 기호가 나오기까지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쉽게 차원을 달리하여 001010의 기호는 00(G), 10(T), 10(T)가 되어 GTT라는 DNA의 암호문자가 나오게 된다. 다시 GTT는 DNA암호문자이지만 이의 반대부호인 RNA문자기호 110101이 된다. 이 기호를 암호문자로 바꾸면 11(C), 01(A), 01(A)가 되니 괘로는 풍화가인(風火家人)이 된다.

이 내포지역의 지상(地相)은 뇌수해괘이고, 천상현상의 도상(圖相)은 풍화가인괘가 된다.

이에 지하화산맥(地下火山脈)을 투출하면 뇌(雷)가 되고, 천수만의 물은 감(坎)이니 수뢰돈괘가 도출된다. 이 이미지를 특종으로 잡아서 내포지방의 정신원류를 더듬어 본 것이다.

그 근본은 다시 뇌수해서 001010(天) 풍화가인괘 110101(人) 수뢰돈괘 010001(地)로 천지인 삼재가 지진지역

백월산을 상징한다.

(5-2) 백월·가야산맥의 끝 백화산 부근에서 기조력이 제일 강하다.

충청지방의 바다는 태안반도의 북단인 북위 37°에서 금강하구(錦江河口) 북안에 위치하는 장항 앞에 해당되는 북위 36°까지의 해역에서 동경 127° 이서의 연안부터 황해 중부의 공해까지 해당한다. 북위 37°이북은 경인해역이 된다.

36° 이남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하구를 경계로 하여 남쪽 연안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접한다.

이 해역은 안면도(安眠島),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어청도(於靑島), 원산도(元山島), 외연열도(外煙列島) 등 대소 도서를 포함한다.

충청해역에서 개항장은 장한 한 곳이고, 지정항만은 장항, 비인, 대천, 광천의 4곳이다. 어항은 어청도(於靑島), 외연도(外煙島), 연도(煙島), 오천(鰲川), 판교(板橋), 안흥(安興), 장항(長項) 등이며, 어청도는 어업전진기지로도 지정되었다. (수로국, 1978)

충청해역의 수심(水深)은 동경 125° 30' 까지 50m를 넘지 못하며 그 이서의 해역에서 더 깊어지지만 황해중심 해역에서도 80m 이하이다.

조석간만(潮汐干滿)의 차는 전반적으로 크지만 북부 태안반도(泰安半島) 부근에서 제일 크다.

4~8월 사이에 격렬비열도와 어청도 부근 해상은 안개현상이 심해서 연간 약 50일 정도 안개현상이 나타나고 6월에 격렬비열도 부근의 농노일수는 24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로국 1978, 1983a)

충청해역은 경인·호남해역과 함께 계절통역에 있어서 계절풍이 현저하다. 겨

울철의 편서계절풍은 여름철의 편남계절풍보다 강하며 동해안에 비하여 특히 서해안이 강하다.

겨울철에 대륙의 저기압이 지나가고 고기압이 뒤따를 때 기압경사가 커서 편북풍이 강하게 불며 기온도 급격히 내려간다.

서해안에서는 9월경부터 편북풍이 많아지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고 4~8월에는 풍향이 고르지 못하며 풍력도 대체로 미약하다. (수로국, 1978)

충청해역의 조석(潮汐)은 경인해역과 같이 반일주조(半日周潮)가 우세하다. 이 해역은 독자적인 기준해면(基準海面)이 없어서 인접한 군산이나 인천의 기준면을 이용한다.

충청해역의 연안에서 조사한 조석간만의 차는 천수만 입구에 위치한 고정리(高亭里) 화력발전소(火力發電所) 앞 연안에서 3~6m의 조차를 나타낸다.

천수만 안의 창리 앞에서는 조차가 319~690cm(평균 조차 505cm)이며 (아세아항업주식회사, 1979a), 원산지역에서는 250~594cm(아세아항업주식회사, 1979b)이고, 서천앞에서는 1.5~7m(평균 조차 4.3m)이다.

조력발전소(潮力發電所) 후보지인 태안반도의 기로림만(可露林灣)에서는 조차가 299~668cm(평균 조차 484cm)이고, 만리포(萬里浦)에서는 220~501cm의 조차를 나타냈고, 밀물시간은 3.5시간동안 지속되지만 썰물은 9시간이나 지속된다.

아산만(牙山灣)에서는 조차가 630~870cm로 평균조차가 370cm라는 보고와 395~807cm로 평균 조차가 601cm라는 보고(한국해양과학기술, 1978)가 있어 큰 차이가 있으나 이는 조사시기와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지점이 다른 연유이다.

또 김승우(1977) 등 아산만(牙山灣)의 만호리(晩湖里)에서 조차(潮差) 3.7~8.7m(평균 조차 6.3m)로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제일 큰 지역이라고 했다.

서해안(西海岸)에서 조류(潮流)는 대부분 밀물때 북으로 흐르고 썰물때 남으로 흐르나 지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다.

가의도(賈誼島)와 순위도(巡威島)를 연결하는 선의 이동에서 밀물은 대체로 만내로 향하여 북동~동쪽으로 흐르고 썰물때는 이와 반대방향으로 흐르며 고조(高潮), 저조(低潮)후 0~0.5시에 전류(轉流)한다. (수로국, 1983a)

연안에서 조사된 조류의 방향은 장항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구분없이 1.2kn로 항상 서쪽으로 흐르고(수산진흥원, 1978), 서천에서는 밀물때 조류가 북~북동방향으로 흐르며 썰물때는 남~남서향, 반도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북동류하며 썰물때는 반대방향으로 흐른다(수산진흥원, 1978).

썰물때는 조류가 북서방향으로 90~230cm/sec속도로 흐르며 인천만의 고조(高潮) 전이나 후 0.4시에 시작하여 저조(低潮) 전 0.4시나 후 0.3시까지 약 5.5~8시간 동안 흐른다.

사리때 평균회강유속은 인천만 고조후 약 2~3시에 약 0.4~1.8kn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서해안의 좁은 수로(水路)에서는 조류의 흐름이 급하다.

이외에도 충청해역을 포함하는 서해 일원의 조석수치(潮汐數值) 모델이 월령(月齡)에 따라 변화되도록 개발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百濟의 復興運動과 福信將軍

김 갑 현

朴性興, 裴東順 두분 先生의 百濟復興運動史와 周留城에 대한 研究發表文 그리고 現地 鶴城<두루미성>, 石城<泗盧城>의 周邊, 福信將軍이 숨어있던 「福信굴」!

兵士들의 訓練場 騎馬의 練馬場 등을 踏査하면서(7년) 記述할까 한다.

서기 660년 新羅의 金庾信將軍이 거느린 5萬軍隊는 百濟의 要塞地 炭峴을 넘어선 다음, 黃山벌 싸움에서 百濟의 階伯將軍의 決死隊 54명을 擊破하고 首都 扶餘로 쳐들어왔다. 한편 唐나라 蘇定方이 거느린 10餘萬의 軍隊는 山東半島에서 黃海를 건너 京畿道 德積島에서 新羅軍과 和合한 다음, 7월 10일을 기하여 百濟 首都 사비성을 攻擊하도록 約束하고 錦江의 水路를 利用하여 首都 사비성에 肉迫하여 들어왔다.

新羅軍과 唐軍이 사비(지금 扶餘)로 밀려 들어오자, 義慈王은 太子 孝와 함께 舊都 熊津로 避難하고, 第2王子 泰가 남아서 사비성을 固守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最後의 都城防衛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百濟軍은 戰死者 1萬餘名을 내며 敗하고 말았다. 사비성을 脫出하지 못했던 많은 宮女들은 白馬江 절벽에서 몸을 던져 殉節하므로써 落花岩의 悲話를 남기기도 하였다.

羅唐聯合軍은 이어 熊津城(지금의 공주성)을 陷落시켰다. 亂을 避하고 있던 義慈王과 太子 孝도 마침내 投降하니 서

기 660년 7월의 일이었다. 羅唐聯合軍이 사비성을 占領한 뒤인 이듬해 9월, 唐將 蘇定方은 百濟의 義慈王과 孝, 泰, 隆, 演 등 王子 4명과 大臣 90餘名 軍人 2萬名을 捕擄로 삼아 海路로 歸還하고 新羅의 太宗 武烈王도 이해 10월에 回軍하였다. 義慈王은 唐으로 건너간 다음 얼마 안가서 病死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滅亡한 後에도 百濟軍은 반년만인 서기 661년 1월에 義慈王의 아들로 日本에 가 있던 「扶餘豐」을 新王으로 擁立하고 命令體制와 行政體制를 再建한 다음 663년 11월까지 치열한 百濟復興運動을 敢行하였으니 그가 「福信」이다.



▲복신(福信)

福信(? ~663)은 百濟 第30代 武王의 조카요, 義慈王의 사촌동생이다. 義慈王 20년 佑平으로 있을 무렵 羅·唐聯合軍에게 百濟가 滅亡하게 되어 首都

사비성이 함락되었을 때 福信은 當時 사비성에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白江과 사비성의 中間地點에 있는 周留城:(지금의 洪城郡 長谷面 山城里 鶴城: 길이 3,480m, 任存城과 15km 떨어진 無限川 上流地點: 大東地誌: 洪州沿革條: 本來 百濟 周留城이다... 略)

唐軍은 白江을 거슬러 올라가 사비성을 공격하였던 까닭에 周留城을 지키고 있던 百濟軍은 온존하였을 것이다. 福信이 復興運動을 決心하게 된것도 이러한 百濟軍이 到處에 散在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日本이 百濟의 復興運動을 援助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또 日本에서는 661년 以來 人質로 있는 義慈王의 王子 “豐”(豐章)이 있었던 관계로 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는다면 百濟사람의 民心을 收拾하는데 有利하다고 生覺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비성이 함락된 직후 일본에 使者를 보내 援軍의 急派와 王子 豐의 歸國을 懇請하였다.

福信은 力戰의 證據로서 唐의 포로 百餘名을 아울러 보냈다고 하니 百濟復興軍이 얼마나 意慾의이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日本은 이때 女帝 사이메이 천황(齊明天皇)이었으나 實權은 皇太子인 「나카노 우베(中大兄: 후의 天智天皇)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軍士 動員令을 내리는 한편 天皇과 정부요인들이 戰爭準備를 위해서 北九州의 「아사구탕궁(지금의 후구오가)」으로 이전하여 福信에 대한 救援兵을 派遣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福信은 中道琛과 함께 百濟軍士를 거느리고 周留城을 根據로 사비성 공격에 나섰다. 當時 蘇定方은 百濟의 포로를 끌고 회군하였기에 劉仁願이 사비성을 守備하고 있었다. 그 軍隊는 唐軍 1만명과 武烈王의 王子 金仁泰가 거느린 7千餘名の 新羅軍으로 상당한 兵力이었다.

福信은 9월 23일 泗水城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의 攻擊目標은 降服한 百濟軍士를 되찾아 오는데 있었다. 그는 軍隊를 이끌고 사비성 위로 나아가 城柵을 굳게 쌓고 軍士를 모았다. 이때 劉仁願은 城邑을 돌면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百濟사람들은 唐에 대한 敵對意識이 高潮되어 20餘城이 福信에게 呼應하였다. 그래서 사비성은 外部와 連絡이 두절되었던 것이다.

이 사비성의 危機를 打開하기 위하여 新羅의 武烈王은 직접 사비성으로 향하고 唐의 高宗은 王文道를 熊津都督으로 任命하여 百濟로 보냈다.

9월 28일 武烈王은 王文道와 三年山城(報恩)에서 合流했다. 그러나 王文道가 急死하였기 때문에 軍士를 거느리고 “이레성”을 攻擊했다. 18일 百濟軍이 城을 빼앗기자 福信에게 呼應하였던 20餘城이 모두 武烈王에게 降伏하였다.

이와같이 百濟復興軍이 敗하자 福信은 任存城(지금 禮山 大興)으로 退却하여 이곳에서 黑齒常之와 合流 다시 사비성 공격을 계획했다.

그리고 王子 豐의 歸國을 督促했다. 그 使者가 「아사구랑궁」에 도착한 것이 661년 4월이었는데 이보다 앞서 3월에 福信에게 不利한 消息이 전하여 왔다.

즉, 부임직후 병으로 죽은 王文道の 後 劉仁軌가 百濟에 온다는 情報였다. 福信으로서의 무엇보다 劉仁軌의 軍士가 合勢하는 것을 막을 必要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任存城으로부터 南下하여 周留城으로 가서 白江沿岸에 兩柵을 세우는 한편 攻擊을 다시금 始作했다.

이때 大防軍 자사로 건너온 劉仁軌은 新羅軍과 合勢하여 古 사비성을 근거로 周留城에 대한 攻擊을 始作했다. 百濟復興軍은 잘싸워 크게 이기니 新羅는 本國으로 撤收하고 말았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劉仁軌은 周留城 공격을 中止하고 사비성으로 轉出하였으

니 福信은 다시금 軍隊를 이끌고 任存城으로 돌아왔다.

다음해인 662년 1월 日本은 百濟에 救援軍을 보냈는데 그것은 배 170척의 兵力과 武器, 軍糧 등을 滿載한 規模로써 歸國하는 왕자 豊을 護衛하기 위한 派兵이었다. 이 援軍은 이듬해 3월 福信은 다시 錦江 동쪽에 대한 攻擊을 敢行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道琛의 죽음은 百濟復興運動에 큰 打擊을 준것만은 사실이다.

唐은 孫仁軌에게 7천 軍隊를 주어 百濟를 치게 하였고 동시에 新羅도 百濟로 出兵하였다. 復興運動軍은 일대 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암담한 가운데 福信과 王子 “豊” 사이에 다시 不和가 일어나 豊은 6월에 그를 殺害했다.

三國史記 義慈王 本記에 의하면 福信은 病이라 칭하고, 굴속에 누워 있으면서 王子 豊이 問病하려 올때 죽으려 하였는데 이를 알고 豊王이 心服을 보내 福信을 잡아 죽였다고 되어있다.

이리하여 百濟復興運動의 主役을 맡았던 福信이 죽자 羅唐聯合軍은 百濟復興運動의 本根據地인 “周留城”을 攻擊하니 王子 豊은 하는수 없이 高句麗로 逃亡을 하고 救援하려고 온 日本軍도 白江에서 大敗하고 말았다.

660년 下半期부터 663년 9월까지 4년을 걸치는 百濟의 復興運動은 이로써 幕을 내렸다고 한다.

百濟復興運動의 꿈을 實現시키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福信將軍의 넋을 고이 잠들기 위해서 扶餘恩山別神祭를 올리고 있다.

- ※ (1) 郷土史學者 朴性興先生은 70年初부터 現在까지 鶴城, 石城, 天台城, 蘇國城을 調査 發掘하여 研究 論文 發表

▼복신굴 발굴현장



- (2) 洪州文化研究會長 裴東順先生은 1963년 陽城中學校長 在任時부터 集中 調査하여 數編의 論文 發表
(3) 忠南大學校 성택부 교수팀 4인이 1990년 10월 20일~24일(4日間) 土城과 石築城을 調査하여 百濟時代의 遺物임을 古證

※土城: 廣城, 南城, 烏棲城, 新東城, 道峴城



▲학성(鶴城)

동명학교(東明學校)편

주 옥 로

설립자 이병우(李丙雨)

홍주관아팔경(洪州官衙八景)의 천고주성(天鼓周城)에서 초한전 치룬 세월 풍운이 가시는듯(世事風雲楚漢爭)

주류성엔 몇줄기 구름길 기러기 날으고 (周留雁飛雲共程)

노송의 맑은 향기 남산에 그윽하니 (南園老松淑氣熏)

의병의 공훈은 홍주성에 빛나도다 하였고 다시 홍성 풍요십삼선(洪城風謠十三選)에는 우리 마을 구부팔괘(龜負八卦)에서

천년의 큰 거북 구덕을 등에 지너 (九苞耆德千歲龜)

낙서의 이법으로 달과 함께 크고지고 (洛書奇隅月影隋)

구룡이며 팔괘가 이로하여 생겼나니 (龜龍八卦此地占)

많은 인물 배출함은 홍동의 자랑이라. (濟多 outputs 善薦基) 읊었다.

우리 고장의 뛰어난 인물 이병우(李丙雨)는 홍동면 팔괘리 3번지 석산 먹적골에서 부 종록(鍾祿)과 모 김재금(金宰金) 사이에서 1896년 1월 10일에 부농(富農)의 장자로 태어났다.

그의 호는 우당(友堂)으로 일찌기 당

시의 명문교 공주(公州)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에 건너가 처음에는 일본(日本)대학 고등사범과를 맞추고, 다시 명치(明治)대학 법과(法科)를 졸업하고 왔으니 그 당시의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1920년 3월 말 고국에 돌아와 먼저 우리 민족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이병우(李丙雨)씨의 구기(舊基)

사람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 이전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일본과 비교하여 보지 않을수 없으며, 그 문화는 바로 교육에서 유래하는 것을 일본인 압박중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다. 더구나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할만큼 선각자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동시에 젊은이들이 신학문을 배우고자

했어도 배울 수 없는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 당시 우리의 한글은 상놈의 글[諺文]이라하여 천대하는 반면에 한문(漢文)은 진서(眞書)라하여 양반의 자녀들이나 배울 수 있는 진짜 글로 행세했다.

그러므로 돈 있는 부자, 아니면 양반이나 배울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을뿐만 아니라 양반들은 배웠다해도 과거에 나가 벼슬이나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가난한 서민층은 공부할 꿈도 못꾸고,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는 상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동명학교(東明學校)의 구기(舊基)

그럴때에 이병우씨가 배움에 굶주린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민중교육을 위하여 동명(東明)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크나큰 기쁜 소식인 동시에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햇불이 아닐 수 없다.

■ 송정(松亭) 마을 ■

우리 마을은 원래 하팔(下八) 또는 발귀리라고 불렸으며, 당시 진흥회장 이병룡(李炳龍)씨 집에서 1920년(현재는 전원기씨택)에 처음으로 동명학교(東明學校)가 개교되었다.

그때 초대 교사로는 장홍기(張洪基)씨가 수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떠도는 말에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학교에 끌어 넣어 머리를 깎고 체조(體操)와 일본어(日本語)를 가르치고, 총쏘는 훈련을 시켜 일본 수비대(守備隊)로 뽑아간다 하여 모두가 학교 가기를 꺼려 학생모집을 왔다하면 산으로 도망쳐 바위틈이나 솔포기밑에 숨어있다가 모집원들이 갔다는 말을 듣고서야 해질무렵 어슬렁 어슬렁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현상은 민족적 무지(無知)가 빚어낸 웃지못할 촌극인지도 모른다.

학생모집에 끌려간 학생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땅아 길게 늘어뜨렸는가하면 장가든 신랑학생들은 망건을 두르고 최립이나 갓을 쓰고 다니기도 했다.

특히 꼴불견은 “신체발부는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하여 삭발하는 일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드디어는 아침 조회시간에 운동장에서 교사가 가위를 들고 뒤로 돌아가 머리채를 자르면 통곡의 바다가 되기도 했다는 웃지못할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다 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학생들을 약기(略記)하면, 주재로, 주만중, 주창갑, 윤태균, 강무득, 한덕성, 전용한, 채수만, 송기도, 이창문, 이종환, 정두섭, 박만동, 박석태 등이다.



▲ 송정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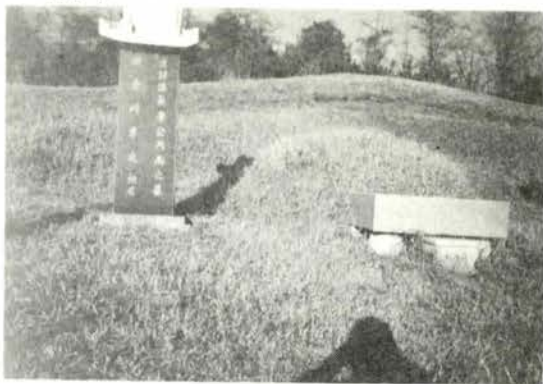
그리고 교과목(教科目)은 조선어, 일어(日語), 산술(算術), 이과(理科), 창가(唱歌), 작문(作文), 습자(習字), 체조(體操) 등의 수업이었으며 일본말 배우는데는 늙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 였다.

다음해 1922년 봄에 흥동보통학교가 세워져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입학 하고 나이가 많은 20세 이상의 어른과 10세 내외의 어린이들은 받지않아 그대로 남아 있게되어 학교를 석산(石山)부락 이석순(李錫淳)씨택에 정하고 조양학 교(朝陽學校)란 간판을 걸고 다시 이정 우(李丁雨)씨와 이창옥(李昌玉)씨 두 분 의 교사가 힘써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학생수도 점차 줄고 교사들에게 이렇다 할 보수(報酬)를 드릴 수가 없어 그 한 해로 끝맺음한 듯하다.

물론 이때에는 흥성읍내에서는 영명(永明)학교와 이웃 흥북면 갈산리에서는 이인주(李仁周)씨의 장남 이용성(李容星)시가 농촌문화의 재건을 내걸고 대성(大成)학교를 세워 교육의 선구자(先驅者)로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 실이 전해지고 있다. 역시 조국의 운명 이 일본의 야욕으로 누란지위(累卵之危)의 형세에 있음을 직감한 애국지사들이 앞다투어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초석(礎石)을 놓은듯 하다. 갈산에 호명(湖明) 학교를 세운 김좌진 장군을 비롯하여 홍 주골의 팔명(八明)학교가 곧 그 사실의 증참(證參)인 듯하다.

이병우씨는 그의 묘전의 송덕비(頌德碑)에 의하면 1927년 심한 흉년에 사재를 털어 수백석의 구호양곡을 희사하여 굶주린 이웃들에게 긍휼(矜恤)을 베풀었 을뿐만 아니라 1929년에는 민선 충남도 평의원(評議員)으로서 흥성공업학교의 유치를 비롯하여 흥성중학 건립위원 등 그리고 흥성 금융조합 초대 조합장을 비 롯하여 곡자 조합장 등 눈부신 사회활동 의 선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살던 구옥은 한때 심정섭(沈貞燮)면장 때 헐어다 관사로 사용했다 없 어졌고, 그의 구기(舊基)를 찾았으나 초라하게 퇴락된 두옥(斗屋) 삼간의 잔형 이 남았을뿐 푸르른 대밭만이 울울창창 하였다.



▲ 이병우(李丙雨)씨의 묘



▶ 頌德碑(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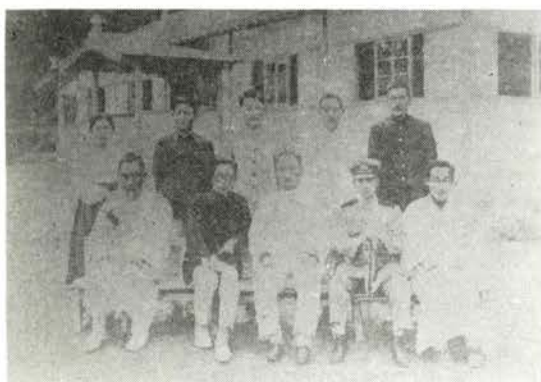
■ 현광학원(顯光學院)편 ■

흥성감리교회 이명제(李明濟)목사(牧師)의 소개로 박석래(朴石來)선생은 예 산읍 산성리(山城里)에 있는 성광학원

(聖光學院)의 교사로 가서 근무하던중 마침 이제렬(李悌烈)선생이 찾아와 불우(不遇)한 농촌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뜻있고 보람찬 일이니 우리 고장으로 돌아가서 힘을 합하여 농촌계몽운동과 교육사업을 하자는 권고에 합의하고 즉시 돌아와 1935년 교회를 교실삼아 야학(夜學)부터 시작하여 배우고 자하는 청소년 남녀 28명을 모아 가르쳤더니 다음해는 희망자가 60명이나 되어 주간으로 돌리고 사설학술강습소(私設學術講習所)인가를 받아 현광학원(顯光學院)이란 간판을 달았다.

1936년 봄부터 보통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3개년만에 이수(履修)하도록 교육계획을 결정하고 설립자 겸 원장은 이제렬선생이 맡고, 교감 겸 교사직은 박석래선생이 맡기로 하였으며, 1936년 10월 우리 고장 유지자들의 협찬을 받아 180원을 모금하여 설립자 소유 대지 800평에 두 교실과 사무실까지 총 건평 66평을 세워, 명실공히 민족적, 신앙적, 초등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입생 80명이 몰려와 기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 1936년 9월 현광학원 준공식



당시 기성회장에는 이우성(李禹星), 위원에는 이헌영(李憲永), 이봉조(李鳳朝), 윤용진(尹龍辰), 이병익(李秉翊), 한우전(韓禹傳), 김선제(金善濟), 이지

연(李至然), 이승재(李昇載), 김윤제(金胤濟), 고문 채준석(蔡峻錫)면장, 그리



▲ 박석래선생댁 구기(舊基)

고 보통학교 교장, 주재소 주임 등이다.

이때 우리나라의 민족사적 상황을 잠깐 참고로 살펴보면,

- 1936년 6. 안익태(安益泰)

애국가 작곡

- 8. 손기정(孫基禎) 올림픽

에서 마라톤 우승

- 1937년 안창호(安昌浩) 동우회사건 백백교사건(교도 300여명 살해사건)

- 1938년 육군 특별지원병령 공포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 창립, 일본군 관동점령, 전국의 교원, 관공리에게 제복 착용

- 1939년 국민징용령 실시(1945년까지 45만명 동원) 조선백미 취체규약(7분도 미) 창씨개명령(創氏改名令) 공포

- 1940년 김 구(金九) 한국독립당 창당 한국광복군 창설 황국식민선서 조선, 동아일보 폐간

- 1941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공포 임정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 미일선전포고(美日宣戰布告) 최현배저 「한글 갈」, 한용운편 「불교대전」, 친일잡지 등장

- 1942년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 (1944년부터)

조선어학회 사건, 김교신 「성서조선」
검거 사건

한국어의 사용금지와 감시

- 1943년 보국 정신대(挺身隊)조직
징병제 공포
학병제(學兵制) 실시 미영중수뇌
카이로선언
- 1944년 총동원법에 의한 전면 징용
(徵用) 실시, 여자정신대 동원령, 여
운형 지하단체 건국 동맹 결성
- 1945년 임정 일독에 선전포고, 알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취급 송진우
정권이양 교섭
독일 히틀러 자살,
독일 항복과 동·서독으로 분단



▲ 1937년 3월, "1회 유치원 졸업"



▲ 1939년 "제1회 졸업"

1945년 3월, 제7회 졸업식을 거행, 내
빈으로 참석한 이승재(李昇載)씨의 축사

중 일본말의 인사에 "오하요-고자이마
쓰"나 "사요-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사법에도 "안녕하십니까, 다
시 뵙겠습니다."가 있고 일본글 "아이우
에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글
즉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외쳤고 이를 제지하자
"일본인의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만 있
는줄 아느냐? 우리나라에도 고구려혼(高
句麗魂)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고 책상을 "탁" 치자 곧 중지시키고, 지
서로 연행해 갔다.

▼ 1943년 학원 "5회 졸업"



그로 인하여 홍성경찰서로 넘어가 밤
새 고문(拷問)을 당하고 29일간이나 구
류(拘留)를 당하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는 우리 고장의 숨은 독립운동사
의 흐뭇한 일화(逸話)이기도 하다.



▲ 1945년 학원 7회 졸업(남 10명, 여 3명)

이를 계기로 현광학원을 불온(不穩) 사상인들의 집단으로 덮어 씌워 교육칙어(敎育勅語) 문제 등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요시찰(要視察) 인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일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겸허하게 감수(甘受)하면서 꾸준히 견디어 감내(堪耐)하므로 조국의 해방과 함께 감격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1945년 12월에 이르러 제8회 졸업생을 배출한 연후에 현광학원의 건물과 책·걸상 외 일체의 비품까지 홍동국민학교에 물려주고 학생 전원을 전입시키고는 조용히 폐교의 문을 닫았다.

참으로 뜻깊은 근세 홍주골 교육의 남상(濫觴)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그후로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가르침과도 같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음과 같이 그후로도 이러한 정신적 인간교육은 보다 더 깊고 높이 풀무학원을 통하여 이어졌다.

같은 사립학교인 풀무학원은 중고등부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실업학교라는 사실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 풀무학원(學園) ■

모교인 홍동국민학교 졸업식에서의 느낌을 “성서생활”지에 발표한 것이 도화선(導火線)이 되었다. 즉 1952년 4월호 소감록에서

“금년 졸업생들은 유달리도 어려 보이고 순진해 보였다. 내빈들의 그럴싸한 축하와 권장의 긴 말을 하였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알맹이 없는 빈말들이었다. 즉 그들 어린가슴에 그리고 진학할 길이 없는 그들 어린 마음에는 어떠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 못되었다.

그것은 졸업하는 139명 중에 홍성중학

교로 진학하는 자는 40여명인데 비하여 가정으로 돌아가 흠에 묻힐 어린이들이 약 80명이란다. 즉 슬기롭게 보이는 대다수인 약 3분의 2가 단지 가난하다는 한가지 이유때문에 그렇게도 배우고 싶고, 공부를 잘해도 가사조력이나 농사일이나 하는 구실아래, 책을 놓고 배움을 영영 중단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한 안타까움, 일종의 분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제 잘못되면 학교에서 6년간 선생님들이 공들여 가르쳐주신 배움의 초보적 기초마저 흠에 물어버리고 말것이 아닌가 해서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마태 9:36)”하신 심정을 느꼈다. 결국은 이들이 장차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중견층이 되고 결국 주인공이 될터인데……. 생각이 이에 이르자 가슴에 그 무엇이 뭉클하였다. 더욱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의 새 아침이란 가장 귀중한 시기가 아닌가!

가난하다는 사정때문에 티없이 맑은 어린 가슴속에 실망이나 슬픔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도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닐진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소서. 지순한 그들의 마음 밭에 건전한 지식과 순수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도와주소서 농촌의 새 일꾼, 조국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하여 주소서!”

이는 어느때가, 누군가가 꼭 하여야 할 긴중한 과제이며, 또한 매우 바람직한 아주 큰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리라.

이때는 풀무학원 개교 6년전의 일로 벌써 그때에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 주시고, 또 누군가를 이 짙막한 글에 주목하게 하시고 또 많은 협력자를 일으켜 주

심, 참으로 기이한 인연들이며 동시에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학교 연혁

- 1958. 4. 23 풀무고등국민학교 3년제 개교
- 1963. 3. 5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3년제 개교
- 1969.12. 25 장학기금 우표 100만장 모우기 드라마 운동전개
- 1971. 8. 5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V.I.A와 결연 영어회화 교사 매년 1명씩 파견
- 1972. 3. 1 풀무신용협동조합 설립 (졸업생이 운영)
- 1973. 5. 10 남녀별 기숙사 준공
- 1977. 6. 20 일본 애농회 초청으로 졸업생 1명 연수생으로 파견 (희망자 매년 파견 예정)
- 1977. 9. 17 본관교사 129평 건립 (화란 I.C.C.O 협력)
- 1977.11.11 학교법인 풀무학원 허가 (자산 6,800여 만원)

● 교육방침과 특색

1. 성서의 진리위에 세워진 학원으로 기본층의 평민을 위대하게 길러 내고자 진실한 인간교육에 힘쓰며 높은 교양과 농업의 실기를 철저히 훈련한다.
2. 신앙과 교육의 이상을 같이하는 동지의 결합과 향학의 구도자들이 한 가족으로 일을 분담하고 장차 공동생활을 목표로 수련한다.
3. 본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술과 담배와 폭력을 단연 버리고 피차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는 실생활을 연마한다.
4. 세계적인 친선과 교류에 힘쓰고 동양 3형제국의 우화를 위하여 외국에서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어학과 특이한 기술을 습득한다.

5. 졸업과 동시에 문교부 장관의 을종 1급 기술원 자격증을 받고 2급 기능사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다.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도 2과목(외국어 예능과)으로 8월선 합격 책임지도 한다.

■ 그 이름 풀무골 ■

꼭 36년전 풀무골에서 풋보리를 베어 제치고 학원을 세웠다.

풀무골이란 우리마을의 옛부터의 이름으로 옛날 대장간이 있었고, 지형(地形)도 밭로 밟는 옛 풀무와 같다하여 불려온 동명(洞名)이다.

순수한 우리 말이라 좋고, 젊은이들의 심신을 갈고 닦고 불려 양질의 쇠를 만들듯 인격을 도야(陶冶)한다는 뜻이 더욱 좋다.

풀무란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활활 피워 쇠를 달구고 쇠붙이를 녹여 잡쇠를 세련하는 도가니 구실을 하는 두가지 소임이 있다.

성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48:10)는 소명의식과 “야훼의 불은 시온에



▲ 풀무학원 전경

있고 야훼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31:9) 하심은 하나님의 소명과 단련이 철저하심을 천명하신다.

동양의 고전 노자(老子)에 “하늘과 땅 그 사이가 하나의 풀무가 아닌가! 비어 있으나 굴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힘(바람)이 솟는다(天地之間其猶橐籥乎虛而不屈動而愈出)는 동양철학의 뜻 깊은 말씀도 있다.

평민시인 롱펠로우의 “마을의 대장장이”란 시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풀무에 달구어져 쇠모루에 두들겨져서 사상도 단련되고 행실도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 偉大한 平民



풀무골은 하나님께서 예정 선택하셨고, 부모님들의 땀과 피가 섞였고, 스승과 선배들의 열이 담겨진 이름있는 곳이 되리라 믿는다.

■ 창립(創立)의 취지(趣旨) ■

우리 풀무학원은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성서의 진리를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하는 진실한 인격, 건전한 교양, 그리고 독립할 생활능력을 도야하고 육성하고자 믿음과 교육에 뜻을 같이 하는 교육의 동지, 교사들과 손을 맞잡고 중고등부를 개교했다.

성서신앙을 바탕으로 범상(凡常)한 인간교육에 충실하기 위하여 정신적, 학문적, 상식적, 인간형성이란 전인적(全人的) 교육의 본질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자 염원한다.

■ 학원(學園)의 특질(特質) ■

1. 성서의 순수한 진리와 신앙을 겸손히 배우고자 합니다.
2. 민족정신의 핵심을 진실하고, 자유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실생활을 철저히 훈련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학문의 기초 위에서 건실하게 연마하고자 합니다.
4. 자연의 품안에서 농촌의 주인다운게 독립적 생활능력을 길러 가고자 합니다.
5. 최소한의 건물에 최선의 시설, 그리고 최저한의 학비로 가장 건전한 교육이 되고자 사제일체(師弟一體)로 가정적 우애로 인생을 배우고자 합니다.
6. 장차 동양 삼형제국(三兄弟國)의 우의(友誼)를 돈독히 하고자 반드시 제2외국어로 일본어(日本語)와 중국어(中國語)를 선택하여 2년간(2~3학년) 습득하고, 국제교류(國際交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 풀무학원 설립자리
(주옥로써댁)



..... 8집의 계속

崔瑩將軍, 成三問先生 生家마을

田 玉 鎮

- 成先生の 神主奉祀
- 祠堂建立과 成先生の 復爵
 - 備忘記
- 緣雲書院과 魯恩書院 및 別祠
 - 薇菴 金先生
 - 駱材 朴先生
 - 久菴 卜先生
- (3) 書院撤廢와 魯恩壇設壇
 - 書院撤廢
 - 魯恩壇設壇
- (4) 成先生遺墟碑建立
 - 成先生遺墟碑文과 解說
- (5) 魯恩書院遺墟碑 建立
 - 恩書院遺墟碑銘竝 廣 및 解說
- (6) 正六品承訓郎朴〇 圭出義碑銘竝序

● 成先生の 神主奉祀

1456년 丙子士禍로 先生이 處刑 당한 지 216년만에 1672년 壬子에 仁旺山에서 神主가 發見되어 3개월만에 고향인 洪城郡 魯恩里 外孫 嚴纘의 집으로 돌아와서 명실공히 魂返室堂이 된 셈이다.

이집이 現在 古屋인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29番地에 있는(서정화 관리) 北方式 韓屋인듯 싶다.

앞으로 解體하여 上樑文을 찾으면 確認되겠지만 參考資料는 다음과 같다.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61番地에 現居하고 있는 段龍山(74才)의 證言에 의하면,

• 이집은 옛날에 崔瑩將軍이 살았다고도 하고 嚴氏가 살았다고도 한다.

• 집을 지은 사람은 寡宅으로 아들은 高官을 지냈다고 한다.

• 아들이 서울에서 올때면 예산의 용산이란 곳에서 하인들이 식사도 하고, 말의 먹이도 먹이고 왔다한다.

• 이집은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이며, 이집을 중심으로 고개가 3개 있는데 향전고개, 은골고개, 뒷골고개 등이며 사람이 지날때면 돌을 하나씩 갖다놓게 했는데 이것은 이 고을 도적이 들어오면 투석전을 벌이기 위하여 갖다놓았다고 한다.

○成先生神主遷奉記의 記文中에서

• 閔監司 維重이 尤庵宋時烈 先生에게 建議하기를 “先生의 故鄉인 洪州 魯恩洞에 先生의 外孫(彌甥)이 生家 近處에 嚴續이 現居하고 있으며, 庭木도 아직 남아 있으니 비록 처음에는 缺禮가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향집으로 모시는 것은 喪禮의 “神返室堂”의 禮를 다하는듯 합니다.”

이상 등의 證言과 資料로 보아 이 집의 推定 建築年度와 類似하므로 「이집은 先生의 二女가 嚴氏家門과 婚姻하여 親家 아버지의 忠節과 先生의 永慕하는 孝心에서 지은 집인듯 하며 약 4年間 京鄉各地의 儒生들이 모여 奉祀할만한 家庭인 점으로 보아 이 家屋이 成先生의 最初의 神主 奉安祠였으며, 後의 緣雲書院 魯恩書院의 母體인듯 싶다. 그러나 앞으로 上樑文만이 이 事實을 확실히 立證해 줄 것이다.

이와같이 萬古忠臣인 成三問先生이요, 또 사사로이 外祖父이신 先生의 神魂이 시고, 國內大學者들이 崇拜하는 先生이 시니 春秋로 丁日祭를 嚴續이 극진히 모셨다.

● 祠堂建立과 成先生의 復爵

이를보고 있는 地方 儒林들은 精誠을 모아 1672년 丙辰에 先生의 生家址 앞의 대지에 祠堂을 建立하여 神主를 廢하고 位牌를 奉安했다. 그후 9년후인 1685년 乙丑에 端宗復位の 主謀者 死六臣인 5先生(朴彭年, 河緯之, 俞應孚, 李塏, 柳誠源)을 並享하였다.

丙子士禍의 處刑後 235년만인 1691년 辛未 9월 4일 肅宗이 備忘記를 내려 復爵되셨으므로 吏曹判書 兼兩館大提學에 追贈되고, 諡號를 忠文이라 했다.

● 備忘記(解說文)

무릇 國家의 所先事務는 眞實로 崇獎 節義보다 더 큰것이 없고 人臣之最難者는 殉義伏節보다 重要함이 없다. 이는 옛날에 帝王이 節義士를 重히 여겨서 褒錄에 加하는 까닭이다. 저 六臣들을 生覺컨데 어찌 天命人心이 不可逆임을 모르고 壹心所事하여 死而不悔하였으리오.

이는 眞實로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바로 忠節이 數百年후에까지 凜凜함이 可히 明朝의 方孝儒, 景清輩와 더불어 같음이라. 況此先陵參拜次 輩過墓傍하여 予心이 甚히 느끼는바는 오직 그 節義를 爲할뿐만 아니라 世祖의 當時難臣이 後世忠臣이라는 敎의 聖意는 今日에 있으니 此舉는 實로 世祖의 遺志를 承함이며, 世祖의 聖德을 빛내려함이다.

어찌 未安事가 있으리오. 成三問 등 六臣을 該曹로 하여금 特히 復官致祭케 하여 萬代風聲을 세우라. 이와같은 復官을 忠臣들의 進言과 地方儒林들의 上疏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成先生을 主軸으로 死六臣의 忠節은 더욱 빛났고 崇拜享祀는 活氣를 찾게 되었다.

● 緣雲書院과 魯恩書院 및 別祠

1752년 壬申에는 그 祠堂에 緣雲書院이란 扁額이 賜額되었고, 1766년 丙戌에는 書院 옆에 別祠를 儒林들의 餽財로 지어 丙子士禍때 死六臣과 같이 處刑 당한 摠管公 成勝(先生의 父親)을 奉安하였다. 그後 儒林들의 崇拜祭享은 물론 書院을 通한 忠孝敎育과 儒敎理念이 定着되어 가고 있던 時期에 閔監司維重의 提案과 尤庵 宋時烈先生의 主唱으로 死六臣의 忠節은 魯山君의 復位에서 비롯되었으므로 魯山の 魯字와 王恩에 盡命했으니 恩字를 따서 魯恩書院이라함이 妥當하다는 上疏로 因하여

“(1769) 白于上遂命改頒額魯恩書院”

1769년 己丑에 緣雲書院의 扁額을 改稱하여 魯恩書院이라 賜額되었다.

●別祠

그後 別祠를 儒林들의 誠金으로 지어 3인의 先生이 다음과 같이 追享되었다.

- 1806年 丙寅 2月 19日 薇菴金先生 追享
 - 1808年 戊辰 2月 11日 駱村朴先生 追享
 - 1830年 庚寅 9月 20日 久菴卜先生 追享
- 3先生의 行狀은 다음과 같다.

●薇菴 金先生

先生의 姓은 金氏요, 이름은 大來요, 號는 薇菴이시고 貫鄉은 安東이시다.



• 薇菴 金先生(金大來) 墓
• 洪城郡 銀河面 大川里(합천)

1806년 丙寅 2月 19日 魯恩書院 別祠에 追享되었다. 忠淸道 結城縣에서 태어나셨으며, 孝心이 뛰어나 1444년(世宗 26)에 敎官이 되셨다.

-奎章閣所藏圖書番號 17387號 結城邑誌-

…孝子金大來世宗朝以孝薦授敎官…

그러나 世祖朝에 와서는 遺逸(왕한테 버림받아 등용되지 아니함)되었다. 先生이 京師(서울)에 이르니 成三問先生은 詩를 지어 讚揚하였고, 朴彭年先生은 序文을 지어 先生의 行蹟을 記錄하였는데

그 內譯을 紹介한다.

聖上(世宗)께서 儒術을 崇拜하사 선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道義를 넓히시며 人才의 養成하는 法을 만들어 敎團을 보배로 삼고 子弟들에게 大小學을 가르치며 賢人들을 가까이 하는데에는 宗學이 있으니 이것은 道行이요, 明行이니 經學에 밝은것을 師表로 삼아 朝廷에 出入하는 宗親을 반드시 敎養을 시켜 學識과 文行이 兼備한 1인을 골라 스승(師)으로 삼으라 하셨고, 또 官中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스승의 책임이 막중함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 하셨고, 集賢殿에 항상 下命하시기를 官中에 學徒가 한사람이 아니고 많으니 敎官은 게을리 하지말고 精誠을 다하여 다 生員試驗에 登科하도록 하라고 當附하셨습니다.

當時 先生은 學問이 既精하여 높이 讚揚을 받았고, 또 朝廷에 나가 治政에 關興하여 名聲이 높았다. 또 世宗께서 承政院에 계신 先生을 불러 漢陽近方의 牧民官으로 重責을 맡아 달라고 命했다. 그러나 先生께서는

“現在 老母를 忠淸道 結城縣에 모시고 있으나 婦人(夫人)이 子息들까지 기르고 있어 老母를 孝心을 다하여 모시지 못하고 있는 形便에 小臣이 重責을 맡으면 더욱 소홀할 것입니다.”

라며 不可함을 告했다. 그리고 노래(歌)와 시(詩)를 써서 老母에게 보내어 孝心을 表했다. 그것을 본 世宗께서는

“내가 비로서 卿(金大來)의 孝心을 잘 알겠다.” 하면서 卿의 雌母(어머니)를 오시게 하면 될것이 아니냐면서 사람을 보내어 가까이 데려오니 金先生이 故鄉에 내려 갈 것을 拋棄하고 다시 돌아와 藹然(애연: 기분이 좋음)히 世宗을 도우니 和氣가 庭위(父母가 거처하는 곳)에 차고, 故鄉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先生이 官服을 입고 오니 마을사람들은 한편으로 榮光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여 惜別하는 詩를 쓴것이 책

한권이 되었다한다. 또한 胎序를 쓴 朴彭年은 나의 族親이고, 나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든지 工夫하여 “立身揚名”하여 父母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만은 道와 때가 서로 맞지 않으면 假令 어진 君主가 있더라도 左右에 옹지못한 臣下들 때문에 큰그릇이라 하더라도 巖穴속에서 지내는 者 여러사람(十常八九)들이 있다.

그러므로 學識이 豊富하더라도 科擧로 出世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와같이 蒙昧한 가운데에서도 한 丈夫의 顔目을 세웠다. 이때 스스로 굴복한 선비들이 많았다. 그리고 호걸같은 선비들도 이때 進取치 못했다.

그러나 先生은 妙齡(20세 전후)에 우리집 아들과 함께 司馬驗에 及第하여 名聲이 자자했다.

그러나 재주가 뛰어난 公이 登用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쳐지고 있어 사람들이 다 의심했다. 그러나 귀하게 급제한 선비들을 어찌 명시(明時)를 만나지 않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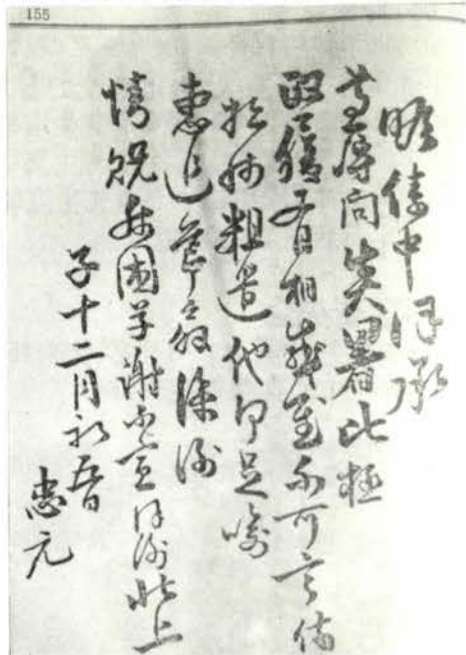
위로는 聖王에게 忠誠했고 아래로는 父母에 孝道하였으니 朝廷에서도 集賢殿에 薦擧하였고, 왕이 先生의 孝心을 잘 알고 말을 보내어 어머니를 모셔 오도록 하여 祿을 주어 奉養토록 하니 公이 좋아서 문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선비들은 榮光스럽게 生覺하여 讚揚하기를

사람이 子息된 道理로 孝心이 이와같으니 이보다 더 큰 榮光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가 다시 바로 잡히고 훌륭한 선비들은 讚揚하는 법이 생겼으니 公은 經學에 뛰어나 聖王께서 王子들을 가르치도록 하여 官中敎官으로 祿俸토록 하였으니 父母에 孝道하고 國家에 忠誠할 것이 이와같으니 公은 얼마나 勤勉했던 선비였던가! 詳細한 內譯을 六先生遺稿에 記錄되었다.

(參考文獻: 舊結城邑誌)

●駱村 朴先生

先生의 名은 忠元, 字는 仲初이며, 號駱村, 靜觀齋, 諡號는 文景公, 本貫은 密陽이다. 1507年(中宗 2)丁卯 閏正月庚申日에 父 別坐, 藻의 아들로 태어났다.



• 駱村 朴忠元先生 親筆

1525(中宗 20)年 乙酉에 生員, 1531(中宗 26)年 辛卯에 式年文에 乙科로 及第하여 正字, 校理, 寧越郡守, 軍資監副正 등을 거쳐 左通糧로 春秋館編修官을



• 文景公 駱村 諱忠元 墓
配貞敬夫人 星州李氏 雙墳左
(所在地: 高陽郡 元堂邑 舟橋里 豆應村 능골 子坐)

兼하여 「中宗實錄」과 「仁宗實錄」의 編纂에 參與했다. 成川府使로써 文科重試에 丙科로 及第하여 讀書를 했고 同副承旨, 大司成을 거쳐 右副承旨를 歷任 聖節使로서 明나라에 다녀왔으며, 1566(明宗 21) 丙寅에 退溪 李滉先生의 뒤를 이어 兩館의 大提學을 지냈고, 吏曹判書와 右贊成을 거쳐 1576(宣祖 9)年 丙子 吏曹判書와 知中樞府事를 지내고 密原書에 封해졌다.

●端宗墓(莊陵)을 成墳하다.

선생께서는 1537(中宗 32) 丁酉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랑(正郎)을 지냈는데 가을에 조부(參判公)상을 당하였다. 조부복을 벗고나서 승문원검교(承文院檢校)가 되었다. 이때 아전(亞銓) 林百齡으로 부터 謀略을 받았다. 그러므로 공은 外職으로 쫓기는 형편이 되었다. 1541(中宗 36)年 辛丑, 괴상한 일이 寧越에서 일어났다. 즉 寧越郡守로 赴任만하면 赴任 첫날 郡守가 三人이나 죽는 것이었다. 이로인하여 朝廷에서도 큰 問題로 등장되었고, 寧越郡民들은 일손을 놓고 安定을 찾지 못하는 形便이었다. 이때 謀略中傷을 받고 있던 공이 死地인 寧越郡守로 任命된 것이다.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死地로 가게된 것은 죽일려고 한것이라 비난했으나 공은 命은 하늘의 뜻에 있으니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怡然한 자세로 赴任했다. 官員들은 또다시 郡守의 祭禮準備를 암암리에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公은 단단한 마음으로 첫날밤을 客舍에서 맞이했다. 精神을 바짝 차리고 밤을 새고져 하였으나 홀연히 잠이 들고 말았는데 '여봐라, 왕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젊은 사람이 초라한 옷차림을 한채 객사에 들어와서 공을 끌고 가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따라가보니 젊은 임금이

下들이 嚴然하게 整坐하고 있었다. 마치 大闕의 朝廷大臣들이 도열하고 있는듯한 느낌이였다. 드디어 젊은 임금이

"너희들이 이럴수 있느냐? 天下에 고안놈들!"

하고, 몇번을 꾸짖더니

"저놈을 끌어다 당장 죽여라"

고 명령하자, 세번째 앉은 사람이 일어나 재배하고 엎드려 告하기를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아니됩니다."

라고 諫하고 공을 붙들어 부축하여 보내주었다. 공이 精神을 차려보니 꿈과 같기도 하고 꿈이 아닌것 같기도 했다. 공은 촛불을 켜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새벽에 인기척이 들린다.

"여봐라! 밖에 누구냐?"

공이 소리 높여 부르자,

"예, 종놈입니다."

라고 대답한 종들도 깜짝 놀랐다. 예전 같으면 죽었어야할 군수가 살아있으니 怪異한 일이라며 모두 客舍門앞에 엎드렸다. 그 옆에는 棺과 祭禮準備物들이 있었다. 공은 묻기를

"이 近方에 魯山君(端宗)의 墓所가 있다는데 너희들중 누가 아느냐?"

종(僕)중에는 다들 몰랐고, 그중에서 한 종이 말하기를 그 일은 늙은 亞銓嚴氏가 잘 알것이라고 告했다. 공은 즉시 嚴亞銓(嚴興道の 孫)을 불러 물어보니

"嚴亞銓은 저의 先祖考(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칭)께서 魯山君(端宗)의 父世祖가 조카 魯山君(端宗)의 王權을 박탈하고 寧越로 流配시킨후 死藥을 내려 죽게하자 그 屍身옆에 아무도 가지 못함을 애초로히 여겨 當時 官吏였던 先祖考(嚴興道)께서 집에 마련해 두었던 棺을 가지고 와서 入棺한후 꺼적에 덮어 殯방매어 지고 가서 혼자 葬禮를 모셔드렸는데 그 장소를 잘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공은 嚴亞銓을 데리고 가보니 어젯밤 꿈속에서 본 장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잡초가 무성

하여 묘소를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公은 엎드려痛哭한 후, 祭需를 차려 놓고, 祭文을 지어 祭祀를 지냈다.

• 祝文 •

王室之胄요, 幼沖之이라. 適丁否運하야 遜于僻邑이라.

“왕실의 장자요, 어리고 어린 임금이라. 때마침 비색한 운수를 만나 궁벽한 고을로 사양했도다.”

一片青山에 萬古冤魂이라. 庶幾降臨하사 式飲苾芬하소서.

“한조각 푸른 산에 만고에 원통한 혼이로다. 바라건데 내려오시어 향화를 흠향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 꿈을 꾸었는데 어느 촌부같이 초라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公의 손을 꼭잡고 감사하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세번째 앉았던 사람이 나였소. 나는 성근보(成謹甫: 成三問先生의 號)요. 公의 忠誠으로 능히 이일이 있을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도록 청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군요.”

라고 칭찬해 주고 떠나버렸다.

● 장릉(莊陵): 안내판

- 사적 제196호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 장능 안내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 곳은 조선단종(1441-1457)이 안장되어 있는 능이다.

단종은 문종의 장남으로 문종 즉위년(1450) 7월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부왕 문종이 재위 2년만에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나인으로 1452년 5월 18일 경복궁에서 즉위하였다.

단종 원년(1451)에 숙부 수양대군은 정인지, 한명회 등과 결탁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 단종의 보절신을 죽이고 국권을 장악하였다. (계유정란)

단종 3년(1455) 단종은 그들의 음모의 위협으로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려났다. 세조 2년(1456) 단종을 복위하려는 사육신 사건이 사전에 발각되어 이 사건으로 이듬해 상왕은 노산군으로 강봉됨과 동시에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다.

그때(1455) 가을 금성대군 유가 중심이 되어 단종을 복위하려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자, 노산군에게 종사에 최선을 지었다는 구실로 서인으로 폐하는 한편 사약을 내리는 등 죽음을 강요하니 10월 21일 17세를 일기로 최후를 마쳤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호장 엄흥도(嚴興道)가 관을 준비하여 남몰래 지금 능이 있는 동을지산에 매장하였다.

그후 중종 11년(1516) 우승지 실상이 치제한 이래 25여년 수묘치 않아 폐묘가 되었던 것을 중종 36년(1541)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애절한 제문을 지어 치묘치제 하였는데 그때 지은 제문은 오랜 기간 이어왔다.

노산군이 돌아가신 후 224년만인 숙종 7년(1681)에 대군으로 추봉되었으며, 마침내 숙종 24년(1698)에는 복위되어 묘호를 단종이라하여 종묘에 부묘하고, 능을 장능이라 하였다.

능(陵)의 양식은 가장 간단하고 작은 후릉석물의 양식을 따랐다.

특히 다른 능과 다른 점은 단종에게 충

절을 다한 여러 신하들을 강릉에 배향하기 위하여 정조 15년(1791) 왕명으로 장릉 밑에 충신단을 설치하고 정단(正壇)에는 안평대군 이하 32인 별단(別壇)에는 조수량(趙遂良) 등 264인을 배향한 것이라 하겠다.



• 駱村公紀蹟碑閣
所在地: 寧越郡 寧越邑 永興里(莊陵墳內)



• 駱村公 舊 神道碑
所在地: 高陽郡 元堂邑 舟橋里 豆應村

● 久菴 卍間先生

先生은 1410년(永樂 8年) 庚寅에 現 洪城郡 金馬面 新谷里(麗水洞)에서 出生하시었다.

先生은 어려서부터 聰明하고 재주가 뛰어나 學文과 文章에 깊은 뜻과 사람이 행하여



• 久菴 卍間先生 影幀

야 하는 道理를 스스로 깨닫고, 父母奉養에는 孝를 다하고 成長하여서도 經學研究에 몰두하여 通理하였으므로 高明한 名聲으로 當世에 推仰받게 되었다.

世宗朝에서 特薦하여 廣興守로 任命하였으나 出任하게되면 부모님을 모실수

없다 하여 不應하였다. 世宗朝에서 다시 戶曹正郎에 任命되었으므로 王命을 拒逆할 수 없어 出師하여 世宗大王께 上疏하기를

“臣은 聖恩을 입어 出師하였으나 父母를 奉養치 못하는 不



• 駱村公 新 神道碑
所在地: 高陽郡 元堂邑 舟橋里 豆應村

孝를 저지르고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부디 故郷에 내려가 不孝하는 罪를 免하도록 聖恩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諫했다. 그러나 世宗大王은 先生의 學文과 孝誠을 嘉尙히 여겨 그의 아버지(渭龍)를 漢陽으로 올라오도록 吩咐하여 隆崇한 待遇를 하였으나 얼마후 버슬을 버리고 父親을 모시고 故郷으로 돌아와 父親 모시는데만 精誠을 다하였으나 父親께서는 老患으로 病床에 눕게 되었다.

先生은 晝夜不撤하고 臥病中인 父親의 房에서 떠나지 않고 직접 漢藥을 손수 숯불피워 달였고, 藥의 溫度를 調節하여 供養했으며 대소변의 색깔을 觀察하고 맛을 보아 病勢를 診斷하여 侍湯에 孝誠을 다했으며, 食事を 準備하는데도 직접 물동이를 들고 먼길을 멀지않다고 다녔던바 하룻밤 사이에 집앞의 땅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선생은 수고를 덜게 되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先生의 孝誠에 感服하여 물이 솟아난 것이라 하여 지금까지 “孝子泉”이라 傳한다.

이 孝子泉의 保傳管理를 위하여 1993년 11월 16일 洪州郷土文化研究會에서도 다음과 같이 孝子泉 由來를 刻字하여 세웠다.

●모쟁이샘 유래

출천의 효자 복한(卜閑)은 위룡(渭龍)의 아들로 1410년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여수동에서 출생하였다. 복한은 학덕과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세종때에 두번이나 특전되어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이르렀으나 아버지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는 여한을 못잊어 직을 사양하려 하였다. 세종께서 그 아버지를 한양으로 모시어 융숭한 예우를 베풀으니 사람들도 함께 흠모하였다. 그후 버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는데만 전념을 하던중 부친이 병으로 누우시어 주야시탕은 물론 공양에서부터 모든 간호에 이르기까지 노비와 판사람에게 맡기

는 일이 없었다. 매일같이 목욕후 하늘에 기도하고 먼데있는 샘물을 길어다가 시탕하기 수개월에 이르렀다. 어느날 하룻밤 사이에 근처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다. 선생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사 샘물을 솟게하는 기적이라하여 사람들이 이 샘을 효자샘이라 하였다.

성삼문의 이종숙이 되는 복한은 단종선위이후 고향에 돌아와 오직 편모를 모시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하루는 그 모친께서 잉어가 먹고싶다 하여 노심초사하다 잠이 들었을때 꿈에 현몽이 있어 일찍 효자샘에 가보니 많은 모쟁이들이 무리져 놀고 있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모쟁이를 건져다가 시탕하여 드리니 수일을 더 연명케 하였으므로 이 효자샘을 이름하여 모쟁이샘이라 호칭하게 되었다. 1455년 이 효성이 담긴 효자첩을 조정에 올리자 소문이 중국 명나라에까지 알려져 이 효자첩을 황제가 보게 되었다. 황제는 여러 효자첩의 영험을 시험해보고자 10여개의 효자첩을 물에 넣었는데 그 중 복한의 효자첩만은 꺾이지 않게 물에 젖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조선 한나라의 효자뿐 아니라 세계만방에 없는 효자라 하여 국서를 보내어 찬양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여수동 입구에 선생의 효자비와 성효각을 세워 효자의 귀감으로 삼았다.



• 모쟁이샘(일명: 孝子泉) 안내판
• 位置: 洪城郡 金馬面 新谷里 98番地

1450年 丙午에 親喪을 맞이했다. 先生은 三年間 山所 옆에 廬幕을 짓고 居喪의 禮를 다하여 사람들과 한번 웃어보지도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에 세번씩 다니는데 여름장마가 계속 될때도 暴風雨가 잠시 멈추어 주기도하고, 嚴冬雪寒에도 大雪이 그쳐 주기도 하고, 先生이 山所에 난 雜草를 뽑을때면 까그매(烏鵲)가 모여들어 풀을 쪼아 뽑아 주기도 했다고 傳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三年間의 喪禮를 맞추고 偏母를 모시고 故鄉인 麗水洞에 隱居하고 얼마를 지냈다. 朝廷에서는 또다시 先生을 遺逸로 同憲府掌令에 發令했다. 王命을 받들어 出任하였으나 1455년(世祖 1年)乙亥에 端宗이 遜位를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故鄉에 돌아와 杜門不出하고 사람들과의 人事도 끊고 오직 偏母 모시는데만 孝誠을 다하였으나 母親께서도 老患으로 臥病케 되었다.

하루는 母親께서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시자 先生은 저녁내 잉어 구할 것을 궁리하고 아침 일찍 朝飯準備할 食水를 뜨러 물둥이를 들고 샘에 갔다. 그런데 그 샘속에는 잉어새끼인 모쟁이가 많이 떠다니는 것이 아닌가! 先生은 놀래어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는 하늘에서 약으로 내려 주신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향하여 재배하고 감사의 뜻을 고한뒤에 그 모쟁이를 精誠껏 떠다가 母親에게 시탕하여 드리니 病勢에 효험이 있었다한다. 이러한 緣由로 이 샘을 "모쟁이샘"이라고도 傳하고 있다.

1453년 癸酉(端宗 1年)에 朝廷에까지 孝誠이 알려졌다. 朝廷에서는 國內에 孝子 10名을 뽑아 孝子帖 10個를 명나라 임금에게 보냈다. 명나라 임금은 그 孝子帖 10個를 보더니 모두 물속에 넣어버렸다. 그러나 10個 孝子帖中에서 久菴 卜先生의 孝子帖은 물에 젖지도 않고 오히려 鮮明히 보이는 奇蹟을 보았다. 명

나라 임금은 놀라서 그 孝子帖을 다시 보더니

"이 사람은 朝鮮 한나라의 孝子일뿐만 아니라 世界萬邦의 孝子가 될만한 孝子라 極讚하고 國書를 보내어 朝鮮王朝에 讚揚했으므로 朝廷에서는 先生의 故鄉인 麗水洞에 旌閭와 孝子碑를 세워 旌表하였다. 이 정여각을 洪州 卜氏 門中에서는 誠孝閣이라한다.



• 誠孝閣(구암 북한선생 孝子閣)

• 位置: 洪城郡 金馬面 新谷里(麗水洞) 林211의 4번지



• 命旌額(誠孝閣內에 久菴 卜先生 勅命額板)

• 先生의 姨姪 梅竹軒 成三問先生에게 보낸 書翰文中에서

「爵祿寧爲章節瑤 清名宜學伯夷心 隻身一死何須惜 消息家鄉母病深」

• 先生이 病中에 成侄 謹甫(成三問先生)에게 보낸 書翰文中에서

「平生爲愧限 南北所歸珠 白玉青山下千

秋一罪軀」

※參考文獻：忠義孝烈錄，湖南三綱錄，東獻備考，朝鮮襄輿勝覽，내고장의 빛난 일, 洪陽史, 久菴事實

• 구암 복한선생 생가지비(久菴 卜間先生 生家址碑)

일월이 순환하고 칠성이 조립하는 복한(卜間)선생 생가지는 향조 어은공이 소점한 복씨가문의 요람지이다.

입수맥의 발음으로 중국에서는 효자첩의 영험이 주효했고, 조선에서는 성효각으로 효성의 얼을 빛내었다. 양택의 알말바위는 8인의 등과를 배출하였으니 복록무량의 조운지가 아닐 수 없다.

배산임수의 명당에서 용솟은 효도샘은 지금까지도 생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당시를 회상케하는 은행나무는 선의 밖에 자리한 그대로 수백년의 역사를 지녀왔다.

1992년 입향조의 묘지명과 함께 생가지까지 찾게 되었으니 경사는 복씨가문뿐이 아니라 홍주골 효범의 지표가 되므로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생가지비를 세운다.

1993년 11월 16일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배동순 근찬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채수철 근서



• 久菴 卜間先生의 墓
• 位置：洪城郡 金馬面 新谷里 山 72番地

- 久菴 卜間先生 生家址碑
- 位置：洪城郡 金馬面 新谷里(麗水洞) 山 48番地



〔參考〕卜間先生의 背景

※ 직계(直系)

- 父：渭龍，號：漁隱
爵：高麗司溫暑直長
- 祖父：成璿，爵：右副承旨
- 曾祖：守之，諡：忠匡平章事

※ (妻家)：竹山朴氏(成三間先生外家)

- 同婚：
 - 摠管公 成勝(昌寧人)
 - 進士 俞解(杞溪人)
- ※ 竹山 朴瞻의 사위
 - 判官 趙允常(漢陽人)
 - 郡守 鄭安文(東萊人)
 - 掌令 卜間(沔川人)

(3) 書院撤廢와 魯恩壇 設壇

1868年(高宗 5) 戊辰 9월에 大院君의 全國未賜書院撤廢로 魯恩書院도 撤廢하였으므로 先生의 生家址위의 書院에 奉安했던 死六臣의 位牌와 別祠에 奉安했던 4位(成勝, 薇菴金先生, 駱材朴先生, 久菴卜先生)를 合埋하여 壇을 設置하고 魯恩壇이라 하고 保存委員會에서 每年祭祀지내 오고 있다.

〔參考文獻：久菴先生事實〕

●魯恩書院 撤廢

우리나라 書院은 高麗, 新羅때부터 始作되어 朝鮮朝에 들어서면서 地域人物中心書院, 先師, 先賢의 奉祀하는 祠와 弟子를 敎育하는 “齋”의 性格으로 부터 始發되어 書院의 濫設, 疊設時代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濫, 疊設의 重要한 原因은 원래의 目的을 輩返하여 戰略的 黨爭에 利用되었고, 內黨의 學問的인 正統性이 곧 書院村에 의하여 과시되는 까닭에 朱子學的 名分을 앞세워 文廟奉祀와 書院享祀로 바로 黨權의 尺度로 遁甲되어 黨利黨略의 祭物로 轉落되었다.

朝鮮朝의 書院 創設 數				
道名	書院數	現額書院數	道名	書院數 現額書院數
京畿道	56	48	黃海道	29 32
忠清道	89	38	平安道	37 25
全羅道	136	47	江原道	33 8
慶尙道	240	65	咸鏡道	30 11
		計	650	265

위 內譯과 같이 書院의 增設로 政事に 차질이 있을뿐아니라 黨爭에 휩쓸려 社會가 混濁해지자, 1868년 戊辰(高宗 5) 全國 650個의 書院中 大院君은 47個 書院만 賜額하고 603個 書院은 未賜額으로 撤廢하게 되었다.

魯恩書院도 未賜額書院으로 撤廢되니 奉安했던 死六臣 位牌와 別祠에 追享했던 4賢位牌를 成先生 生家址위 明堂에 埋安하고 厥祀하게 되었다.

●魯恩壇設壇

王命에 의하여 魯恩書院이 撤廢되고 位牌를 生家址위 明堂에 埋安하고 厥祀되니 洪州의 儒林들은 荒涼하기 恨이 없었다. 先生의 祭享은 露梁津愍節祠, 寧越彰節祠, 大邱洛濱祠, 昌寧勿溪院, 公州達田祠 등에서 奉安하고 있으며, 또 父母의 墓所와 妻의 墓가 洪州 魯恩里에

▼魯恩壇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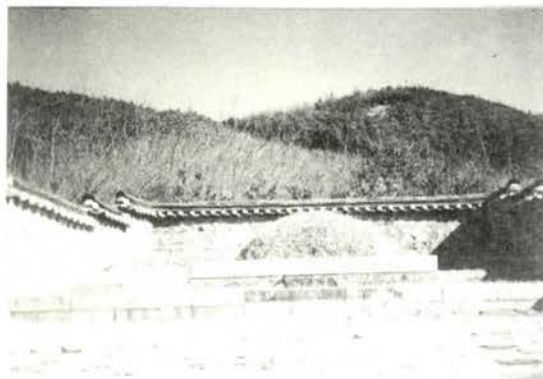
所在地: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山21-1番地



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魯恩書院의 享拜는 特別한 意味가 있으나 撤廢되었으니 靈魂이 있을곳이 없어졌음을 哀悼한 士林에서 苦心中 大道가 循環되어 遺蹟保存會가 發足되었다. 初代會長에는 李莊魯이다. 때를 같이하여 死六臣인 忠烈公 河緯地의 傍裔인 河俊煥이 洪州郡守로 赴任해 왔다. 이러한 與件이 造成되자 1975年(高宗 13) 乙亥 秋에 遺蹟保存會長 李莊魯와 會員 金烈濟 등 여러 사람이 參與하여 現金壹千圓을 釀出하므로 우선 田土를 買入하여 先生의 先墓位土를 마련했고, 會員 朴敦圭가 巨額을 特贊하여 閔維重이 建立한 碑閣을 重修하고 敷地 1,353坪을 다시 買入하여 摠管公과 夫人金氏의 墓所位土로 만들었다. 이에 神助하사 俞應孚(死六臣忠穆公)의 傍孫인 俞興植의 發議로 靑陽에 사는 俞氏一派와 朴氏後裔 그리고 朴氏諸門中과 成喬煥 등이 出資하여 成先生直系墓(父母墓, 妻墓) 3基 所在山이 他人의 所有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買入하여 遺蹟保存會에 歸屬하는 등 保存事業이 활발히 進行되었다. 이는 天道循環한 하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會員들은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今年이 丙子士禍로 成先生이 慘禍를 당한지 7周甲이 되는 해이다. 遺蹟保存會의 精誠어린 事業推進으로 1867年 丙

子(7周甲) 6月 7日(慘禍日)을 택하여 死六臣 및 4賢의 位牌를 埋安한 곳에 壇을 쌓고, 戊辰年 書院 撤廢以後 8年만에 祭享하게 되었다.



▲死六臣位牌奉安墓(魯恩壇內)
所在地: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山21-1番地

하늘도 슬퍼하듯 가랑비 내리는 속에 洪州郡守 申昌燮을 비롯하여 遺蹟保存會長 李莊魯, 會員 金烈濟, 朴敦圭 등과 儒林 30餘名이 參席하여 壇祭를 끝내므로서 8年間の 闕祀後 처음있던 享祀였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成先生 遺蹟碑 建立

이를 悚悚스럽게 여긴 閔監司 維重은 石材를 구하여 魯恩洞까지 運搬해 놓은 지 오래되어 땅속에 묻혀 있었다.

傳說에 의하면 宅前에 묻혀있는 石材를 鄉人某氏가 發掘하여 自己의 私用으로 使用코져 하였으나 天動霹靂이 일어나 돌을 파던 사람이 卒倒하는 事態가 일어나 도로 그 자리에 묻었다한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成先生 神主 遷奉記文中에 記錄되어 있어 더욱 怪異하게 느껴진다.

閔監司 維重은 돌을 準備하고 1668年 戊申에 尤庵 宋時烈先生에게 成先生의 故郷에 나무들이 늙고 古屋이 頽壞되고

있으니 보기에 너무도 荒涼하니 장차 生家앞에 碑石을 세워 그 집이었다는 表示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하여

• 參考:(碑文中)

…略… 驪興閔公維重按節來尋則木老屋壞滿目荒涼烏山在傍屹然有柱天障川之勢想像其爲人不勝景仰之懷將立石以識其居…略…

碑文을 지어 後世의 千百世라도 그 崇高했던 忠誠心을 傳하고자 한다라고 所信을 밝혔다. 그러나 碑文은 完成되었지만 李氏王朝가 統治하고 있는 狀況아래 自己들의 身分保障과 後患이 두려워 碑文을 刻字할 사람도 없고, 이일에 參與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러므로 1690年(肅宗 16) 庚午에 碑文完成後 22年만에 碑前面에 누구의 陰德인지 “昌寧成先生三問之間”라고만 刻字하여 비로서 처음 碑가 세워졌다.



▲成三問先生遺墟碑閣
所在地: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114-3番地

이와같은 事實의 碑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의아스럽다.

그후 李公 箕鎭이 特指를 받고 洪州에 내려왔다. 成先生의 碑를 보고 嘆息하면서 碑는 있되 글(碑文)이 없으니 後世 사람들이 어떻게 先生의 忠節을 알수 있으리오.

生家址의 遺墟를 “間”라 한것도 또한

無意味한 것이라 하고 하는 直言에 힘입어 갈아서 篆書로 위 部分을 쓰고 尤庵 宋時烈 先生의 碑文을 刻字하여 세우니 마음이 깨끗했다. 그러나 石材는 文貞公 閔維重이 準備한 것이다.

儒林들은 尤庵先生의 指示에 따라 遺碑를 옛집앞에 세웠고, 옛집도 閔文貞公 維重이 補修하였다. 이일은 碑文을 作成한지 60년후인 1728년(景宗 4) 戊申에 서야 完成된 것이다.

〔參考文獻〕成先生遺墟碑 碑陰記中

…略… 今李公箕鎮以大家宰斥補此州見而歎曰有碑而無文何以示後不曰遺墟而閔不亦無義乎遂更勸治篆額勒其文如式焉其石實文貞之所其也…略…

其後 坡平人 尹鳳九先生은 成先生의 遺墟碑建立에 너무나도 波瀾曲折을 많이 겪었음으로 그 事實을 다시 1744年(英祖 20) 甲子 4월에 碑의 뒷면에 碑陰記로 刻字하여 現在까지 傳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特別히 考察하여야 할 점은 1668年 以前: 閔維重이 石材 準備完了, 1668年 尤庵 先生 碑文作成, 1690年 始立石: “昌寧成先生三問立閔”, 1728年 尤庵先生碑文刻字 完成, 1744年 尹鳳九 碑陰記 刻字 完成 등의 記錄을 參考할 必要가 있다.

즉 1668年 以前부터 1744년까지 약 76년이란 期間이 消費되었다는 實證을 볼때 人類歷史上 最貴의 大役事로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다. 思想, 理念 그 무엇보다도 東邦의 禮儀의 나라, 그리고 人倫遵守의 最初, 最高의 陽光이니 東邦의 指標로 손색이 없을것이다.

● 成先生遺墟碑文 및 解說과 碑陰記 및 解說

成先生遺墟碑(성선생 유허비)
右議政 宋時烈 撰
大司憲 金鎮商 書

判中樞 俞拓基 篆
우의정 송시열 글을 짓고
대사헌 김진상 글씨 쓰고,
판중추 유탁기 위전서 글씨쓰다.

先生我 世宗大王朝名臣也諱三問字謹甫 世傳先生降時空中問生乎者三故名云

선생은 우리 세종대왕때의 명신입니다. 이름은 삼문이시고, 자는 근보이신데 세상에 전하기를 선생을 낳으실때 하늘에서 산신령님이 낳았느냐? 낳았느냐?는 소리를 세번 듣고 태어나서 이름을 삼문(三問)이라 지었다 전한다.

爾歷事 文宗魯山至 世祖丙子離丹書與其考諱勝同朴彭年河緯地李塏柳誠源俞應孚等皆死世稱六臣者也

문종과 노산군을 섬겼으며 세조때 병자년에 이르러 세조에 충성하지 않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죄적(罪籍)에 올라 그의 아버지 승과 박팽년, 하위지, 이개, 우익원, 유응부 등과 같이 죽으니 세상에서 이들을 사육신이라 한다.

其時戮及其孥上坐屠滅者又三十餘家異武者安富尊榮累世不絕然至今累百歲而人之歎歎慕尚皆欲百其身者顧在此而不在彼豈史遷所謂其重若彼其輕若此者哉豈不二天理民彝極天罔墜不可以威武鑠而勢利奪哉

그때 죄가 처자에게까지 미쳤으며, 서로 연좌되어 멸망한 집이 또한 30여 집이나 되었다. 또한 육신들과 발걸음을 달리한 자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며 누대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흠모하고 우리러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구출하려고 하는것은 도리어 이 육신에 있고, 저들(世祖)에게 있지 않으니 이는 사마천이 말한 소위 「저들은 부귀를 중히 여겼으나 이분들은 부귀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인가 보다.

이는 천리와 민이가 하늘이 다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꺾고 세리하여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嗚呼懿哉 先生昌寧人以 永樂戊戌生於洪州之赤洞里邑人尙其第宅至今樑棟無恙庭有老梧世傳先生登第榮歸設宴時懸樂於樺枝云爾

아! 훌륭하도다. 선생은 창령 성씨이시며, 영락(永樂) 무술(1418)에 홍주의 적동리에서 출생하셨는데 고을 사람들이 선생의 구택을 보호하여 지금까지 기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뜰에 늙은 오동나무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선생이 과거에 급제하신 다음 금의환향하여 잔치를 베풀때에 북(악기)을 이 오동나무에 매달았다」 전한다.

今 上九年驪興閔公維重按節來尋則木老屋壞滿目荒涼而烏山在傍屹然有柱天障川之勢想像其爲人不勝景仰之懷將立石以識其居時余承命至漢師寓於掌苑署之外署內有老松數株老人指謂曾以先生所居籍人官爲公廨此實先生手植云

지금 임금 9년에 여흥 민공 유중이 관찰사가 되어 찾아가보니 나무는 늙었고, 집은 퇴락되어 쓸쓸하기 짝이 없는데 오서산은 옆에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내를 막는 기세가 있었다.

오서산을 보고 선생을 상상하여 경앙하는 마음을 견딜수 없으므로 장차 비를 세워 선생의 구택을 표하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나는 명령을 받들고 한성에 이르러 장원서 밖에 우두커니 있었는데 장원서 안에 몇그루의 노송이 있는데 노인들은 이 소나무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일찌기 선생이 사시던 집을 적몰하여 공해(官舍)로 만들었으니 이는 실로 선생이 손수 심은것」이라 하였다.

擁腫禿缺生意僅在而猶有歲寒之意正如志士仁人更歷變故而剛毅獨立凜然不變者

矣撫事興懷慨然永歎適閔公以書來曰赤洞之石已具願有文以記之遂書此以遺之使後人雖千百歲之遠尙有以并識彼此也

이 소나무는 웅이가 많고, 모지러져 겨우 생기가 있을뿐인데도 상설을 견뎌내는 뜻이 있어 마치 지사와 인인이 술한 변란을 당해도 강의독립하여 늠름히 변치 않는것과 같다.

옛 일을 생각할때 감회가 있어 개연히 장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민공이 편지를 보내어 「적동의 돌을 이미 마련하였으니 글을 지어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마침내 이것을 써 보내어서 후인들로 하여금 천백년이 흘러도 저 부귀를 탐한 자들과 이 충절을 지킨자 그 누가 훌륭한 가를 알게하는 바이다.

●碑陰記 및 解說

尤庵先生撰碑在 顯廟戊申蓋閔文貞將載之石未果後肅廟庚午始立石但書曰昌寧成先生某之閔文則闕焉時值斯文陽九豈有所畏忌而然歟

우암선생께서 찬한 성선생의 비가 현종 무신년에 민문정이 비돌을 준비하여 갖다 놓았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숙종 경오년에 비로서 세우기는 했으나 창령 성선생 모의 여(閔)라만 했고 글은 새기지 못하였으니 이 글에 무슨 재앙(陽九=양액5, 음액 4를 말함)이 있기에 그렇게도 두려워서 그러했는가!

今李公箕鎮以大冢宰斥補此州見而歎曰有碑而無文何以示後不曰遺墟而曰閔不亦無義乎遂更礪治篆額勒其文如式焉其石實文貞之所具也

지금 이공 기진이 목민관(冢宰)가 되어 부임후 정사를 살피다 성선생의 비를 보고 탄식하여 가로되 「비가 있어도 글이 없으니 어떻게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킬 수 있으리오」하고 거듭 탄식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다.

유허를 여(閭)라고만 하는것도 또한 의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드디어 다시 비를 갈아 “위 성선생유허비”란 글씨는 전서(篆書)로 새기고, 글을 이와같이 새겼으니 그 비들은 문정이 구하여 준비한 것이다.

碑文成後四年壬子成先生神主出仁旺山崖京外章甫受尤庵指奉安於遺墟之舊廬廬亦文貞所嘗修葺者也其詳在尤庵記文中

비문이 완성된 뒤 4년 임자에 성선생 신주가 인왕산 비탈길에서 서울의 선비들에 의하여 발견되어 우암 선생의 지시로 선생의 옛집에 봉안 토목했으니 이집도 또한 문정(文貞)이 보수한 것이다. 상세한 것은 우암선생 기문중에 있다.

又後丙辰多士立祠於其傍祀先生而神主移奉位版後至乙丑并享五先生丙戌又用其廬追享成先生考總管公公同時殉節而不得合奉以位序有礙也

또한 병진년에 여러 선비들이 사당을 그 옆에 사당을 건립하고 선생의 신주를 위판(位版)으로 옮겨 모셨고, 을축년에 이르러서는 5선생을 함께 모셨으며 병술년에는 그집에 성선생의 아버지 총관공을 모셨는데 성선생과 동시에 순절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壬申因儒生疏請賜院額曰緣雲文貞子判書公鎮厚以爲尤庵稱此洞必曰魯恩魯恩其有義己丑白于 上遂命改頒今額總管公與先生夫人墓在院東隔一岡而近朝廷許以成氏沒入田十七結屬本院俾供香火崇報之典於是備矣

임신년에 유생들이 소청하여 원액을 록운(緣雲)이라 하였는데 문정자 판성공 진후가 우암선생에게 말하여 이 마을을 반드시 노은(魯恩)이라 하여야 하고, 노은(魯恩)이란 뜻이 의가 있다하여 기축년에 임금님께 상소하여 드디어 노은서

원이란 지금의 명칭을 사액 받았다.

총관공과 선생부인 묘소가 노은서원 동쪽의 한 고개만 넘으면 있고, 조정에서는 옛날에 빼앗았던 밭 17결을 도로 돌려주어 제향을 모시게 되었으니 선생에 대한 은덕을 갚는례를 이제서야 다했다 하겠다.

獨尤庵稱述之文尙闕顯刻久爲士林所慨惜今得公乃成斯豈非有待而然歟凡事在戊申後者公要余實錄謹識之如此

오로지 우암선생의 찬한 글이 오랫동안 현각되지 않아 선비들이 개탄해 왔는데 이제 공께서 이와같이 이르렀으니 어찌 기대했던바가 아니겠는가!

이 일들은 무신년 후에 공의 요여실록(要余實錄)에 이와같이 기록되었다.

時崇禎甲申後百單一年甲子四月也

坡平 尹鳳九 記

德水 李箕鎮 書

때는 숭정갑신후 백일년 갑자 4월에 파평 윤봉구 기록하여 짓고, 덕수 이기진은 쓰다.

(5) 魯恩書院遺墟碑 建立

魯恩書院遺墟碑는 1676년(肅宗 2) 丙辰에 成三問先生의 位牌 奉安을 위하여 鄉里 儒林에 의하여 立祠, 緣雲書院, 魯恩書院과 別祠建立 등 發展해 왔으나 1868년(高宗 5) 戊辰에 未賜額書院으로 撤廢되어 192年間(神主遷奉으로부터 196年間) 洪州儒林들의 崇拜속에 忠節思想을 中軸으로한 學究의 道場으로 계속되어 왔다.

書院撤廢라는 王命은 忠臣들의 心情을 놀라게 했으며, 地方儒林에게는 큰 衝擊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한 亂脈속에 遺蹟保存會가 構成되었고 保存會에서는 誠心을 다하여 盡力했으므로 현재까지 成

三問先生遺墟碑保存과 魯恩壇의 設壇 등의 偉業을 남겨 後世에 傳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魯恩書院遺墟碑

所在地: 忠南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114-3番地

이상과 같은 모든 保存事業이 進行되었음을 記錄하여 後世에 傳하겠다는 先賢들의 意志에 따라 1876年(高宗 13) 丙子 11월에 忠淸南道知事 李益範이 撰하고, 洪城郡守 申昌燮이 써서 閔維重이 準備해 두었던 石材에 刻字하여 지금까지 保存되고 있다.

• 魯恩書院遺墟碑銘 並序 및 解説

• 魯恩書院遺墟碑銘 並序

天高地下萬物散殊人心不同如其面之不同然至於忠義大卓異萬口一辭千載如一日者寔由於君臣大分實天經地義亘古今而不可易也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데 만물이 흩어져 각기 다른바 인심이 같지 않음이 마치 얼굴이 각기 같지 않은것과 같다.

그러나 충의가 크게 뛰어나 만구(萬口: 만 사람의 입)가 똑같이 칭찬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하니 이는 실로 군신(君臣)의 큰 분별은 천경(天經)과 지의(地義) 같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뀔 수 없는 것이다.

殷紂之惡天所廢也周武王有君師之德得八百會應天順人除暴救亂而墨胎氏獨恥食其粟餓死而無怨明天皇乘王者不死之運得飛燕上畿之讖以太祖之子革建文之位廟社如故市朝不改非他人易姓之比而方陳諸君子盡忠所事赤族而不悔者何也其心以爲大義所係不欲以命數而易其素守故也

중국 은나라 주왕(桀紂: 中國 夏나라의 桀王과 殷나라 紂王은 代表的인 暴君이었음)의 악정(惡政)은 하늘에서 벌하여 폐했고,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군사(君師: 임금과 스승의 도리)의 덕(德)이 있어 팔백제후(八百諸侯)가 약속없이 모인 기회를 얻어 인심이 순응하여 폭동을 제거하고(除暴) 난리에서 백성을 구하였음에도(救亂) 묵태씨(墨胎氏: 伯夷와 叔齊)는 주(周)나라의 곡식 먹는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명(明)나라 성조(成祖) 왕자(王子)는 죽지않는 왕운(王運)을 타고나는 제비가 두둑에 올라온다(上畿)는 도참(圖讖)을 얻어 태조의 아들로써 건문제(建文帝)의 자리를 바꾸어 종묘, 사직이 예전 그대로 있게 되었고, 시조(市朝)가 바뀌지 아니하여 왕조의 성씨를 개역한 타인에 비할바가 아니었는데도 방효유, 진서 등 여러 군자들은 자기가 섬기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서 삼족이 멸하여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에 이는 대의(大義)에 쫓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운명에 맡겨두고 본래

의 의를 바꾸지 않은 까닭에서였다.

我東六臣之忠亦如斯焉爾六忠之取義詳於諸先生敘述此不必贅也洪州魯恩院露梁愍節院寧越彰節院大邱洛濱院昌寧勿溪院公州達田祠皆我先生俎豆之所而先生之寔在魯恩先人邱墓亦在其傍神埋所安比他院尤爲典要者也

우리나라 사육신(死六臣)의 충절도 또한 이와같았다. 육충신(六忠臣)의 의리(義理)를 위한것은 여러 선생의 문집등에 자세히 실렸으니 여기에서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것 같다.

홍주의 노은원, 노량의 민절사, 영월의 창절사, 대구의 낙빈서원, 창령의 물계서원, 공주의 달전사는 모두 우리선생을 제향하는 곳이다.

선생의 출생지는 실로 노은동에서 태어나셨으며, 선인(先人:成勝)의 분묘도 그 옆에 있으니 신리의 평안한 바 다른 서원(祠院)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嗚呼自戊辰撤廢以後六忠之安靈無地土流之展誠無日迄今七十裡矣天道循環洪州士人設遺蹟保存會而郡守河俊煥以忠烈公傍裔亦極用力至昨歲秋會長李莊魯會員金烈濟諸人協議振發醴金得千圓田土若干買入爲先墓位土

오호라! 무진(戊辰:1868)년 서원을 철폐한 이후로 육충신의 영혼들은 모실 곳이 없고, 사람들이 정성을 올릴 날이 없어진지 칠십여년이 되었도다.

천도가 순환하여 홍주사람들이 유적보존회를 만들었는데 군수 하준환은 충열공(忠烈公=河緯地)의 방손(傍裔)으로써 또한 극렬히 힘을 썼다.

작년 가을 회장 이장노(李莊魯)와 회원 김열제(金烈濟)등 여러사람이 협찬(協贊)하여 천원(千圓)을 모은다음, 약간의 위토를 만들어서 선묘(先廟:成勝)의 위묘를 마련했다.

今歲丙子之六月七日即先生成仁之七周甲也就六忠祠版埋安處設壇而焚香郡守及士林三十餘人且於是日冒雨齊會設祭告由舊宅老梧亦築桓以護之

올해 병자년(1936) 6월 7일은 바로 선생께서 살신성인 하신지 칠주갑이 되는 날(1936)이었다.

육충신 사판(祠版) 매안(埋安)하신 곳에서 단(壇)을 만들고 분향하였으며, 군수와 유림 30여명도 이날 비를 무릅쓰고 일제히 모여 제향 올렸으며, 옛집터에 늙은 오동나무로 담을 싸주어 잘 보호토록 하였다.

驪陽閔公所豎遺墟碑閣朽頹已久而朴敦圭以會員特出巨額重建其閣敷地一千三百五十三坪亦買以屬之考摠管公妣朴氏及夫人金氏三墓歲久頹妃得俞忠穆傍裔興植之發議俞氏青陽一派及朴氏後裔朴氏諸宗傍裔成喬煥各出財賄封之莎之壇與墓所在林野爲他人所有者還屬于本會迺豎碑于院宇以記其事

여양 민공(閔維重)이 세운 유허비각이 썩고 퇴락한지가 이미 오랜지라 박돈규(朴敦圭)가 회원으로써 거액을 내어 비각을 중수하였으며, 부지 1,353평도 매입하여 소속시켰다.

공의 선고이신 총관공(摠管公)과 어머니인 박씨 및 부인 김씨의 3묘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으므로 유응부(俞應孚)의 방손인 홍식(俞興植)이 발의하여 청양에 사는 유씨 일파와 박씨부인 친정인 박씨의 여러분들과 방손인 성교환(成喬煥)이 각각 돈을 내어 봉분을 하고 사초하였다.

제단(祭壇)과 묘소(墓所)가 있는 임야가 타인명의 소유였으므로 사서 본회(遺蹟保存會)에 환속(還屬)시켰다.

이에 유허비(遺墟碑)를 옛터에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고자 한다.

嗚呼日月不墜則先生之名不墜河海不竭

則先生之澤不渴今日人士之猖蹶奔走爲先生效力者實先生忠義之所激而不顧利害慕義如渴者亦可嘉也

오호라! 해와 달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선생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물과 바다가 마르지 않는다면 선생의 혜택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인사들이 분주하게 주선하여 선생을 위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은 실로 선생의 충의에 감격함이요, 이해(利害)를 돌보지 아니하고 목마르게 의(義)만 사모하니 이또한 가상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又有一說焉故老相傳有一碑未刻者埋存院近而未詳厥由及院廢有人欲發掘爲己用則雷聲輒起遂惴惴而止今也試掘則晏然無事石亦精佳乃不復他求而用其石先生之魂義魄能感動天地留待乎今用而然歟嗚呼異哉

또, 옛노인들이 전하는 말이 있다.

미처 각자(刻字) 못한 비 하나가 서원 근방에 묻혀 알 수 없었다. 서원이 철폐되자 어떤사람이 이 비를 발굴하여 자기가 사용할려고 하였더니 천둥, 벼락소리가 나므로 두려워서 중지하였다고 한다.

그후 다시 시험삼아 한번 파보니 비(碑)가 아무런 이상도 없고, 돌도 정교하게 다듬어 있으므로 그 비에 조각하여 입석했으나 선생의 충의어린 혼백이 천지를 감동하여 오늘의 사용을 기다리게 하는 교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 기이한 일로다.

範益猥以菲才按節到此亦不無贊助之誠工既訖屬余以銘之亦不敢以不文辭焉銘曰

子而克孝乃名子爲臣克忠乃臣之義是曰秉彝極天罔墜凡爲人類好是之懿聖謨洋洋嘉言孔彰世道變幼百滄桑所不泯者惟此倫綱小子狂簡敢述銘章

丙子復月 日

忠淸南道知事 李範益 撰

洪城郡守 申昌燮 書

범익(李範益)이 외람되게 제주도 없이 본도 지사가 되었으니 또한 찬조할 정성이 없지 않았다. 공사가 끝나자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니 문장을 잘못한다하여 어찌 사양할 수 있으리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자식은 효를 하여야만 자식이라 할 수 있고,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신하된 도리를 다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병리(秉彝=하늘의 이치)라 하는바 하늘이 다하도록 지켜야 한다. 모든 인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이 하늘이 정한 법이다. 성현(聖賢)의 가르치심이 옳지 못한것이 없으니 이 아름다운 말씀이 세상에 빛나도다.

세도(勢道)가 변하여 푸른바다가 뿔나 무발으로 변하더라도 오직 사람한테서 없어지지 않는것은 삼강오륜(三綱五倫)뿐일세. 소자(小子)가 두서없이 감히 명문(銘章)을 지었도다.」

(1876) 병자복(11월) 월 일

충청남도지사 이범익 찬하고

홍성군수 신창섭 쓰다.

(6) 正六品承訓郎朴公敦圭出義碑銘 並書解說

朴敦圭는 正六品の 承訓郎이었다. 成三問先生의 遺墟碑를 建立한지 오래되어 老朽되었으므로 비가 새고, 쓰러질 地境에 이르렀다.

이를 차마 보지못하여 私財를 털어 重修하고 敷地 1,353평(노은리 114-9번지 971평, 노은리 114-2번지 155평, 노은리 114-3번지 89평, 노은리 114-4번지 45평, 노은리 114-5번지 93평: 1,353평)을 사서 회사하므로 홍주지방 사람들은 感謝하여 成三問先生 遺墟碑 옆자리

에 出義碑를 세워 그의 공로를 높이 讚揚했다.

그러나 이 土地는 遺蹟保存會의 所有로 되어있어야 함에도 1921년 10월 20日字로 廣川面 廣川里 30-3番地 石堂仲八이란 名義로 所有權이 移轉되었으니 痛歎스러운 일이다. 빠른 시간내에 日本에게 强奪 당한 成三問先生의 位土가 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朴敦圭 出義碑

所在地: 忠南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114-1番地

• 正六品承訓郎朴公敦圭出義碑銘 竝序

輕財而喜施人情難喜施而施得其義尤人情之所難也故君子之用財非其義則一簞食⁽¹⁾一豆羹⁽²⁾亦不肯與人如其義也則千駟滿鍾⁽³⁾棄之若弊사考諸往牒⁽⁴⁾可知也若我洪城履朴敦圭氏可謂輕財而施得其義者乎

재물을 가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람마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의(義)로운 일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관계로 군자(君子)가 재물을 쓰는 것은 의가 아니면 주먹만한 도시락과 한그릇의 국으로 지내더라도 사람들의 의가 아니면 천사(千駟)와 만종(萬鍾)을 주더라도 헛 신(弊屨) 버리듯 했

다함은 옛날 사람들의 모든 기록에서 짐작되는 일이다.

우리 홍성에 살고 있는 박돈규씨가 가히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의를 중히 여기에 실행한 사람이다.

(註)

(1)一簞食(일단식): 한주먹의 도시락밥

• 食: 밥

• 簞: 대오리로 만든 도시락

(2)一豆羹(일두갱): 한그릇의 국

• 豆: 나무그릇

• 羹: 국

(3)千駟萬鍾(천사만종)

• 千駟: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 萬鍾: 다량의 미곡

(鍾: 부피의 단위)

(4)考諸往牒(고제왕첩):

옛날의 모든 기록을 참고함

嗚呼梅竹軒成先生之義周之墨胎⁽⁵⁾明之正學⁽⁶⁾即其倫也昭于日月不足爲明崇乎泰和不足爲高也先生俎豆之所⁽⁷⁾非止一處而惟此魯恩者舊宅學先塋所在也

슬프다. 매죽헌(梅竹軒: 先生 號) 성 선생의 의(義)는 중국 주나라의 목태(墨胎)와 명나라 정학(正學)의 룬(倫)에 비할바 아니다.

해와 달이 밝힌 다하더라도 다 밝히지 못하고 태산이 높다해도 선생의 의절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의 제향(俎豆) 지낼곳이 비단 하나에 그칠것이 아니다. 오직 이 노은동은 옛집이 있는 부모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註)

(5)周之墨胎(주지목태): 중국의 옛날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성씨임

(즉, 백이숙제의 절의)

(6)明之正學(명지정학): 중국 명나라의

밝은 학문(正學派)의 정통성

(7)俎豆之所(조두지소):제사 지내는 곳

驪陽閔公維重⁸⁾大冢宰李公箕鎭前後設力就宅前碑而閣之時代悠邈舊跡銷歇院宇既撤閣亦頽圯士林之齋恨行路之興差久矣

여양민유중(閔維重)과 총재 이기진(李箕鎭)이 여러차례 힘을 합하여 집앞에 비(碑)를 세우고 비각까지 지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옛날의 비각이 소멸(銷歇)되고 서원과 비각이 또한 허물어졌으므로 선비들의 탄식(齋恨:자한)하는 소리와 행인들이 슬퍼(興嗟)한지 오래되었다.

(註)

(8)驪陽閔公維重(1630 仁祖 8년~1687 肅宗 13년)

조선 숙종의 장인, 驪陽府院君에 봉해졌다. 宋浚吉에게 배우고 宋時烈을 스스로 높여 고난과 영예를 같이 나눔.

今歲丙子卽先生殉節之七周甲也洪城人士前此設遺蹟保存會而朴公以會員獨出巨額重建碑閣敷地一千三百五十三坪亦買以屬之衰季之世非就義若渴者能若是乎鄉人士亦感其義就其傍琢石而記之其銘曰

올해가 병자년이다. 다시말하면 성선생이 순절(殉節)하신지 일곱번째 회갑되는 해이다.(1450년 丙子+420年 高宗 13년)

홍성사람들과 먼저 구성된 유적보존회의 박돈규(朴敦圭)회원이 거액(巨額)의 돈을 혼자 내놓아 비각(碑閣)을 중건하고, 땅 1,353평을 사서 회사하니 지금같이 슬프고 세상이 험악한데 선생의 의(義)를 추도하는 마음이 목마른 사람처럼하니 이와같이 훌륭할 수 있겠는가!

향리사람들이 그 의(義)에 감동하여 그 옆자리에 출의비(出義碑)를 세우고 찬양하여 가로되.

凡厥人情誰公易私苟惟其私只知有財朴

公之義超越常情百歲在後不珉者名刻此貞珉昭示方來百爾君子尙其念哉

洪城士林 一同

무릇 사람들은 사사일은 하기 쉬워도 공사(公事)는 하기 꺼려하기에 옛날 중국의 순자(荀子)는 자기 사사일만 알아서 재물 모으는 것외에는 아는바가 없었다.

그러나, 박공(朴敦圭)의 의로움은 보통 사람들을 초월한 것으로 백년후에도 있을까 말까하는 훌륭한 일이므로 이름이 섞이지 않도록 좋은 옥돌에 새겨서 앞으로의 세상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바이니 모든 군자들은 그 뜻을 높이 숭배해주기 바란다.

홍성사람 일동

다음호에 계속……



內院寺・洗心寺・彌勒石佛

박 문 신

* 內 院 寺

• 所在地: 洪城郡 長谷面 廣城里

광성리 오서국민학교앞 버스 종점에서
4km지점

불교사전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오서
산(烏棲山) 동북쪽 중북에 있는 고찰로
백제 의자왕 16년에 법명(法明)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한다.

법명대사는 백제 665년 의자왕 15년
에 일본 대마도에 건너가 오음으로 유마
경을 독송 강론하였으며, 일본에서 오음
으로 불경을 전파하였을 정도로 이름있

는 고승이었다한다.

중창 년대는 조선조 현종 5년, 갑진 4
월에 <康熙 3년 1664> 주지 나고스님이
김두량 시주 공양주 경신 하주 성균에
의해 이룩되었다 한다.

또한 고종 16년<강서 5년 1819> 기묘
년 9월에 용화스님에 의해 중창하여 유
지해 오다 6.25때 소실되었다. 그후 비
승비속인 박광진에 의해 완전히 훼손 되
었다한다. 절 재물은 물론 불답까지 망
실된 것을 성철스님이 되찾았다한다.

그후 폐사 지경에 있다가 만하스님이
수리하려다 좌절되고 현재 주지 허중스
님이 3년전 부터 보존 해오고 있다한다.



▲ 內院寺 圖通殿 內部

▼ 內院寺 임시 新築 大雄殿



▲ 內院寺 圓通殿에 보존되어 내려오는 탕화



▲ 內院寺 圓通殿에 모셔져 있던 애기불상

현재 원통전(圓通殿)이 붕괴될 처지이라 불상을 모실 불당을 신축하고 형편 닿는대로 원통전 자리에 대웅전을 창건할 계획이라 한다. 많은 중생들이 협조하여 유명했던 내원사의 옛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內院寺 圖通殿



- 임시 대웅전: 팔작지붕 양개와 정면 3간, 측면 2간 12평
- 원통전: 평지붕 개와 전면 2간 측면 1.5간 6평
- 불 상: 석가여래상
- 요사채: 1동 5간 12평
- 신 도: 700여명

탱화 개와 등 고증될 문 화유품이 수 점 있으며, 하 루속히 옛모 습을 되찾았 으면 하는 바 람이다. 또한 연대로 볼때 백제 부흥군 가솔들이 광 성리에 집거 했다면 백제 부흥의 염원 을 빌기위해 이 내원사에 오르내리며

기원하지 않았을까? 무수히 묻혀있는 개와편에 서 생각이 오락가락한다.

* 洗心寺

• 所在地: 洪城邑 古岩 4里

홍성 동쪽에 위치한 홍성중학교 동편 산마루에 자리한 조계종 계통의 사찰로써 대선 스님이 1971년 창건하였다.

모산 건널목 대참사 사고 후 불사로 철로변 사고 방지에 뜻을 두었고, 벽초 회노 해암 큰스님의 권유로 현재의 위치에 터를 잡고 절을 세우고 현재에 이르렀다. 길으로 내비치는 것보다 조용히 수도의 길을 걷고 싶다는 대선스님의 소망을 알듯도 하다. 모름지기 불도의 진리가 아니런가! 김대선스님의 신심이 두터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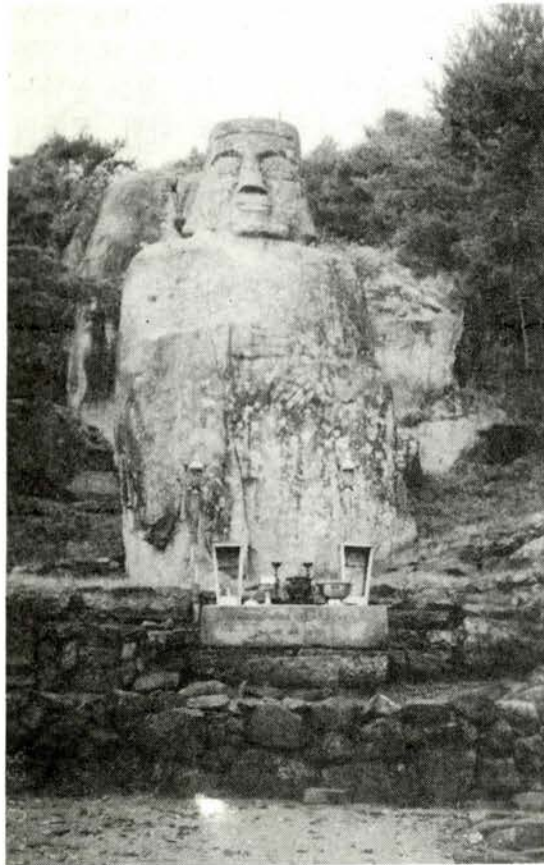


▲ 洗心寺 大雄殿

- 대웅전: 정면 4칸, 측면 1.5칸
20평, 팔작개와
- 불 상: 관음보살상
- 요사채: 20평 평옥
- 주 지: 김대선(金大善)
※ 청양통 역재방죽위 정상에 있음

✱彌勒石佛

• 所在地: 洪城郡 洪北面 上下里
용봉국민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500m
쯤 용봉산정을 향해 오르다보면 우뚝 솟
은 미륵석불을 볼 수 있다. 그 옆에 조그
마한 암자가 눈에 띈다. 3칸 개와 평
옥으로 관음불을 모신 비승비속의 암자
로 보인다. 주지는 양명학 20년전에 창
건했다. 보살의 취재방해로 자세한 내



▲홍북상하리 미륵불상

용은 알아내지 못했다.

미륵불상 앞에선 계시판 내용문을 실
어본다.

■상하리 석불입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7호

거대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조각한 이
석불은 고려시대의 토속적인 지방양식이
잘 드러나 있다. 소발(素髮)의 머리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낮은 코, 비교적
작은 입 등이 얇게 부조하여 평면적이고
양감을 주지않지만, 입가에 표현된 희미
한 미소는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얼굴에
비하여 더욱 평면적이어서 가슴 부근에
두 손을 아래위로 나란히 대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각은 거의 생략된 소
박한 조각품이다. 이 불상과 같이 자연
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불신을 조각하는
수법은 안동 이천동 석불상, 파주 용미
리(龍尾里) 석불상, 광주 용머리 석불상
등등 시대의 불상에 자주 보이고 있으
며, 전체적으로 풍기는 토속적인 지방양
식은 관촉사 미륵불상 입상이다.

대조사(大鳥寺) 석조미륵 보살입상,
괴산 미륵리 석불 입상 등 충청도 지방
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거상(巨像)양식과
도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석상 높이: 25척



▲상하리 미륵암
-지붕너머로 미륵불상이 보임

白冶 金佐鎮將軍의 書堂生活

이 건 업



⌒ 부춘서당 (김좌진장군이 수학한 서당)

白冶 金佐鎮장군의 선생님은 김동익(金東益)인데, 선생은 홍주목 고남 상도 부기 104번지로서 現 갈산면 부기리에서 생존하셨었다.

김동익 선생은 1842년 4월 17일 탄생하셨고, 유아시절부터 총명하였고, 매사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성격이었다.

김동익 선생이 한문수학을 할때 특히, 사서삼경을 달통하여서 1863년도에 관통훈대부용양위부사관(官通大夫龍驤衛副司果)의 직함을 받은 선생은 홍주목 고남 상도 부기 자기 집에서 서당을 설립하였고, 훈학을 하였다.

現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신기부락 본 자택에서 김좌진은 말을 타고서 십 이삼세(12,3方)경에 고남 상도 부춘 서당 김동익 선생님께로 한문

수학을 하러 다녔는데 지능이 월등하고 다른 동점보다 재주가 탁월하여서 한문을 한번 선생이 가르쳐주면 잊지않고, 일사천리로 달통함으로 선생께서 감동하시며 동점들도 참으로 감탄하고 감동하였다.

공부를 하다가 노는 시간에는 동점들하고 전쟁놀이를 위주하는데 아군과 적군으로 상대방을 갈라서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놀이 방법으로 진두 지휘 하였다 한다.

특히 밤에 공부를 하다가 노는 시는 복병을 하여 포위작전하여서 항복을 받는 병법을 관통한 전쟁놀이를 하였다.

또 자기 馬을 갖고 다양한 전술법으로 연습을 하는데 先天的으로 병법을 운용하는 지혜가 탁월한 유년시절을 김동익 선생의 훈도아래 키워 나가고 있었다 한다.

김좌진은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힘 자랑도 하였는데, 그 힘 자랑은 동아줄로 줄 당기기, 풀매 던지기, 큰 돌덩이 던지기, 멀리뛰기, 팔씨름, 외발거리 싸움, 창던지기, 돌덩이를 던지었다 받았다 하는등 실로 범인이 따라 할 수 없는 초능력이 있었다 한다.

여름철에는 당음(唐音)을 읽다가 달은 밝고, 고요한 달밤에 동점들하고 씨름을 하였으나 당할 장사가 없어서 또는 외팔거리로 김좌진은 상대를 하여도 도저히 이길수 없고, 똑

같은식으로 좌진과 씨름을 하여보아도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었다 한다.

白治 김좌진 장군이 부춘서당에서工夫할때에 점장인 김태환(金台煥)은 1881년 8월 12일에 부곡 104번지에서 탄생하였고, 김좌진의 은사 김동익 선생의 장자다.

白治 김좌진 장군의 동문들은 金台煥·金佐鎭, 李桓星, 李桓式, 金在鎭, 金忠煥, 金應煥, 金興俊, 金吉煥, 金仁錫, 張世云, 李允終, 金邊, 金仁秀, 李桓翊 15名들이 同居同樂(동거동락)을 하면서 은사 김동익 선생을 모시고 동문들은 열심히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다.

부춘서당에서는 千字에서부터 계몽편,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시전, 주역, 즉 15名 동점中에 사서삼경까지 수학을 하였고, 자기가 수학하는 冊에 대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도,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가 수학하는 冊을 꼭 암송을 하여야 했다.

시(詩) 운자를 내 놓고서 시를 짓고서 평가를 하여서 장원이 평을 하고 글씨 쓰는 필체법을 지도하는데, 붓잡은 법과 글씨를 쓰는 법, 글씨체의 간격, 줄맞추기, 글씨체에 대하여 정자, 반초서, 초서등 다양한 묵화도 지도를 하였다. 또는 묵가는 방법은 팔의 힘으로, 글씨를 쓰는 힘은 용(龍)을 잡는 용기와 글씨는 힘껏 정신통일을 하기 위하여 지도하였다 한다.

특히 예법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니 당시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정리해 보면

—예법(禮法)에 대하여—

● 冠禮와 婚禮

六禮 諸婚과 許婚 諸婚狀 四柱書式

清吉(혼인일자) 衣製 納幣 婚書紙書式 尊雁禮와 婚禮床 尊雁 親迎 交拜 新婦가 傳 父母任에게 人事法

● 喪禮法

初終 收屍(수신) 臯復(사제밥) 복복 3청(상에다 밥 3사발, 신 3켢레) 돈을 門밖에다 놓는다.

● 死亡한 節次

발인절차, 장례절차, 장례후 3년상까지 절차, 기 제사法에 대하여 제방법, 祝文法, 祭禮진설法 祭禮의 節次, 10월에 時享(시향) 또는 時製一切 法에 대하여도 교육하였다.

人間은 만물의 영장이요 동방 예의 지국이라 하는 한국민으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이 있는만치, 5윤3강에 대하여 철두 철미하게 禮法을 김동익 선생께서 다각적으로 지도하였다 한다.

白治 김좌진 장군께서는 김동익 선생에게 工夫를 할때에도 서민적이고 동점들에게나 他人에게도 친절하게 대화를 하시고 국가 민족사상이 투철하여 강직하시고 군주주의사상은 절대로 반대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하기 위하여 범 국민운동으로 실천행동을 노력하는 一人者였었다.

白治 김좌진 장군은 양반 쌍놈을 구별하여 차별대우가 막심할때에도 같은 한 민족간에 도저히 있을수 없다 하여 고심하다가 우선 자기집의 노비문서를 내 놓고서 문서를 불에 태워 그 자리에서 그간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노비들에게 치사하고 그 취지를 말씀을 다 하고 노비해방을 선포한후 집과 논 밭을 무상으로 다 식구에 의하여 공평히 분배를 하여 주었다.

그러함으로 白治 김좌진 장군은 우리 한 민족으로 민주주의의 선각자

요, 선봉자였다 할 것이다.

白治 김좌진 장군은 한 민족의 긍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육영사업에 관심을 갖고, 내 지방에다 학교를 창설을 하여서 많은 人材를 배출고자 각오를 갖고, 1873년도 갈산면 상촌리 現 갈산中學校 西便 담장옆에 10m거리지점에 있는 瓦家(와가)에다 교실로 개조하여서 호명학교로 稱하고 창업하여 학생들을 입학해 놓고서 특히 한 민족사에 대하여 교육을 重点으로 하였습니다.

白治 김좌진 장군의 은사 김동익 선생께서는 現 갈산면 (고남 상도) 부기리(부곡) 104번지 자택에서 1810년도에 初代面長으로 行政事務를 수행하였음으로 그후 面行政을 잘 善政하여서 취생리(영굴앞) 국도로 승강구앞에다 善政碑를 立石하였다.

김동익 선생님의 長男은 金台渙인데, 아버지 앞에서 한문수학을 잘 배워서 사서삼경을 달통하였고, 교양을 잘 받아 아버지 교훈을 이어 받아 자기 집에서 서당을 開設하여서 많은 弟子를 養成하고 후진 人物을 育成하였고, 風水地理에 전승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덕을 베풀었다.

김동익 선생님의 孫子는 金基遠이고, 曾孫子는 仁鎬, 文鎬, 斗鎬인바 仁鎬는 曾祖父와 祖父님의 教育을 잘 받고서 漢文을 修學하고서 祖父님의 風水地理學을 敎友님에게 수학하여 전승으로 연수함으로 只今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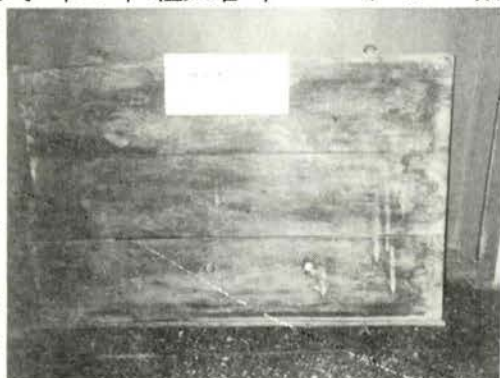
가장 귀중한 것은 白治 김좌

진 장군이 은사 김동익 선생님 앞에서 글씨를 쓸때 벼루 2點과 冊 4卷을 金仁鎬, 金文鎬 兄弟分이 지금까지 보관한것을 서기 1992년 10월에 회사를 받아서 白治 김좌진 장군의 生家를 복원한 방에다 진열하여서 많은 參拜客들과 귀빈들이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ㄱ 김좌진장군의 유품 (벼루2점과 책4권)

白治 김좌진 장군께서 갈산면 부춘서당에서 김동익 은사님을 모시고 修學하신 생활담을 동문수학한 동점들의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좀더 체계적으로 장군의 유년시절 및 일대사를 정리하는 후학들이 태어나 장군의 생가지에 보관됨으로써 민족의 등불로써 꺼지지 않는 기상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한결같은 염원이라 할 것이다.



ㄴ 호명학교에서 사용하던 휴판

가칭 「홍주향토박물관」이란 전시관을 설치코자하는

홍주인의 발원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며 본 편집실에서는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유형문화 유물들을 찾아 발굴 정리한다.

도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조상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꿈꾸며
이번호에는 시대별로 몇점씩 정리해 본다.

[자료 29] 토기 장경호

백제 토기의 전형적인 질박함과 안정
감은 태토가 거칠은 적갈색의 무문토기
라는 점이 백제의 여유와 풍요를 더해
주는것 같다.



여유있는 배면과 길지도 짧지도 않은
목은 백제인의 덩치만큼이나 만만하다.

[자료 30] 파수부완(把手附盥)

파수부완(把手附盥)이라 칭하는 이 컵
은 큼직한 것이 무엇을 따라서 마셨을것
으로 짐작된다.



승냥이라면 따뜻하게 배를 채울 것 같
고 술이라면 가슴이 화끈하게 목덜미를
축일수 있는 여유있는 잔이다.

자세히 보면, 외배면의 곡선은 여인의
히프인 양 탐스럽게 까실거린다. 야하지
않으면서 포근한 잔 하나의 모습에서 조

상의 채취와 생활을 음미하면서 이땅에 살았던 백제의 혼은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이 실감난다.

[자료 31] 청자사발

청자사발은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강진 앞바다에서 활동하던 장보고의 영향하에 청자번조 기술이 전파되므로써 피어난 자기문화이다.



지방호족과 부유한 상류계층이 소비하던 청자문화는 후에 조질(粗質)의 값싼 청자가 서남해안일대에서 생산되어 일반 백성들의 수요를 충당하게 되니 내포지방에서는 성연면 오사리와 천북면 사호리에 청자 가마터가 생기게 된다.

태토에 모래 등 잡물이 섞이고 번조한 뒤에 기공이 많은 점 등, 치밀하지 못하고 유약도 희유와 흡사하여 그 색이 녹갈색을 머금고 있는 천북 사호리 출토 청자대접이다. 하지만 햇무리굽의 귀족성 취향의 알팍한 청자완보다는 투박하지만 여유있고 거칠지만 살아갔던 조상의 땀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이 청자대접은 보면 볼수록 의연하기만 하다.

[자료 32] 분청 인화문 대접

상감청자라는 세계 초유의 예술품을 만들어왔던 고려의 귀족문화도 쇠퇴하고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청사기라는 독특한 도자문화를 형성하는데 조질의 청자 태토에 상감기법의 맥이 이어지면서 백토 화장이라는 유약처리 과정을 통해 분청사기는 조선전기를 장식한다.



이 대접을 인화 국화문이라는 상감기법에 외면에는 백토분장에 귀얄칠로 처리되었다.

[자료 33] 백자양기

분청사기의 백토분장은 궁극적으로는 백자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조선초에만 출토되는 이 부장품은 일명 소꿉이라고도 하는데 분청사기 기법이지만 백자와 같이 백토분장이 온몸에 다 되어 있어 백자와 같이 표면이 희게 되었다.

분청사기는 16세기 후반 결국 백자에



흡수되고 임진왜란이라는 도완전쟁을 통해서 전국의 가마는 파괴가 되고 많은 사기장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만든다.

[자료34] 청화백자 석류문 항아리

전기의 도마리 백자에서부터 중기의 금사리 백자, 후기의 분원리 백자에 이르러 조선 고유의 맑고 깨끗한 선비사상을 다시 한번 광명문화로 꽃피워 놓은 듯하다.



자료 34는 분원 특유의 담담하고 청아한 담청백자에 청초한 쪽빛으로 거침없이 그려놓은 석류문은 가히 일필지하다.

흐트러짐 없는 한번의 손놀림!

쪽 뺀어 용출하는 석류가지는 자손만대 아들만 낳아달라는 사대부인의 염원인듯 두둥실 떠있는 달만큼이나 풍요한 꿀단지처럼 내방에 모셔 놓았을 듯한 향아리이다.

[자료35] 청화백자 석류문항아리

1883년 관영사기공장으로서의 분원이 민영화되고 산업화된 도자기들이 다량



생산됨과 아울러 지방에도 민간 경영의 가마터가 난립하였다. 마무리가 단정치 못하고

태도 역시 질박한 퇴락된 백자가 만들어져 위의 자료와 동일한 지방가마 청화백자는 손쉽게 맥이 탁 풀린것이 세기말적인 도공의 손때가 완연하다.

[자료 36] 백자 완

일본 서구열강들의 침투로 인한 조선 사회의 격심한 변화로 급기야 일본제국



주의 침략으로 식민지 국가로 전락되므로 인하여 도자기 문화는 격심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수탈의 역사

가 시작된다.

탕기로 이용했던 지방가마 백자완은 4~5개씩 한조로 모양새를 같이하고 있어 그릇의 전쟁까지 일으켰던 일본인들의 다기그릇으로 각광을 받게 되니 탕기로 사용되던 조선 백자완은 풍신수길의 찻그릇이라도 된양 일본인들의 수중으로 수없이 넘어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려청자 및 이조백자를 공부하려면 일본에 가봐야 된다는 현실로 문화재를 수탈당했다.

[자료 37] 항아리

일본의 왜사기들의 상품이 시작되면서 조선백자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양은 그



릇의 유행은 조선백자를 완벽하게 박살내놓았다. 결국 사기장들은 전국으로 흩

어지고 왜사기는 녹색, 청색, 붉은색으로 화조를 그려놓은 화려함으로 삭막한 암흑의 시대를 걸치려 한다.

그래도 민족의 숨결은 따뜻한 것인지 왜 사기에 그려놓은 도식화된 목단꽃도 자유분방한 유희가 있으니…….

지금은 아파트 진열장속에서 엄마의 채취를 느낄수 있는 가전품으로 장식되고 있다.

[자료 38] 청화백자용병



청화백자용병과 같이 도식화된 그림의 퇴색된 청화백자도 조선의 것이라면 물, 불을 안가리는 일본인들의 무지한 욕구와 눈을 속이기

위해 왜정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생산되고 있다.

[자료 39] 옹기초밥

간장이나 식초 등을 따라 먹던 옹기로 써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별에 말린 뒤 깃물을 입혀 구운 옹기는 그 또한 민족의 애환과 함께 아직도 시골집 뒷걸을 지켜 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자문화 유산이다.

바탕이, 자배기, 푼주, 단지…….



듣기만해도 구수한 시골집 사랑방 문화도 이제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식기로 밀려나가 찾아보기 힘든 현대사회는 스스로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우리의 혼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왔다.

[자료 40] 오지 양념그릇

생활의 지혜!



부엌용구 외에도 필통, 연적, 벼루, 문진, 등잔, 촛대, 화분, 화로등 무수한 실내용구를 오지로 만들어 사용했던 탓에 옹기그릇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수집가가 정착되는 이 시대에서도 많은 오지그릇이 상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분명, 오지그릇도 청자와 백자사이를 수놓았던 분청과 같이 백자와 이 시대의 도자문화를 이어주는 오지문화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소중히 간직할 필요가 있다.

결성농요 (結城農謠)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남 결성농요”

黃 性 昌

결성은 선사시대부터 원시농경문화가 싹트기 시작하여 삼한시대에는 고비리국(古卑離國)이 형성되었다. 천수만(淺水灣)유역의 아늑하고 조용한 지대에 내포문화(內浦文化)를 키워오면서 고대 결성문화의 터전을 금곡천(琴谷川)과 신금성(神衿城)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의 발상지라 한다. 백제(百濟)시대는 결기군(結己郡)이었고, 통일신라(新羅) 757년에는 결성군(潔城郡)이라 고치고, 신읍·신양·흥양(新邑·新良·興陽)등 3개현을 관할한 유명한 고도(古都)이다. 그후 조선(朝鮮)시대에 홍주(洪州)목에 예속된 현(縣)으로 강등하여 점차 쇠퇴하고 왜정시 1914년에 홍주군과 결성군이 합쳐서 홍성군(洪城郡) 결성면이 된 지역이다. 이곳은 특히 석기시대 유적인 지석(支石)·입석(立石)·부석신앙지(浮石神仰址)와 석실분(石室墳)등이 많고, 백제때 창건한 고산사(高山寺; 보물 399호)를 비롯하여 고려말에 신금성에서 이축하여 강희 4년(1665) 다시 이진한 결성동헌(東軒)과 책실(冊室) 그리고 국내 유일한 형방청(刑房廳), 또한 고려 현종 원년(大中祥符三年, 1010)에 창건한 향교(鄉校)와 백제때 창축한 신금성(神衿城) 또는 읍성(邑城)과 고대 서해안을 지켜온 고산봉수대(高山烽燧臺)와 불교시인, 독립운동가 한용

운(韓龍雲)선생 생가지, 형산리 용대기등 백여개소의 국보급 문화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어 그 복원과 보존의 문화 민속면으로 조성중에 있다. 이 지역은 일찌기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어 놀이문화가 거듭 발전하여 피로를 즐거움으로 승화하는 한마당 놀이로 변신의 놀이문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조선 영조(英祖)에 최고로 유명한 결성현 성남리 출신 판소리 대가 최선달(崔先達)과 용호(龍湖)거주 김창룡(金昌龍)명창들의 후예들이 즐겨 불려온 소리는 이 고장을 명창의 고장으로 전승(傳承)되어 왔다. 한말을 전후하여 읍내 김주경, 금곡 김증실·최유선, 성남 김천만·정천봉(도여)·최화순·조기연·고유봉등의 창이 뛰어 났으며, 왜정때부터 점점 들노래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완전히 사라진지 50여년이후 1988년 11월 15일 농민요 보존회장 이소라(李素羅)문화재전문위원이 직접 순회 채록중 농요가 다시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금곡 최광순·최용권·최용환과 성남 최천준·최양섭·정학재·최환섭등의 소리를 녹음하면서 유장한 상사리소리와 얼카덩이리 소리, 두레소리 등이 본 고장의 소리임을 고증하였다. 이 농요의 발생지인 결성에서 보령방면 또는 예산·서산등지로 전파된 증거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였

고, 또한 '89년 11월 28일 이회장은 또 결성노인회(회장:배관제 73)에서 이 유일한 소리의 발굴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그 보유한 소리들의 한층 더한 발굴요청은 결성 문화재 보호회(회장: 김청규 57), 부회장 황성창(58)이 더욱 적극성을 띄고 나왔다. 황부회장이 '90년 5월 12일 문화부 농민요 위원(지도제작)에 위촉된 후에도 계속하여 모시고, 논매는 소리 어덜덜덜 상사리 반복형과 얼카덩어리, 어기여하등을 (百濟인들의 原音이라고도 전해온다.) 총정리하고 손수 창안과 총체적인 지도에 앞장섰다. 또한 주로 성남 노인들이 보유한 두레소리를 중심으로한 산여·마루·면성이·몬들산여등의 긴소리들은 비교적 까다롭고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청의 된소리로 무척이나 힘이든다. 노인회에서 잃어버린지 오랜소리를 '91년 1월 20일부터 최양섭·정학재·최환섭·최광순·김학인·이이환씨등을 매일같이 참석시켜 3개월간 계속해서 농협과 경노당에서 연습을 하고 3월 30일 성남 박복순(83)씨를 방문 면성이 음정 지도를 받고, 4월 26일 복원된 소리를 녹음하여 채록부등을 보존회에 보낸후 고귀한 농요라고 평가를 받고, 보존회 이회장의 또 하나의 농요 발표회 요청에 6월 26일 11시 결성노인회원 40여명이 참여 현지 물논에서 직접 농악단과 소리꾼 머슴들 등이 서로 어울려서 삼배등거리, 잠뱅이 옷을 입고(형산리 용대기놀이 보존회장 박복선장비 지원) 이회장을 비롯하여 군내 각급 기관장과 주민 2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옛모습을 최초로 재현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용대기의 용신제를 간단히 하고 논으로 가서 모를 심는 과정과 논을 매는 건쟁이·아시·두벌·만물까지 매고 돌아오고 꽃서며 놀고 나서 논농사의 타작(벼바숨)장면을 개상과 자리개질로 마치고 바람에 잘들여서(까불러, 바람에 날린다.) 가마나나 섬에다 말로 되어 넣는 말되는 소리로 한마당 끝이나는 순서이었다.

농요의 이름은 이회장, 김청규, 황성창 3자 합의하여 역사의 고장 결성지방농요로 "결성농요"라 명칭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문화부 초청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약 1시간동안 결성노인회원 40명이 참여 "제2회 농민과 함께 들노래를" 주제로 국내외(國內外)음악전문가들과 1천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용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좌상을 모신자리에서 간단한 "고시례"를 하고, 논을 향해 농악을 선두로 농구를 다 갖추고, 논에서 모를 심는 장면과 소리로 한참을 마치고 다음 논매는 과정의 건쟁이와 아시·두벌·만물후 벼타작 장면을 설치하여 개상과 자리개질 소리를 마치며, 말되는 소리로 끝이나는 두번째 공연을 마쳤는데, 이 유명한 소리가 이같이 촌노인들에 의해 보존

된데 대하여 모두들 감탄하였다. 각 방송, 신문등 전 매스컴들은 계속되는 보도로 온통 떠들법석하였고, 공연직



습 용 신 제

후 KBS에서 소리꾼만을 출연 요청했는데 여러가지 경비난에 필자가 거절을 했다.

홍성군 이상선 군수는 즉시 본 군의 최고 으뜸 사업으로 책정하여 지원계획과 계속 보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욱 유명해진 이 농요에 황부회장은 적극적인 학문적 배경을 살리고 미흡한 소리부분을 거둬 발굴하며 지도해 오면서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 KBS 민영희 아나운서와 인터뷰 방송이 있었고, 11월 4일 오후 5시 이소라회장 인간시대 촬영편에 출연한 바도 있다. (“祝 들소리 제3호 발간 및 홍성군 결성 농요단 탄생” <변호사 이근일 1월 24일>) '92년 1월 30일 지대기 소리보유자 구수동, 조종락(80)씨를 찾아 4일간 연습과 4월 10일 교촌 이신기(81), 김학인씨를 방문 보유한 개상질의 자리개질소리를 일주일간 연습하여 복원된 녹음 채록부를 보존회에 부송한 바 있다. 이곳 결성농요가 논농사와 밭농사등의 다양한 여러 분야의 농요가 있으나 우선 대표적인 논농사만의 진행과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성지방에서는 대개 공동작업인 두레나서 동리장(洞里長)이 징을

饗 實賴 孔休 修陳非禮 尚
居生康吉 六畜興旺 百穀豐稔
伏願尊神 俯迎微誠 眷我一洞
某敢昭告于
維歲次某年某月某日 干支

神木祭 祝文

게 세번 울리면 동민 즉 두레군들이 모인 다음 동리신목제(神木祭)를 지내는데 동민의 안녕과 풍년을 제로

좌상이 제주가 되어 초헌(初獻)을 하고 고축(告祝) 축묘재배한다.

다음 순서로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마치면 침작하고 일동 재배한 후 음복하게 된다. 한마당 신바람나게 놀고 용대기를 동리 중심 4거리 대로변에 세우고 앞에 좌상을 모시고 용신제를 하는데 수머슴은 소지(燒紙)를 올리고 상쇠는 농악을 멈추고 고사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대기전 비나이다. 사해 용왕님전 비나이다. 금년 농사도 대풍으로 점지하여 주시고 우순 풍조하고 시화연풍 국태민안을 간절히 비나이다.” 하고 일동 재배한 다음 두레군들은 두개의 영기(令旗)를 앞세워 두패로 갈라서 농악군을 선두로 농군들은 다같이 샷갓춤을 추며 논으로 간다. 일년 농사의 시작인 모짜리한지 4~50여일이 지나면 모를 심기위해 모자리 판에 늘어서 모를 찌기 시작하는데 수머슴은 “모덜찌세”하면 “예”하면 선소리로



습모내기

1) “철부덕 철석궁 하더니 모한침 찢네” 엄손은 밀고 잔손은 당기고, 시작이면 반이라니 금년농사도 반농사는 지었네, 철드럭궁 철석하더니, 또 한침 찢네. 여보시요 모쟁이들(한침) 아까심으로 건져내어 고루 퍼서 모를 심어보세. 모를 다 찢으면

모를 심게 된다. “자-모덜-심세” 하면 “예” 하고 선소리로

2) 어덜덜덜 상사리 어덜덜덜 상사리에 헤-어여루 상사아리여- 하면 일동이 받아서 반복한다. 다음은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 심어 보세 어덜덜덜 상사리 반복후

이논배미 얼른심고 장구배미로 넘어를 가세.

오늘 해도 다갔나 보다 골목 골목에 연기가 난다.

жат은 소리로 일손을 재촉하며. 아까심은 부처심고, 어덕밀은 떼어 심세. 수머슴이 다 심었네 하면 잠시 쉬었다가 모심은 후 보름 후에 손으로 풀을 훑쳐서 뽑는 일을 한다.

3) 자 건쟁이 하세 “예”, “어기여하 어기여하 어기여하.” 저 쪽이 피포기 어기여하, 이 쪽에 올망대 어기여하. 마무리 단계가 되면 жат은소리로. 무정 세월아 어기여하 가지를 마라. 어기여하 아까운 농군들 어기여하 다 늙어간다. 어기여하. 가운데는 어기여하 청처집하고 어기여하 양배리는 어기여하 싸게 나 가게나. 똥아리 몬들을 한다. 다음은 비가 갑자기 많이와 냇뚝이 터져서 위급한 상황에 가래로 물매기를 하는데 가래질 하세 하면 “예”



습 집 매 기(건쟁이)

4) “어낭천 가래호 어낭천 가래호” 천지조화로 무너진 뚝을 어낭천 가래호 한탄을 마소 근심을 마오 어낭천 가래호.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완공이 되었으면 다 막았네 한다.

작업도구를 가지고 농악과 함께 한바탕 논다. 다음은 호미로 본격적인 아시매기를 한다.

5) “얼카-덩어리-얼카-덩어리” 하고 수머슴이 “시-들어들 보시오 이논은 너무 젓어서 최상으로 하는게 어떻소?” 예. 무정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얼카덩어리 아까운 농군덜 다 늙어간다. 얼카 덩어리 몬들시에는 жат은 소리로 얼카탱이- 얼카탱이로 다 땀네 한다.

아낙네들이 썰 참 술과 간식을 내온다. 고시례를 하고 맛있게 먹고, 한참 놀기 위해 지게놀이를 한다. (지게 상여 놀이로 두개씩의 지게를 연결하여) 상여 소리를 하는데,

6) “허-허-허, 허허 이노하, 허-허-허 허허너이 노-하” 허-허허어이노하, 허지중천에 뜬 기러기, 울고가는 저기러기, 칭칭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요내가슴엔 수심도 많다. 자 많이 놀았으니 일덜하세- 예 논뚝으로 다같이 간다. 두벌 매세하면 “예”

7) 산여소리를 선소리로 “오-가-네-헤 헤 이이여 어허어 상대-상앙대-에-이-여” 사앙대-헤예헤.

8) 좋다-얼씨구 절씨구 오동목판 거문고는 줄만 골라도 소리가 낭네. 헤헤 반복후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들 마라 예-헤.

9) 두레소리 선소리로 이여-이여-어-어이-히- (받는 소리를) “좋다 얼씨구 절씨구 폐랭이 꼭지에다 기화를 쫓고 해오래기 춤을 너울너울 춘다.

10) 몬들 소리로 “이-헤-에 헤-에 헤-이-여” 가운데는 칭치짐하고 양 베리는 허위 허위하세. 몬들하여 다 매면 만물을 한다.

11) 만물덜 하세. 하면 마루 소리로 “오-아 아 아- 아- 아하 하 에-헤 헤 오 호” 받는 소리로 좋다. 얼씨구 절씨구 기와장은 다 부서지고, 석가래만 남아구나. 예 헤 좋다. 청용산 봉화대 봉줄들아 왜구놈들을 조심해라. 반복후 좋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생각나는 게 임 뿐 일세. 예 헤-

12) 면성이 헤-에. 헤-에 헤에 어 이 오-호 좋다. 얼씨구 절씨구 산도 설고 물도 선데 누굴 찾아 나 여기 왔나- 오호-

13) 몬들 소리를 반복한다. 몬들하여 논을 다 매면 다땀네 하고 손을 들어 “어-”하고 소리친다. 농군들은 논에서 나오며 농악은 구성진 가락으로 들 마당을 향해 오면서 소리로

14) 예기여라 종개 종소(선소리) 받고 주는 흥겨운 춤을 추며 마당에서는 소년의 무동춤과 4동의 꽃을 서며

15) 오-오-오- 하는 소리를 계속 하며 신바람나는 놀이로 이어진다.

논농사의 매가꾸는 일이 끝나고 동내로 돌아온다.

잠시 쉬었다가 벼가 잘 자라서 다 익으면 수확하게 되는데 논에서 벼를 빈다. 벼빌때 소리는 후두둑 후두둑 비는데 산타령으로

16) “어이기 나누. 나누- 어이기 나-나 이에 어허사나 이로구나” 받음소리 “산아 산아 수양산아 하아 눈 비 맞아서 백두산 이로구나” 자진산 타령은

17) “에 에 헤에야 어허디야루 산 이로구나, 벼를 다벼서 말르면 타작하기 위해 바습마당으로 지게로 저

나른다(두지게거리등) 지대기 소리를 하는데

18) “헤헤헤 헤이야 허허 넘차 넘어간다.” 받는소리로 이산고개 넘어가면 또 한고개 닥쳐오네. 오동추야 달밝은데 님 생각이 저절로 난다. 타작마당에 벼토매를 다 지나르면 타작을 시작한다. 개상을 바습꾼 인원수에 맞추어 적당히 설치하고 맞바습 (서로 마주 보면서)을 하며 자리개질 소리로



습지개놀이

19) “들왔나? 어이.” “참나무 개상에 에야헤 닭잡고 술먹자 헤 헤 헤에이 에. 헤야, 에이나 하 헤” 들왔나? 어이 “저건너 갈미봉 에야헤-소나기 삼형제 건몰어 들어온다. 헤헤헤, 어이 에헤야, 에이나-헤, 자리개질이 끝나면 건불을 모아 도리캐로 뚜드리는 작업인데 도리캐를 인원수대로 가지고 양편으로 갈라서 마주보며 도리캐질을 하는데,

20) “어해, 어해, 어해 여기봐라 여기, 어해, 어해, 상도리캐는 박으로 골메고 또 안으로 쓴다.” 소리를 반복한다. 타작이 다되면 마당을 접고 죽가래나 나래로 벼를 모으고 벼누리를 죽가래로 퍼던져 바람에 날린다. 죽가래질 소리로

① 이-이-이-이. 소리를 반복하여 다드린 다음 굵어 모아서 가마니나

섬 또는 맥장이에 말로 데여 담는다. 말데는 소리로

② 하안마알, 두우마알, 서어말 여얼말을 한다. 여얼한마알…… 스므마알…… 서른마알 한다. 가마니 섬등을 묶어(포장)등짐을 지고 곡간에 놓으며 한섬 또는 두섬, 서른말 장정 등 힘자랑을 하며 끝난다. 술을 먹고, 집누리하고 수일내에 집지붕(개초)을 다해야 하는데 머슴들은 나례를 엮고 또 용고새를 엮은 다음 집지붕을 말끔히 해이루면 일년 농사일은 다 마치게 된다. 이외에도 같은 지역이면서도 용천(龍川)지역에서 만물소리로,

③ “어이 얼싸 어루화 삼마야화라 두리 두리 둥개 둥개 내 사랑아 에헤야”

④ 잣은 만물소리. 맷돌 소리는 에 화 맷돌이야 또는 얼카 메뚜리 등이 있는데 이곳 본고장 소리가 일부 변했거나 타지역에서 들어온 소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습 만 물

결성농요가 금년에 전국 제일의 소리꾼 무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원동기는 황부회장의 지난 5년간에 걸친 그야말로 일구월심의 발굴과 세심한 지도와 창안에 기인한 소재를 군공보실 전옥진 계장의 전적

인 주선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추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2년 1월 6일 농민요보존회 정회원 입회(김청규, 황성창) 10월 17일 오후 2시 제3회 농민과 함께 들노대를 초청받아 참석 '93년도 제4회 대락로공연 출연약속. 11월 23일 오후 1시반 KBS 大田의 “홍성을 아시나요”에 필자와 소리꾼 최광순씨, 최양섭씨가 출연 유명해진 배경등 대담과 소리로 생방송이 있었고, 12월 1일 MBC 최도영 PD들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녹음하여 기록보존토록하고, '93년 1월 4일 민속 경연대회 출연 계획을 군공보실 전옥진 계장과 착수. 1월 18일 충청남도 송해은 사무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연합의함. 충청남도는 임동권박사등 심사위원협의, 2월 8일 도 송사무관·정인삼 1차 심사(남당 요담), 2월 17일 출연. 농요 단원 결성노인 중심으로 농요의 배경과 소리꾼, 농악꾼, 머슴, 아낙네등 150명 선발명단 제출. 2월 25일 12시 농민요보존회.

'93정기총회 (전북 익산 농요보존회관) 春光 배동순·也石 박희선선생과 동행. 결성농요대표로 진전 과정 설명과 34회 민속경연대회 출연가능성 발표와 보존회 '94정기총회 결성유치 확정. 3월 18일 전국대회출연 확정 통보 입수. 4월 6일 출연확정통지공문(홍성군). 4월 9일 농요 관계자 회의(1차). 4월 12일 연출계획차 송사무관과 정인삼 출장. 7월 3일 11시 결성농요와 두레 현지물논에서 40명 시연. (한국민속학회 김태곤 교수팀) 신목제(神木祭)를 마치고 농악과 함께 시연 세부 촬영.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확정 공

고되었다.

충청남도는 5개종목 검토대상으로 ① 홍성군 결성농요 ② 논산군 어성 두레 풍장 ③ 당진군 고대리 풍어제 ④ 예산군 갈산리 장승제 ⑤ 금산군 어재리 기우제놀이등을 검토하여 민속전문가들의 8대 2로 결성농요가 선정되어 충남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당초 극심한 어려움이 겹쳐 관계인 전체가 반대로 해야한다는 사람은 이 일을 끌어온 황성창·김청규뿐이었다.

과연 결성농요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금치 못했으나 막상 2개월이상 연습해야한다는데 찬성하는이 없고, 심지어 당해 면장부터 더욱 반대했다.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에 공격도 심해 너무나 난처했다. 수차 이장(里長)회와 대책회를 열었으나, 상록회장(조광성: 50)이 이장님들이 반대한다고 안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점차 하나둘씩 참여로 너무나 어려웠던 4월부터 6개월에 걸쳐 50일간 종합연습하여(국민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또는 공주 공설운동장 잔디밭에서 1박 2일간 출전 연습과 EXPO도 관람) 10월 5일 결성중학교에서 중식을 마치고 군청앞 출정식을 끝으로 2시 25분에 홍성에서 출발, 5시 청주에 도착하여 3박4일간 청주체류중 밤 7시 전야제 행사로 국민생활관 경축 리셉션에 참석. 충북지사와 박태권차관과 인사와 아울러 협조요청을 했다. 금번 경연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신한국창조와 신명의 한바탕” 주제로 경연부분 농악·민요·민속놀이·민속무용·민속극등 5개분야에 EXPO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이였다. 주최는 문화체육부,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KBS주관 충청북도 청주시 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 문화재 보호 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참가종목 25개종목에 2,450여명 참가. 경연은 15개시도및 이북 5도이다. 10월 8일 마당종목 민요의 결성농요단의 소리꾼, 농악꾼, 머슴들, 아낙네, 어린이등 140명이 총출연하여 10시 32분부터 11시 2분까지 경연했다.

경연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심고, 논매는 과정)

※ 농군 복장에 삿갓을 들고, 도랭이·호미·지게·가래등 농구를 갖추고 두레로 구성된 단원은 농악과 함께 삿갓춤을 추며 들로 나가며 용신제에 참가한 후에 논을 향해 가면서 춤을 춘다. 도착하면 쓰레질을 한다. 모델심세 하면 “예”

一) “어덜덜덜 상사리” 반복형 소리를 하고 다 심으면 다 심었네 하며 한참 쉰다.

二) 건쟁이하세 예 “어기여하” 반복 후에 문들후에



습 목 매 기(가래질)

三) 갑작스런 폭우로 논뚝이 터져 물막이로 가래질 소리 “어낭천 가래호” 다 막았으면 가래를 들고 한바탕 논다.

四) 가장 중요한 아시매기위해 호미를 준비하여 논으로 들어가면 아시들매세하고 “얼카 덩어리”반복후 수머슴이 자 들어들 보시요. 이 논은 너무 많이 짓어서 최상으로 하는게 어떻소? “예”하면 어서덜매세 또 얼카덩어리로 두패로 몬들(똥아리)하면 다맨다.

五) 설참이 되어 아낙네들이 술과 안주등 간식을 차려놓고, 고시레하고 음식을 먹고 지게로 2개씩 연결하여 상여놀이를 한다.

“헤헤헤이야 허허넘차 넘어간다.” 저 고개를 넘어가면 또 한 고개가 돌아오네하며 지대기 소리를 했다. 한참 놀았으니 그만 일덜 하세 “예”

六) 만물덜 하세 “예”

산여소리.(좋다.)를 선소리로 하면
발음소리로 좋다. 얼씨구 절씨구
두레소리.(좋다.)를 선소리로 하면
발음소리로 좋다. 얼씨구 절씨구
마루소리.(좋다.)를 선소리로 하면
발음소리로 좋다. 얼씨구 절씨구
몬들산여로 양쪽에서 가운데로 와서 서로 만나면 뒤로 돌아서 다시 매여 갈매기 형태로 늘어서는 몬들산여로 만물이 끝난다.

“가운데는 청처집하고 양베리는 허위 허위 나가세”

七) 논에서 나오며 예기여라 “종계종소”소리를 샷샷춤과 농악군이 들마당에서 신바람나는 놀이로 20여 무동춤과 3동 꽃을 서서 관중과 함께 놀이의 극치를 이룬다. 쑥헛대에 불은 (화심)천지를 진동하는듯 하였으며 모든 심사위원도 수만의 관객도, 흥에 넘쳐 환희의 소리가 메아리쳤다. 오후 3시반 시상식에서 종합최우수 대통령상을 문화체육부 이민섭 장관의 수여로 결성농요가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임동권(박사) 심사위원장은 “놀이가 순수하고 고증이 잘된 다양한 민요로서 소재가 썩 좋다고.” 심사평을 하고 심우성해설위원은 옛부터 유명한 소리의 고장이요, 농요의 발생지로 여러분들이 80여세의 노인부터 7~8세 어린이까지 총동원 되어, 30여분의 진지하고 열띤 놀이로 향토의 노래를 들려줘서 고향예술의 진가를 보여주며 쑥이 타는 향내는 청주 공설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온 하늘을 진동시키는 멋진 한장을 폈다고 하고, 온 세상엔 “결성인들의 전통적인 긍지를 과시했다.”



아 시 벌 (초벌매기)

이 영광은 오로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출범과 황인성 총리 내각의 문화체육부 이민섭 장관과 박태권(朴泰權)차관의 선의에 기인한 올바른 심사의 결실이다.

지난 수년간 충남의 실정은 주로 영남 세력에 밀려서 또는 주체시도 우선 위주로 빛을 못보고 심지어 '81년 10월 22일 제22회 때는 형산리 용대기 놀이'가 소재도 좋고, 실지로는 어느 시도보다 특수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여 문화부장관상에 그쳤었다.

금번에 처음 충남과 결성의 한을

잘 풀었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실정이 지극히 어려운 지루한 장마가 겹친 무더위와 농번기에 폐농을 무릅쓰고 꾸준한 연습의 결실이었고, 수많은 분들과 전하수면장을 비롯하여 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전직원들이 직접 인원동원과 장비주선에 대단히 감사한다.

지난 출연을 위해 장기간 진땀을 흘리며 헌신한 결성 농요단원은 물론 혼연일체가 된 5천여 면민과 각 급관계관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의 협조에 도대표로 끌어들인 선구자 입장에서 더욱 미안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더구나 농요단원 여러분에게 몇몇한 대우도 없이 혹독한 노고에 한없이 감사하오며 또한 지원금(도비 4,100만원·군비 3,600만원·찬조금 2,500만원)등 연출료 1천만원을 비롯하여 장비구입·차량비·식대등으로 출연진 품값 일전 지출없이 1억원 이상 경비를 낸 유사 이래 최대의 행사에 더욱 감탄하는 바이다.

이날 종합 최우수상 대통령상 수상은 우승기와 상장, 상금 500만원을 수령(전송 보존금 500만원 별도)했다.

끝으로 당국의 이 농요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간 문화재 2인이상 지정 또는 보존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전수와 영구 보존을 바라는 바이다. 특별히 발굴시부터 수고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이소라(李素羅)

농민요 보존회장, 문화재 전문위원 = 농요지정(채록)

2. 황성창(黃性昌)

문화부 농민요 위원,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원 = 총 발굴과 지도

3. 김청규(金淸圭)

홍주 향토 문화 연구회원, 결성 문화재 보호회장 = 발굴 후원

4. 배관제(裵寬濟)

결성노인회장 = 발굴후원

5. 전옥진(田玉鎭)

홍성군 문화계장,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원 = 농요 추천

6. 배동순(裵東順)

홍주향토문화 연구회장 = 추천, 후원

7. 송해은(宋海殷)

충청남도 공보실 사무관 = 도 담당관

8. 조광성(趙光成)

상록회장 = 연습지도

9. 정인삼(鄭寅三)

한국민속촌 농악단장 = 연출

이상은 농요발굴시부터 피나는 노력과 경연대회의 대상을 수상케한 최고의 공로자임.

이외에 많은 분야와 상세한 각가지 소리의 가사와 악보등은 발간중인 농민요지를 참고바라며, 본지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상 장

종합최우수상

충 청 남 도
홍심결심농요

위는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
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1993년 10월 8일

대통령 김 영 삼



이름은 이소라(李素羅)

문화부장관 최 창



審 査 決 定 內 容

施 賞 名	動 格	入 賞 內 容			備 考 (傳承保存金別途)
		市 · 道	部 門	種 目(姓名)	
중 합 최우수상	대 통 령 상	충 청 남 도	민 요	홍성 결성농요	우승기, 상장 상금 500만원
중 합 우 수 상	국무총리상	강 원 도	민 속 놀 이	강릉 증상 옛날 억지다리 뺏기	상장 상금 300만원
부 문 별 우 수 상	문화체육부 장 관 상	경 상 북 도	농 악	금릉 빗내 농악	상장 상금 각 100만원
		함 경 남 도	민 속 놀 이	토성 관원 놀이	상장 상금 각 100만원
		전 라 남 도	민 요	영광 대화 들노래	상장 상금 각 100만원
		충 청 북 도	민 요	강외 동평 들노래	상장 상금 각 100만원
		경 상 남 도	민 요	거창 삼베일 소리	상장 상금 각 100만원
개 인 연 기 상	충 청 북 도 지 사 상	전 라 남 도		영광 대화 들노래 박 균 찬	상장 상금 각 100만원
		경 상 북 도		금릉 빗내 농악 손 영 만	상장 상금 각 100만원
		경 상 남 도		거창 삼베일 소리 송 봉 임	상장 상금 각 100만원
공 로 상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장상	광주직할시	민 요	광산 들노래	상장 상금 각 80만원
	예총회장상	경 기 도	민 속 놀 이	왕곡동제	상장 상금 각 80만원
	KBS사장상	부산직할시	민 속 무 용	동래 고무	상장 상금 각 80만원
장 려 상	문화재보호 재단이사장상	대구직할시	민 요	대구 서촌 상여소리	상장 상금 각 80만원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	인천직할시	민 속 놀 이	두루메기 떼뜨기잡이	상장 상금 각 80만원
입 장 상	청주시장상	서울특별시	민 속 놀 이	만리현 돌팔매 편싸움놀이	상장 상금 각 50만원

결성농요 출연자 명단

연번	담역	담활	성명	연령	성별	연번	담역	담활	성명	연령	성별	연번	담역	담활	성명	연령	성별
1	농	악	정인삼	53	남	49	머	습	박용회	44	남	97	머	습	장재신	35	남
2	"	"	김모장	61	"	50	"	"	이태형	47	"	98	두	래	광종명	66	"
3	"	"	오종섭	50	"	51	"	"	이광현	54	"	99	"	"	최동순	65	"
4	"	"	이박문	60	"	52	"	"	최학행	60	"	100	"	"	장명태	71	"
5	"	"	박성복	63	"	53	"	"	장가진	58	"	101	"	"	김춘식	64	"
6	"	"	강영신	80	"	54	"	"	고정덕	30	"	102	모	쟁이	김배현	61	"
7	"	"	김종근	59	"	55	"	"	현치목	60	"	103	"	"	김원배	64	"
8	"	"	안병록	62	"	56	"	"	이종국	51	"	104	"	"	최효창	65	"
9	"	"	신세진	75	"	57	"	"	장의태	54	"	105	"	"	이병호	75	"
10	"	"	이시연	58	"	58	"	"	정재순	53	"	106	"	"	이창운	59	"
11	"	"	이동진	61	"	59	"	"	김창준	52	"	107	체	계꾼	김용환	59	"
12	"	"	이동진	63	"	60	"	"	박현범	46	"	108	"	"	장세두	74	"
13	"	"	이황상	57	"	61	"	"	김동소	45	"	109	"	"	장성준	58	"
14	"	"	정제복	51	"	62	"	"	김환행	53	"	110	"	"	이성준	62	"
15	"	"	이분석	68	"	63	"	"	장종환	60	"	111	"	"	박직섭	64	"
16	"	"	김학인	76	"	64	"	"	조봉규	75	"	112	"	"	이명옥	62	"
17	"	"	이선종	52	"	65	"	"	김종식	60	"	113	"	"	이영규	63	"
18	"	"	이칠식	64	"	66	"	"	이일환	45	"	114	"	"	고병성	69	"
19	"	"	최용순	57	"	67	"	"	김일호	30	"	115	"	"	김진남	68	"
20	소	리	최광양	57	"	68	"	"	맹봉태	57	"	116	무	등	김정일	48	"
21	"	"	최정학	68	"	69	"	"	최의진	47	"	117	"	"	김성수	8	"
22	"	"	정환섭	74	"	70	"	"	윤관봉	52	"	118	"	"	변수연	9	"
23	"	"	최환섭	70	"	71	"	"	김계환	60	"	119	"	"	최태연	10	"
24	"	"	최광득	72	"	72	"	"	정갑섭	55	"	120	"	"	이진진	11	"
25	"	"	정광수	60	"	73	"	"	김남수	40	"	121	"	"	김미은	11	"
26	"	"	정광진	62	"	74	"	"	유일섭	40	"	122	"	"	김진미	9	여
27	"	"	배관제	63	"	75	"	"	신양길	57	"	123	"	"	노연선	9	"
28	"	"	최병호	73	"	76	"	"	김일권	57	"	124	"	"	김연정	10	"
29	"	"	최광운	66	"	77	"	"	김일우	56	"	125	"	"	박선일	10	"
30	"	"	장성철	59	"	78	"	"	이하규	52	"	126	"	"	최광숙	11	"
31	"	"	최홍식	49	"	79	"	"	김길수	38	"	127	아	낙네	이영원	47	"
32	"	"	최용권	71	"	80	"	"	이상수	27	"	128	"	"	박종래	51	"
33	"	"	최양섭	65	"	81	"	"	김형태	34	"	129	"	"	이옥수	59	"
34	좌	상	박양섭	81	"	82	"	"	최창문	40	"	130	"	"	인자순	57	"
35	논	인	최순환	65	"	83	"	"	김예문	44	"	131	"	"	김준수	51	"
36	수	습	장종록	75	"	84	"	"	박용민	53	"	132	"	"	김성균	56	"
37	머	"	김석경	39	"	85	"	"	김인섭	67	"	133	"	"	남은자	49	"
38	"	"	장경준	46	"	86	"	"	이달진	32	"	134	"	"	최희필	45	"
39	"	"	김종택	40	"	87	"	"	이수용	57	"	135	"	"	김연필	60	"
40	"	"	윤병세	44	"	88	"	"	김기진	56	"	136	"	"	최희필	50	"
41	"	"	김희태	60	"	89	"	"	이대화	37	"	137	"	"	김순수	60	"
42	"	"	김갑수	57	"	90	"	"	이대화	58	"	138	"	"	김순수	60	"
43	"	"	김동태	60	"	91	"	"	이대화	40	"	139	"	"	김순수	67	"
44	"	"	이주순	60	"	92	"	"	이대화	61	"	140	"	"	김순수	48	"
45	"	"	장우명	61	"	93	"	"	최광한	63	"	141	"	"	김순수	62	"
46	"	"	홍대	64	"	94	"	"	김한중	61	"	142	"	"	김순수	58	"
47	"	"	맹대	47	"	95	"	"	김한중	71	"	143	"	"	김순수		
48	"	"			"	96	"	"	김한중		"	144	"	"	김순수		



향토사 정보

복 익 채

●향토탐방 “복신굴”

향토문화연구회원 허 규

백제부흥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는 당연히 백제 의자왕의 동생이며, 부왕의 조카인 복신장군이다. 백제가 망한 후 “중” 도침과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알뜰시장 93년 12월 18일)

●백제 부흥운동의 전적지인 “주류성” 백제권 포함.

백제 부흥운동의 전적지인 “주류성”은 장곡면 대현리 광성리를 개발해야 한다.

(대전일보, 충남일보 93년 12월 21일)

●향토문화 연구회 월례회

향토문화 연구회를 이상선 군수, 남문우 지청장, 서정건 경찰서장, 이지영 교육장, 이용학 군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최하였다. 배동순 회장의 현안문제와 이상선 군수께서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결전지는 홍주목 관할 홍성이며, 임존성 부근 장곡산성, 광성리 학성으로 봐야 될것으로 본다.

.....(94년1월13일15:00 월례회의 홍성문화원)

●백제권 개발 “주류성” 포함

백제 부흥운동의 전적지인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광성리 “주류성”이 백제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고 홍주의사총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주간홍성 94년 1월 24일)

●당인항, 백제권 전적지와 백제권 개발에 포함해야 한다.

향토문화 연구회 회원 조 환 웅

.....(주간홍성 94년 1월 24일)

●내포지방 향토문화 연구 연합회 결성

연합회장 윤기상씨, 부회장에는 홍주 회장 배동순씨의 6명, 감사에는 홍성 정진태 외 1인을 선출했다.

.....(94년 1월 29일 11:00 덕산 가야호텔)

●“설날 특집” 향토사학자 김갑현씨의 대담

지금부터 1300년전 백제 부흥군의 총지휘 본부이자 왕도로 정해졌던 “주류성”이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일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면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장곡면 도산리에서 태어나 현재 살고 있는 사학자 김갑현(63)씨를 만나 “주류성”이야기를 듣고 설날을 맞은 우리 모두가 새해엔 조상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갖고 고증작업에 나설 것을 다짐해 본다.

사학자 김갑현씨는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덕수상고와 장곡면 양성중학교에서 5년간 역사를 가르쳤으며, 35세때 도산리 농협조합장으로 시작 초대 장곡농협 조합장, 홍성군 농협 조합장을 역임했고, 현재 홍주향토문화 연구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간홍성 94년 2월 7일)

●도청... 홍성으로 오 수밖에
없다. 향토문화연구회 부회장 전 옥 진

충남 도청의 이전이 전도민의 관심사
로 계속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사
연구를 토대로 도청이 홍성지역으로 옮
겨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지형적인 필연
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주간홍성 94년 2월 7일)

●7개 지역 백제문화 유산 발굴 내포지방 향토문화연구 연합회 결성

홍성을 비롯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청양, 보령 7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미개발된 백제 문화유산을 발굴 선양하
고, 기존의 백제 문화유산은 물론 기타
문화재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곳
향토사가들이 연합회를 결성 그 향후 활
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간홍성 94년 2월 7일)

●“6만명 전투, 3만명 전사”

공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이 도 행
지금부터 백년전 1894년도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쫓겨난 농민들이 반봉건 반
외세의 기치를 든 동학혁명으로 이나라
역사를 뒤흔들때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
심지인 홍주(지금의 홍성)에서도 피비린
내 나는 접전이 벌어졌다. 갑오년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때 남북점이 합류한
농민군의 주력이 공주로 진격하고 있는
동안 홍주, 예산 등지에선 박덕칠, 박인
호가 7천군을 이끌고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웠다. 북적 교단의 영향아래 있는 박
인호 농민군은 태안, 서산에서 출발하여
해미, 면천, 신례원, 온양, 천안 코스를
거쳐 경성을 함락시키고져 진격하던중
후방의 가장 강력한 진압부대인 홍주성
을 먼저 공격하려다가 홍주목사 이승우
와 일본군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말았
다. 이 과정에서 우리고장 홍주인들 일

부는 관군에 일부는 농민군에 가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주간홍성 94년 2월 21일)

●향토문화 연구회 원례회

임원개선은 1년 유임으로 하고, 4월초
에 내포지방 향토연구 연합회를 7개군 8
백여명이 모여 백제 문화 세미나를 홍주
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

(94년 2월 17일 홍성문화원 회의실)

●한국 농민요 전국대회 결성예 시 성황리에 개최

- 경북 예천 김명희 외 3인, 농요
- 92년도 대통령상
- 전북 익산 이병열 외 4인, 농요
- 77년도 국무총리상
- 전북 익산 이병열 외 4인, 지게목발
- 72년도 문공부장관상
- 강원 횡성 이종호 외 11명, 회댓이
소리 - 84년도 대통령상
- 충남 홍성 황성창 외 20 결성농요
- 93년도 대통령상

이날 94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보존회
명칭을 「두레소리 보존회」로 개칭하고,
회장에 강월희씨, 부회장에 결성 황성창
씨를 선출 자체 제작한 농요책자, 비디
오 테이프를 전달했다.

.....(94년 2월 27일 12시 결성면사무소 회의실)

편 집 후 기

쌀쌀한 꽃샘추위는 얼었던 가슴을 풀어놓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새싹은 돋아나듯이 이제 진정한 역사의 흔적은
原始近本하여 민족의 참모습을 드러낼 참인가
보다.

식민사관에 가려져 있는 백제인의 합성소리와
아울러 마한의 역사성과 더불어 거슬러 올라가
면 갈수록 민족의 숨소리는 웅장하기만 하다.
4월이 되면 숨겨졌던 주류성이 세상에 밝혀지
고 그땅에 살고 있는 홍주인은 자긍심을 갖고
이 시대를 앞서 갈 것이다.

臥 石

山界

龍卧川

上西面

下西面

缸泊處

高山

驛



倉

竹

洪

0
706